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주지)
돌탑에 쌓은 소원 동전
세상의 빛이 돼 이웃에게
16·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8월 1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64호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용감하게 마음 먹고
항상 신중하게 생각 하며
항상 깨끗하게 행동 하라.

“만공·의친왕, 3.1운동 재추진”

이석 황손, 20일 제7회 만공선사 학술대회서 주장



이석 황실문화재단 총재(사진 가운데)가 의친왕과 만공 스님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만공 스님은 아버님인 의친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수덕사는 제2차 3.1운동의 비밀기지였다.”

일제강점기 만공 스님과 의친왕이 독립정신으로 의기투합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덕사에서 2차 3.1운동을 기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종의 증손자이자 의친왕의 아들로 현재 대한황실 후손을 대표하는 이석 황손에게서 나온 발언이다.

경허만공선양회(회장 옹산)가 9월 20일 예산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개최한 제7회 만공선사 학술대회에서 황실문화재단 총재 이석 황손은 “만공 스님은 항일전쟁과 연계된 비밀결사 운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석 황손은 “3.1독립선언서를 33인이 모여 읽은 태화관은 사동궁의 옆집으로 아버님인 의왕이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이 만난 곳”이라며 “고종의 독살 이후 시신에서 이를 목도한 순종과 의왕은 공조직이 붕괴된 비참한 상황에서 종교조직에 의지했다. 그 일환으로 고종 사후 손병희 선생을 필두로 결사된 게 3.1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석 황손은 손병희 선생이 3.1운동 이후 탄압으로 작고하자 의친왕이 만공 스님을 중심으로 제2차 3.1운동을 노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친왕은 수덕사를 자주 방문했으며 만공 스님은 의친왕과 의기 투합했다. 당시 선물로 받은 것이 왕실에 전해지던 고려 공민왕의 거문고로 이것은 현재 수덕사 박물관서 보관하고 있다.

이석 황손은 “두 분은 너무나 뜻이 맞으셨다.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술자리를 빙자해 수덕사를 찾으셨다. 의친왕의 ‘만호’라는 법명도 만공 스님이 지어 주셨다. 그래서 아버님의 유품에는 ‘만호’라는 호가 써 있다”고 말했다.

이석 황손은 “아버님은 수덕사를 수시로 드나들고 두 분은 제2차 3·1운동을 기획했다”며 “만공 스님을 비롯한 수덕사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보냈으며 이런 사실이 일본 측에

의친왕과 긴밀한 관계 유지
“수덕사, 2차 3.1운동 비밀기지”
독립자금 전달, 항일운동 지원

발각돼 의친왕은 서울로 강제압송을 당해 가택연금이 됐다. 만공 스님은 한탄 속에 수덕사에서 정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석 황손은 “이런 사실은 일제에 의해 언론 통제를 당해 비밀화 됐다. 알려지면 일제에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의친왕이 일제로 부터 가택연금되는 계기였다. 굴욕적으로 작위를 내렸던 일제는 순종하는 저의 첫째 형님에게 작위를 이어받게 하고 이후 아버님인 의친왕을 술주정꾼으로 내모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만공 스님, 독립자금 자주 전달”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세미나에 앞서 만공 스님이 만해 스님에게도 독립자금을 자주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설정 스님은 먼저 만해 스님의 상좌인 춘성 스님에게 들은 말을 전했다. 설정 스님은 “만공 스님은 독립에 대한 의기가 맞닿아 의친왕과도 깊은 교우를 나눴다. 또한 의친왕이 수덕사에 자주왔다는 말을 어려서도 들었다”고 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어려서 만해 스님의 상좌인 춘성 스님으로부터 들은 만공 스님과 만해 스님의 교우관계를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료로 수연 스님의 증언도 공개됐다.

스님은 이어 “만공 스님은 지역 출신인 김좌진 장군, 만해 스님과도 교우를 나눴다. 특히 만공 스님이 만해 스님을 만나 자주 독립자금을 전해줬다고 들었다”며 “특히 만공 스님은 광복이 필연적으로 됨과 동시에 광복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문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만공 스님이 만해 스님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했다는 또 다른 증언도 자료로 공개됐다. 이 증언은 만공 스님을 시봉한 스님 중 유일한 생존자인 수연 스님(90)이 1942년 전 덕숭총림 방장 원담 스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다.

수연 스님은 자료를 통해 “만공 스님은 1942년 8월 초순 간월암에서 천일기도를 하셨는데 당시 시봉했던 원담 스님으 부터 ‘노스님이 실제 숨어있는 독립운동가’라는 말을 전해들었다”며 “원담 스님은 만공 스님이 한양에 갈 때마다 따라가 만공 스님이 총독부 회의 참석 날과 선학원 고승대회 참석 날 밤 등 삼청공원에서 만해 스님을 만나 독립자금이 든 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다고 했다”고 했다. 경허만공선양회 회장 옹산 스님은 “만공 스님의 천일기도는 수행에 근간하는 봉암사 결사의 기초가 됐다. 조선총독에게 일갈한 것은 독립의지를 분명히 밝히신 것”이라며 “만공 스님의 유공자 지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수덕사=노덕현 기자

과거사 정리위한 ‘사부대중위’ 구성

조계종 총무원, 22일 위촉식… 종령 기구로 출범

종단 분규와 1994년 개혁 과정에서 이뤄진 정치적 징계 문제를 해소하고 종단 개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부대중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9월 22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이하 사부대중위원회)’를 발족하고 출재가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사부대중위원회는 종단 종령 기구로서 총무원은 22일 오전 종무회의를 통해 종령을 확정했다. 운영기간은 1년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스님 위원으로는 자성과쇄신결사본부장 도법 스님을 비롯해 흥선(직지사 주지)·덕문(동화사 주지)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지홍·범혜·장명·법인·만당·혜범 스님, 지현·일감·세영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실천승가회 집행위원 일문 스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혜조 스님 등 15명이 위촉됐다.

재가 위원으로는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 조성택 고려대 교수, 김동건 불교포럼 대표, 이향민 인드라망연구소장, 박재현 화쟁아카데미 사무국장, 정웅기 붓다로살자 연구위원, 홍지연 대불련 지도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부대중위원회는 위촉식 이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으로 도법 스님과 조성택 교수를 선출했으며, 총괄처장에는 정웅기 위원을 선임했다. 향후 사부대중위원회는 △과거사 정리 △94년 멸빈 △종단개혁 계승 등 세 분과로 나뉘어 사안을 다루게 된다.

이를 통해 종단 현대사의 성찰과 평가와 승적·학적·분규·정치적 징계 등 과거사 정리의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며 당사자의 진정·제안 접수 창구도 1~2개월 한시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94년 멸빈자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적으로 94년 멸빈자에 대한 조사 및 평가와 함께 대중공의와 종헌질서에 입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종단 개혁 정신 계승을 위해서는 현대불교사에서 제시됐던 개혁안들을 정리하고 미래지향적 개혁 과제 도출을 위한 다양한 공론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부대중이 희망하는 백년대계와 주요 개혁 방향 등을 정리·발표한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0년간 종단이라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차이와 입장 충돌로 남겨진 많은 상흔들은 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지난 대중공사에서 다뤄졌던 서의현 前 총무원장에 대한 사안 역시 사부대중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나아가 94년 징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 개혁의 정신을 잇는 것은 94년에 대한 회고가 아니라 그보다 먼 종단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중공사에서 함께 참구한 각종 미래상을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은 9월 22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를 발족하고 출재가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출·재가 26명 위원 위촉
위원장 도법 스님·조성택
과거사·멸빈·개혁 계승 등
1년 간 세 분과로 활동해



천년의 빛 ‘사리’ 다시 석가탑 속으로

석가탑 사리 봉안기를 읽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의 모습. 경주 불국사 석가탑(삼층석탑, 국보 제21호) 사리와 봉안구가 9월 16일 다시 봉안됐다.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9월 16일 석가탑 사리장엄 봉안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봉안된 석가탑 사리는 지난 2012년 시작된 9월 경주 불국사 석가탑 해체보수사업으로 외부에 반출된 것이다. 봉안된 사리 28과 외 18과는 불국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개방형 이사 4명 모두 선임

21일 이사회… 김선근 종단 추천 이사, 개방형으로 선출

동국대가 교육부의 개방이사 충원에 대한 기한인 21일에 맞춰 개방형 이사를 모두 충원했다.

동국대는 9월 21일 제295회 이사회를 열고 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종단 추천 이사인 김선근 이사 사표를 수리, 다시 개방형 이사로 선출했다.

김선근 이사는 이사회 전인 9월 9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개방형 이사 추천위에서 김선근, 이황우 후보로 복수추천됐다. 교육부의 승인은 4일 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9월 21일까지 개방이사 4명을 충원하라고 동국대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동국대 이사회는 스님이 개방형 이사로 추천돼는 등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의 본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관을 개정해 재가자가 개방형 이사로 선임되도록 했다.

이로서 동국대 이사회는 안채란, 이연택, 김선근, 김기유 이사의 4명으로 개방이사를 구성하게 됐다.

이사회에 참석한 김기유 신임 개방이사는 “이사장님을 위시한 많은 이사들의 배려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인 이사회에 참여하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체 총괄 사장의 경력을 잘 활용하고, 이사님들을 잘 모셔 미력이나마 불교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2월 3일 임기가 만료예정이었던 영담 스님의 후임으로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이 선임됐다.

잔여임기 관계로 돈관 스님의 임기는 12월 4일부터 4년으로 결정됐다.

노덕현 기자



선학원 정관 회복 놓고 조계종·선학원 '설전'

각각 결의문·성명서 내고 비판

조계종과 선학원이 장외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9월 22일 열린 41차 회의에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선학원의 설립주체는 조계종단입니다' 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선학원이 승려증 발급과 수계산림 등을 시행한 것을 두고 "이는 조계종단이 설립한 선학원에 대한 연고권을 부정하고, 그 권한을 찬탈하려는 해종행위임과 동시에 파승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학원 분원과 포교원의 종단 소속 스님들에게 탈종을 막으려는 종단의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선학원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집단 성명은 법원 판결을 겁박하는 비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선학원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선학원은 선사 스님들의 설립취지를 받들어 한국불교의 선맥을 면면히 이어가도록 지원해 왔다"면서 "그러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조계종은 이번에도 '선학원의 설립 주체는 조계종이었다' 고 집단성명을 작성해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청소년 포교 활성화 공모전 결과 발표

파라미타 '조계종 취업센터' 대상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프로그램 공모전이 막을 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대행 송묵)은 9월 22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서 '어린이·청소년(대학생 포함) 포교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5일~8월 14일 모집기간 동안 총 15팀이 응모해 1차 서류심사서 개인 3명, 단체 5곳이 통과했으며, 이 중 총 3팀이 최종 수상했다.

수상작은 대상 1팀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의 '조계종 취업지원센터' 과 최우수상 2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의 '자따마따 1박 2일'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의 '어린이청소년 인성함양캠프' 가 최종 선발됐다. 상금은 각각 대상 3백만 원, 최우수상 2백만 원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파라미타의 '조계종 취업지원센터' 는 종단 차원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청년 불자들의 구인·구직 활동을 도움으로써 불교 인재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박아름 기자

화쟁위원회 역할 두고 '치열한 날선 공방'

9월 22일, 화쟁위-아카데미 '화쟁좌담회' 개최

화쟁(和諍)의 진정한 의미와 사회 적용법을 찾자며 마련된 '화쟁좌담회' 가 실상 화쟁위원회 활동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에 '화쟁위는 본연 역할에 충실한가' 에 대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며 화쟁을 논하는 자리에 '쟁(諍)' 만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와 화쟁문화아카데미(대표 조성택)는 9월 22일 서울 안국동 화쟁문화아카데미에서 '화쟁좌담회-화쟁(和諍)을 화쟁하다' 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최근 모 일간지 기고를 통해 '도법 스님의 화쟁론' 을 전면 반박한 것이 단초가 돼 열렸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이 진행자로 나선 이날 토론자로 도법 스님, 조성택 고려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정웅기 붓다로살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2부의 화두는 '종단 내부 문제를 대하는 화쟁위 태도' 에 대해서 였다. 박병기 교수는 "사회적 사건에 대해 중재자로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화쟁위가 종단 내부문제에 대해선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화쟁은 중재 입장만 취해선 안 되고 당사자 입장에도 서야한다. 내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온전한 중재자' 로서 입장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에 도법 스님은 최근 발생한 의현 스님 재심사건을 예로 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을 화쟁위에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종단 내부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하다. 관념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이도흠 교수는 "현 상황에서 도법 스님은 2인자 역할이다. 독재자가 총리, 장관 등 인기 있는 사람을 내세워 정권을 유지하듯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희종 교수도 "도법 스님이 종단 내부 문제를 화쟁으로 풀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며 "종단 내 갈등해소가 화쟁으로 되지 않는다면 화쟁위는 도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쟁위 '문제 해결' 이 없다

이에 앞서서는 쌍용차 노조문제, 4대강 문제 등 종단 외부 사안에 대한 화쟁위 역할 평가도 이뤄졌다. 정웅기 위원은 "우리 사회서 강자들은 대화를 원치 않는다"며 "이들과 싸우다 지친 약자들의 요청으로 종교계가 강자들과 대화를 이끌었다. 여러 사회적 사안들에 대해 완벽히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어도 성과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도흠 교수도 화쟁위가 기득권을 대화의 장으로 이끈 것은 큰 성과라고 주목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화쟁을 개시개비(皆是皆非, 모두가 옳고 모두가 그르다)로써 관념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대칭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화쟁문화아카데미는 9월 22일 서울 안국동 화쟁문화아카데미 3층 란스튜디오서 '화쟁좌담회-화쟁(和諍)을 화쟁하다' 를 개최했다.

화쟁, 사회적 적용 어떻게?

화쟁사상의 사회적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화쟁이 가능하다' 는 의견과 '좋은 게 좋다는 개시개비적 사고는 관념일 뿐이다. 구조적 모순이 해결돼야 화쟁이 가능하다' 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도법 스님은 "실상에 대한 무지에서 싸움이 시작된다. 모두에게 실상을 잘 알리고 공감, 수용케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힘의 불균형 속에서도 화쟁하겠다는 의지와 역량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희종 교수는 "대립 상황에서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은 채 무조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화쟁을 진행한다면 일종의 포장이고 기만이다"며 "원만한 화쟁을 위해서는 대립상황에 개입된 구조적 탐욕과 의도의 실상을 배제하는 선행 작업인 파사현정(破邪顯正)이 필요하다. 도법 스님은 이 점을 간과했다"고 반론했다.

이에 조성택 교수는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하는 파사는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화쟁이 전제된 뒤 파사를 논해야 한다. 다수의 옳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흠 교수는 도법 스님과 조성택 교수 주장이 관념적 차원에 머무를 뿐 실질적 해결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 교수는 앞서 도법 스님이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를 빗대 "눈을 가리고 서로 코끼리 모습이 다르다 싸우는 사람들의 안대를 풀어주면 같은 실상을 보고 화해하게 될 것"이라 말한 것에 대해 "만약 안대를 누군가 풀지 못하게 억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억압과 권력이 개입된 상황 속에서 개시개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구조적 모순에 대한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재자가 개시개비 관념을 넘어 상황에 공감하는 연기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청정 승가 구현, 공동체 회복 지름길"

'승가공동체 회복' 주제로 조계종, 7차 100인 대중공사

승가 불신 원인 '청정성 상실' 범계 행위 신속한 징계 필요

세속화로 무너지고 있는 승가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부대중이 머리를 맞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9월 23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수행풍토 진작과 승가공동체 회복' 을 주제로 제7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7차 대중공사의 주제별 토론은 승가청규를 중심으로 본 바람직한 승가상,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승가공동체, 범계행위에 대한 승가공동체 대응방안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출가와 재가를 나눠 6개 모둠으로 진행됐다.

승가청규를 중심으로 본 바람직한 승가상을 주제로 토론한 스님들은 승가를 불신하는 원인을 '청정성의 상실' 에 있다고 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바라이죄에 대해 명징한 징계 △범계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신속한 징계 △승가 청규의 대중적인 실천 △승가 소유의 문제해결 등을 제안했다.



조계종은 9월 23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수행풍토 진작과 승가공동체 회복' 을 주제로 제7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오전 개회식에서는 6차 대중공사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부대중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 △비구니, 재가자의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제도화한다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사를 교구본사 및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등의 내용이 정리됐다. 신성민 기자

"산악관광진흥법 당장 철회하라"

조계종, 23일 성명 발표 및 철회 의견서 전달

"정부는 기업체 등에게 각종 특혜와 특례를 부여해 가며, 오로지 경제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전국토의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있다. 산악관광진흥구역 법률을 철회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산악관광진흥법)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불교계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9월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문체부가 입법 예고한 '산악관광진흥법' 은 산악관광 시책 강구, 기업 규제완화, 세금과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비용지원, 토지 수용권한 부여 등 각종 특혜로 점철돼 있다"며 "국토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토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위는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는 국토 보전 등을 위해 역대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규제를 통해 보호해 왔던 곳"이라며 "정부가 각종 특례 조항 등을 통해 기존에 지정된 군사지역, 백두대간 등 법적 보호지역조차 막무가내로 개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름다운 강산에서 강이 사라지고, 이제 남은 아름다운 산마저 사라지지 않도록 '산악관광진흥법' 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지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9월 23일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각 상임위원회 등 관련 부처 130곳에 제출하기도 했다.

의견에서는 △산지 내 전통사찰과 문화재 사찰 등의 수행환경 훼손 및 피해 △사업 시행 방식에 수용, 사용, 환지, 혼용 등의 개념 혼재로 인한 재산 피해 △개정으로 인한 개발 대상 확대 및 케이블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사업시행자(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적용 △산지·산림에 비전문 기관인 문체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것 등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행 스님 세계평화 원력 뉴욕에 우뚝 서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13일 대법당 준공식 개최

대행 스님의 세계평화 원력을 품은 법당이 뉴욕 한복판에 우뚝 섰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지원장 혜봉)은 9월 13일 뉴욕 플러싱에서 뉴욕지원 대법당 준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마음선원 본원 및 전국 지원 스님 50여명과 선법합창단 등 뉴욕지원 및 국내외 지원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대법당은 1,200여 평의 대지 위에 108평 규모의 전통 목조 양식으로 건립됐으며, 이는 국외에 건립된 전통 사찰 건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법당 안에는 前 한마음선원장인 대행 스님의 진영과 스님의 일생을 담은 벽화가 함께 조성됐다.

이 같은 뉴욕 대법당 조성에는 무형문화재 제74호 신응수 대목장이 도편수를 맡았으며 박찬수(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불상), 임석환(중요무형문화재 118호, 불화 및 탱화), 정수화(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 칠장, 창호 등 채색), 임동조(석공예 명장, 계단 및 난간), 이종진(전통한옥미장 문화재기능 제787호, 꽃담장), 조찬형(충남 소목무형문화재 제18호, 창호), 변종복(금속공예 주조 제1호 명장, 우주탑 및 난간)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재 명장들이 대거 불사에 참여했다.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다양한 명장들이 참여한 대법당 불사는 2005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0여 년간의 공기(工期) 끝에 완공됐다.

지하에는 종교 건물 전문 기업 대표인 제임스 미첼이 시공하고 디자이너 안젤로가 디자인한 300여 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다. 지하 건물에는 무대 시설을 갖춘 소공연장과 인터넷 생방송이 가능한 최첨단 방송실 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앞으로 문화 예술을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 홍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준공식에서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은사이신 대행 스님께서 세계평화를 위해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도록 했다. 스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시작할

108평 규모, 전통 방식으로 조성
문화재 명장 참여해 10년 불사
지하에는 문화 · 방송 공간 들어서

수 없는 불사였고, 스님의 제자이기에 뜻을 받들어 이루어 마칠 수 있었다"며 뉴욕지원 사부대중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대행 스님께서 국외지원의 문을 열어 잠자고 있는 이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어떠한 행로를 걸어오셨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라며 불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자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뉴욕지원장 혜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준공식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내외 스님들과 신도님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대법당 전경. 9월 13일 준공식을 가진 뉴욕지원 대법당은 108평 규모의 전통 목조 양식으로 건립됐으며, 신응수 대목장 등 문화재 명장이 대거 참여해 10년 동안 이뤄진 대작불사다.


대법당 내부에는 대행 스님의 진영과 일생이 담긴 벽화도 조성됐다.


9월 13일 열린 준공식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 등이 커팅식을 하고 있다.

전체 사진 제공=김종찬 씨

자리이자 함께 축하하는 잔치자리"라며 먼 곳까지 와 준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도편수를 맡아 불사를 진행한 신응수 대목장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수여식 직후 신 대목장은 "뉴욕지원 대법당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광화문, 숭례문과 더불어 대대로 문화유산으로 남을 것"이라며 "세계의 중심 뉴욕에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세우는 데 동참할 기회를 준 뉴욕지원 스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가진 후, 불사 동참자와 관심 있는 현지인들과 관련 기관, 언론들을 초대해 외국인을 위한 대법당 준공법회를 별도로 가질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의성 대곡사 삼화상 진영, 조선 1782년, 의성 대곡사(불교중앙박물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27호

화엄경부터 고승 진영까지 '한눈에'

불교중앙박물관, 가을 기획전… 오는 11월 22일까지

개운사 화엄경 · 대곡사 진영
두 가지 테마로 전시 구성
보물 19점 등 총 56점 선봬

개운사 아미타불 복장 유물인 화엄경 일부와 대곡사 조사 진영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범)은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2개월 간 기획전을 '개운사 아미타부처님께 봉안된 화엄경(華嚴經)의 세계' 와 '대곡사의 불화' 두 가지 테마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개운사와 대곡사에서 기탁해 불교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19점을 포함한 56점의 성보문화재들이 전시된다.

먼저 개운사의 화엄경 전시는 한국 서지사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20권에 달하는 〈화엄경〉은 하나의 불상에서 가장 많은 수량의 화엄경이 발견된 사례이며, 간행시기도 불상 조성 이전인 9~12세기까지 올라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복장물 중 〈화엄경〉은 불상과 별도로 보물 제1650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의성 대곡사의 불화들에서는 조선 시대 고승들의 진영을 주목해볼만 하다. 특히 전시회에 출품되면 진영 중 지옹 · 나옹 · 무학 스님이 한폭에 그려진 삼화상 진영은 가장 이른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또한 함께 전시되는 휴정과 사명당 유정의 진영도 조선시대 조사신앙의 궤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와 함께 불교중앙박물관은 '개운사 복장 전적과 화엄경', '한국 불교계의 삼화상' 을 주제로 10월 5일 오후 2시 부터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정각스님(중앙승가대학 겸임교수), 황인규 교수(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님을 초빙하여 특강도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전쟁 당시 日불교, '전사자 영웅만들기' 열중"

이치노헤 스님, 한일불교문화학회 세미나서 주장

다카하시 츠쿠메이 引導법어 분석
법어 대부분 '천황·국가 보은' 강조
日 조동종 전쟁사관 여실히 드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 등 동아시아를 침탈했던 일본의 불교가 '전사자 영웅만들기' 를 통해 전쟁을 독려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고 스님은 오는 10월 2일 한일불교문화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다카하시 츠쿠메이를 통해 본 조동종의 전쟁'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치노헤 스님은 논문에서 전쟁 당시 일본 조동종 스님인 다카하시 츠쿠메이(高橋竹迷, 1883~1951)를 주목했다. 한시의 대가였던 다카하시는 〈응용전시인도법어(應用戰時引導法語)〉를 저술했다. '인도법어' 는 일본 조동종 장례의식 중 중요한 부분으로 장례의 도사(導師)가 고인의 덕을 찬탄하고 정토로 인도하는 것이다. 즉, 다카하시의 〈응용전시인도법어〉는 전사자들을 위한 법어 용례 모음집으로 볼 수 있다.

〈응용전시인도법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이치노헤 스님이 〈응용전시인도법어〉의 총 25편의 법어에 들어간 어구를 분석한 결과 △천황 △무훈 △성전 △영령 등 네 가지로 분류됐다.

이치노헤 스님은 "천황을 위해 일신을 던지고, 진실로 국가에 보은해, 훈공을 올려 열반에 드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당시 조동종의 전쟁은 불교인의 최종 목표인 열반을 약속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전사자 영웅만들기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을 전쟁으로 보냈을 다카하시 츠쿠메이는 전후에도 스스로가 이끈 조동종의 전쟁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치노헤 스님은 "지금 일본 조동종은 다카하시 치쿠메이를 거의 기억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이유로 조동종의 전쟁이 아직도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불교의 전쟁참회와 동국사' 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는 1만여 점에 가까운 한일 근대사 자료를 소장한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일제시기 자료목록 현황' 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김성순 금강대 교수의 '제국주의 전쟁과 우물가의 여인들' △니이조 카즈노부 나고야 대곡고 선생의 '진종대곡파의 해외개교와 천황패봉안의 의미'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일본 조동종 이치노헤 쇼고 스님〈사진 왼쪽〉은 10월 2일 한일불교문화학회 세미나에서 전쟁 당시 조동종 승려인 다카하시 츠쿠메이〈사진 오른쪽〉의 인도법어집을 분석하고 조동종의 전쟁 참여를 비판했다.

세월호기간제교사 순직인정 2차 오체투지

노동위, 9월 23일 유가족 · 노동자일동 · 성소수자 등 동참

세월호 희생자 기간제교사 故이지혜 · 김초원 선생님 순직인정을 촉구하며 불교계가 오체투지를 실시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노동위)는 9월 23일 조계사 대웅전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인사혁신처 앞까지 2차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이번 오체투지에는 두 기간제 교사 유가족을 비롯해 불교시민단체, 쌍용자동차 · KT · 전교조 노동자, 성소수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태고종 충북노동인권위원장 진화 스님은 "국가는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 묻고 싶다"며 "살아서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선생님' 이라 불렸는데 죽은 후에 어찌 차별이 있을 수 있는가 안타깝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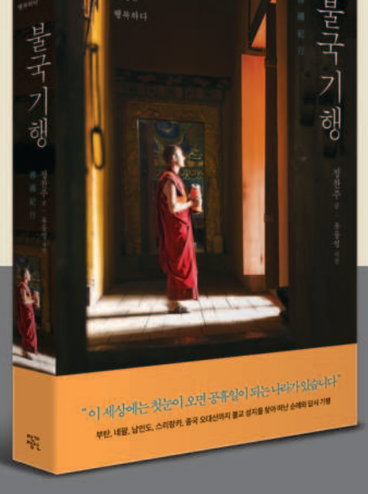
한편 노동위는 지난 9월 9일 1차 오체투지를 실시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잡가정신

종교적 성찰을 통한 울림과 감동, 구도 문학의 선구자, 정찬주

"이 세상에는 첫눈이 오면 공휴일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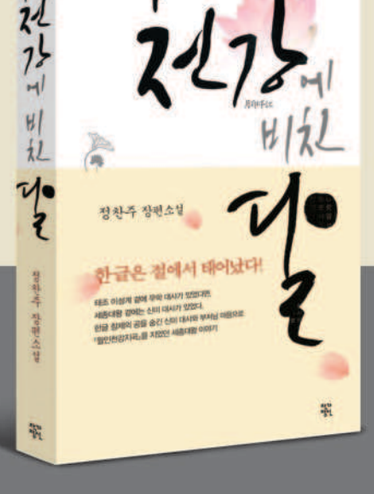


불교 성지를 찾아 떠난 순례와 답사 기행

순례하면서 나그네로 다니지 말고 주인공으로 다니기 바랍니다. 예컨대 전생에 왔던 곳인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순례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순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고 듣는 것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_『불국기행』 236쪽, 수불 스님 법문 중에서

깨달음이 있는 여행은 행복하다
불국기행 佛國紀行
정찬주 지음 | 유동영 사진
352쪽 | 값 18,000원 | 4도 | 반양장

"한글은 절에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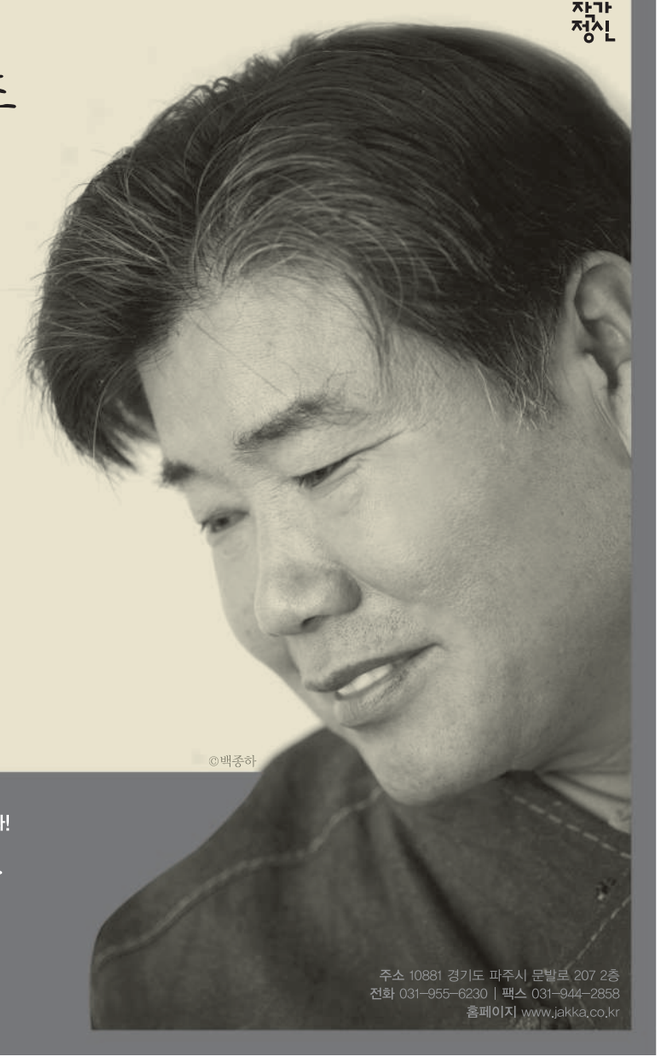
세종대왕과 신미 대사의 한글 창제 이야기

작가는 소설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확대시키는 동시에 지적 감동에 취하게 하는 큰일을 해냈다. _조정래(소설가)

한글이 불교 사상의 한 유산이라는 해석은 우리 삶의 미래에 찬란한 이정표를 제시해준다. _한승원(소설가)

이 소설이야말로 한글 창제의 진실을 밝히는 영원한 횃불이다. _정호승(시인)

태조에게 무학이 있었다면 세종대왕에게는 신미가 있었다!
천강에 비친 달
정찬주 지음 | 328쪽 | 값 15,000원


©백종하

주소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07 2층
전화 031-955-6230 | 팩스 031-944-2858
홈페이지 www.jakka.co.kr

일 주 문



제30회 백고좌 대설법회

실상 대구 법왕사 주지스님이 지난 9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경율론 삼장에 능한 100명의 스님을 초청해 '제30회 백고좌 대설법회'를 봉행한다.



제5회 천진불어린이한마당

혜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스님은 10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동국대 대운동장서 '제5회 천진불어린이한마당'을 개최한다.



'심금' 화엄사 음악회

영관 구례 화엄사 주지 스님은 10월 10일 오후 6시 경내에서 화엄사상이 깃들여있는 '심금'을 주제로 음악회를 연다.



김선우 시인 초청법회

법안 서울 금선사 주지 스님은 10월 4일 반야전에서 '원효와 요석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김선우 시인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제3회 孝사랑 잔치 한마당

연호 서울 관악구 원각사 주지 스님은 10월 6일 오전 11시 남현동주민센터 복지협의체 등의 후원으로 '제3회 원각사 孝사랑 잔치 한마당'을 개최한다.



창원 가을달빛산사음악회

신공 창원 구룡사 주지스님은 10월 17일 개산 88주년을 맞아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가을달빛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여진선원 천진불그리기대회

효신 대전 여진선원 주지스님이 10월 3일 여진미술관 야외전시장서 대전시와 충청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천진불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박상영 교수 세계3대 인명사전 등재

박상영 위덕대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 2016년도 판에 등재됐다.

〈화촉〉 정일태 언론사불자연합회장 장녀 정지민 씨

정일태 언론사불자연합회 회장의 장녀 정지민 씨가 10월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KBS홀서 화촉을 밝힌다.

〈화촉〉 홍무흠 前 불교TV 상무 장남 홍희택 씨

홍무흠 前 불교TV 상무의 장남 홍희택 씨가 10월 18일 오후 2시 서울컨벤션웨딩홀 5층 아이리스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010)3575-3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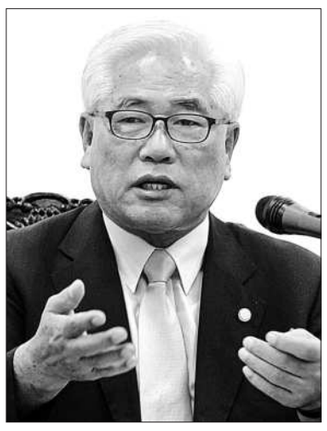
"불교 사회적 역할 주제로 총회 개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내년 9월~10월중 총인원 옆에 새로 불사중인 국제체험관서 제 28차 WFB(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한국의 9개 지부와 유기적으로 의논해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대회는 보여주기식의 화려한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내실있는 대회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빠른 시일내에 TF팀을 구성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사진)는 9월 23일 진각종 총인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최근 유치한 WFB 세계총회 계획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회정 정사는 "2012년 여수 대회서 중국불교 대표가 티베트 스님들의 참가를 문제 삼아. 당시 대회에 참여한 티베트 망명정부 관계자가 급히 철수하는 등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며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회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진각종은 모든 회원들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정 정사는 "회원들의 참가는 본부서 책임져야 한다고 본부 사무총장에게도 요청하는 등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정 정사는 지난 4월 진각종 최초로 국제포교사 2명을 임명한데 이어 올해 2명을 후보자로 정해 연수를 실시한다. 스리랑카 태오 법사(W.L. 세라나타나)와 네팔 지모



내년 10월중 WFB 한국총회 개최

네팔 · 스리랑카 국제포교사 연수

네팔 · 스리랑카 국제 포교소도 개설

불교페스트벌, 밀교총람 작업 추진

법사(너빈 바즈라빠러) 부부가 바로 그들이다. 회정 정사는 "우리 진각종은 부부가 함께 포교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존 포교사 2명과 포교사 후보 2명 등 총 4명은 10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종단 포교사로서의 기본 자질과 소양 육성 중심의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연수 후 후보자들에게는 법복과 법의가 지급될 것이며, 구체적 보좌 업무도 부여할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정 정사는 종단의 해외포교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해외포교에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결론은 현지인들을 교화해 그들이 직접 포교 일선에 나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지난해에 위덕대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모 법사는 네팔서 진각종 종지 ? 종풍을 현지화한 '새불교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네팔 카투만두에 반야포교소와 국제구호센터를 개소했으며, 반야포교소는 11월 종단 구호물자 전달식을 겸한 지진피해 극복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또한 현지 3개층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반야포교소는 국제한국어학당과 게스트하우스를 개설했으며, 현지인을 위한 영농화 사업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정 정사는 스리랑카 카루나포교소 개설도 언급했다. "스리랑카 지부는 카루나포교소를 지난해 11월 개소했습니다. 네곰보에 위치한 카루나포교소는 45평 규모의 2층 건물입니다. 국제한국어학당과 카타나 지역교화사업, 자성동이(어린이) 교화사업 등을 태오 법사가 중심이 돼서 적극 추진중입니다."

한편 진각종은 12월 15일 대구 엑스코내 오디토리움 공연장서 창작서원가 발표대회인 대구 심인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또한 내년 9월경 WFB 총회와 연계해 국제체험관서 진각종과 아시아 각국 불교문화를 한자리서 소개하는 '아시아 불교문화페스티벌'과 세계밀교의식을 집대성하는 〈한국밀교문화총람〉 작업을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펼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배우 박재민 나눔의 집 기부… "한국인이니까요"

8월 12일 1천만 원 성금 전달

"특별한 계기 보단 자연스럽게 기부를 생각하게 됐어요. 한 가지 이유라면 평소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난 8월 12일 나눔의 집(이사장 송월주)에 1천만 원을 기부한 배우 박재민(32 · 사진)씨에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미국서 태어났지만 평소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그에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는 당연한 일이라 말했다.

박재민씨는 "사실 저도 가진 게 많지 않아서 기부하려고 빚을 냈습니다. 부담은 있지만 제겐 '젊음'이라는 압도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 차차 갚아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나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습니다"라며 웃어보였다.

최근 박재민씨는 언론을 통해 3년 전부터 절에서 살고 있단 사실을 밝혔다. 당시 '결혼 오보설'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서 일시하차하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의 어



3년 전 '오보 결혼설'로 여론 비난

방송하차 후 우울증 · 공황장애

3년 째 서울 성불암서 지내며 극복

머니가 절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다. 그것이 단초가 돼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성불암서 지내고 있다.

"당시 여자 친구와 헤어진 무렵 SBS '짝'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 후 여자 친구와 재회하게 됐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기자 친구가 결혼설을 터트렸어요. 여론은 '애인이 있는데 연애프로그램에 나온 것이냐'며 비난했고, 순식간에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사실 박재민는 한 때 '출가'를 고민하기도 했다. 서울대 재학시절, 전공은 체육교육학과 경영학이었으나 스스로 발심해 종교학과와 철학과 전공 수업을 수강했다.

쾌락, 궁극적 행복, 해탈 등을 얘기하는 박재민씨의 모습은 화려한 연예인이라기보단 깊은 삶의 고민에 빠진 '불자 청년'의 모습이었다.

"불교는 제게 종교라기보다 삶의 가르침이자 하나의 '좌우명'입니다.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고, 모든 인간이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라는 생각을 하면 모두를 존중하게 됩니다. 성불암에서 지내며 느끼고 배운 것들을 통해 제게 주어진 매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박아름 기자**

용주사, 소외계층·경찰에 물품 전달



수원 용주사(주지 성월)는 9월 24일 화산동주민센터에 쌀 2,000kg, 라면 100박스, 현금 500만원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했다. 이날 자비나눔 행사에는 용주사 사회국장 일중 스님과 화산동 동장, 각 통장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용주사는 화성시 동부경찰서에 추석 위문품으로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성인문해교실서 삼광사 신정자 대상



부산 성인문해교실 한마당이 9월 14일 부산시청 대강당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 삼광사 한글학교 발심반 신정자 보살이 '엄마의 꿈'이라는 시화로 당선돼 부산시장 특별상을 수여받았다. 서병수 시장은 "아직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이 적힌 메모지를 지갑에 넣어다닌다"며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축사로 표현해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김주일 기자**

이경규 씨, 봉은사서 점심 설거지



방송인 이경규 씨가 서울 봉은사 대중공양간인 향적원에서 설거지 봉사를 했다. 봉은사 신도회 부회장인 이경규 씨는 9월 19일 신도들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한 그릇과 물컵을 씻었다.

핑크빛 긴 고무 앞치마를 두루고 빨간 고무장갑을 낀 이경규 씨는 많은 신도들의 관심 속에서 열심히 주방세제를 눌러가며 수세미질을 했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의 중흥을 기원하며 제방의 불자님들께 드리는 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오며,

봉은사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주지스님과 신도회 회장을 비롯한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은 제방의 불자님들께 근래 봉은사 운영에 관한 몇몇 신도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도를 넘은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40여년 만에 첫 삽을 뜨려는 봉은사 중창불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봉은사가 지닌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의 탁월함, 그리고 수도 서울에서의 수행과 포교도량으로서의 역할 및 역량에 대해서는 제방의 불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중의 규모가 있다 보니 봉은사는 때로 내부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 중요성과 유명세를 시샘이나 하듯이 종종 외부세력의 도전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봉은사는 이러한 갈등과 도전 속에서도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우고 전법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봉은사 몇몇 신도들이 신도회 운영과 심지어 주지스님 개인의 신상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인물로 배포하고 거리로 나가 시위하며, 급기야 주지스님의 연임을 반대한다며 서명을 받는 등 그 소란과 불협화음이 사중의 담장 밖을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봉은사는 물론 한국불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어 주지스님을 비롯해 신도회 등 봉은사 사부대중은 당혹스러움 속에서 진실규명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봉은사 불사를 위해 개인 재능까지도 기여하는 주지스님의 개인 신상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하겠습니다. 주지스님 개인전 작품의 대다수는 주지스님과 인연 있는 스님들과 지인들이 구입했으며 주지스님은 전시회 판매금액에서 3,000만원을 봉은사 불사금으로 사중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봉은사가 금년부터 3년간 금강경 독송기도를 하면서 신도들의 기도 성취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금강경'독경 CD를 제작했으며 그 판권을 신도회로 기증해 봉은사 불사금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작금 몇몇 신도들의 문제는 지난해 봉은사 신도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봉은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하고자 종루에 전통 다실 공간을 마련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단의 승인을 얻어 적법한 절차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지나치게 시비하였지만 당시 사중 담장안의 일이라 문제 삼지 않았고 불사는 원만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봉은사 신도회는 도 넘게 문제를 제기하는 신도에 대해 수차례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기에 최옥곤에 대해 제명 징계하였고, 최옥곤은 이에 대해 사회법으로 소송을 제기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여 주지스님과 신도회는 부득이 맞대응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곧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문제제기 하는 몇몇 신도들은 신도회에 내는 연등회비 조차 내지 않은 분들로 봉은사 신도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은사는 지난 40여 년간 도시공원법등 각종 규제에 묶여 건물 한 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한 신행공간을 확보하고 전통문화체험관을 통한 내외국인들의 문화적 체험을 실현하고자 현 주지스님이 관계요로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법적허가를 득하여 슬레이트가건물들을 철거하고 터를 다지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명된 최옥곤 외 3명의 거사들이 이마저도 시비를 하고나서 어렵게 마련한 정부 보조금마저 불용처리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봉은사는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각종 수행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도심 속에서 산사의 향음이 풍기는 친환경적 도량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70년대 강남 개발을 앞두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토지수용에 따른 봉은사의 실추된 위상과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강남의 대표 전통사찰로 수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을 배려할 필요도 있으며, 모든 참배객에게 치유와 보람을 느끼는 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불사가 아닙니다. 사부대중이 합심하여 서원하고 밤낮을 뛰어도 어려운 불사인데 지속해서 대중을 이간하고 불사를 발목 잡는다면 이의제기를 넘어 봉은사의 사세와 사격을 추락시키고자 하는 저의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봉은사 사부대중은 중창불사를 도약으로 활발하게 중흥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고, 제명 처분된 최옥곤 외 3명에 대하여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스스로 민 ·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봉은사 사부대중은 봉은사 백년대계를 위한 중창불사 추진이 몇몇 신도들의 도를 넘는 훼방으로 좌절되거나 중단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됨을 잘 알고 있기에, 본 "제방의 불자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주지스님과 봉은사에 대해 오해되고 왜곡된 내용들에 대하여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59(2015)년 9월 23일

봉은사 대중스님
신 도 회 일동 합장
종 무 원



생명콘서트 오프닝에서 7개 종단 대표들과 주요 내빈이 '생명, 함께 심는 행복' 종교문화축제 슬로건 글자박스에 유기농 곡식을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유기농엑스포 부근 입석마을 사과농장에서 사과수확을 하는 자승 스님. 이후에는 지역 농민과의 오찬을 가졌다.

종교 · 유기농 만난 '화합 · 공존'의 한마당

종지협, 19일 괴산서 '제19회 종교문화축제' 개최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함께 열려
첫 지역 개최… 종교 · 지역 상생 도모
종교관 별도 운영해 종교문화 체험
'사찰음식' 문전성시… 축제 '성공적'
지역 농민과 종교지도자들 만남도

생명 사상을 기반으로 한 환경 문제는 현대사회의 모든 종교계가 안고 가는 화두 중 하나이다. 이런 종교의 생명 사상이 친환경 먹거리인 유기농 산업과 만났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의 한국 대표 종교 지도자 모임인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 자승, 이하 종지협)는 9월 19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함께 제19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생명, 함께 심는 행복의 씨앗'을 주제로 열린 이번 종교문화축제는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던 것과 달리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종지협의 종교문화축제와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콜라보레이션'은 괴산군의 요청과 노력으로 이뤄졌다. 올해 1월 임각수 괴산군수는 종지협 회장인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엑스포 참가를 요청했고, 2월에는 직접 자승 스님을 예방해 사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종지협은 3월 이사회에서 종교문화축제를 서울 청계천이 아닌 괴산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교 · 지역 상생의 장 열어

생태적 삶을 기반으로 하는 유기농 산업과 생명사상을 중시하는 종교계와의 만남은 성공적이었다. 오전 10시부터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마련된 '종교존'에는 많은 사람이 종교문화체험을 위해 몰려들었다. '선묵혜자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 산사순례 기도회'에서 2000여 명의 불자들도 행사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종교문화축제에 참석한 종지협 지도자들은 각 종교가 준비한 문화체험 부스를 돌며 서로의 종교문화를 체험하고 소통 · 화합의 의미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종지협의 '종교존'에는 화합과 행복을 2가지 주제로 꾸며졌다. 화합의 장에는 △사찰음식 맛보기(불교) △기독교 역사 인물 알아가기(개신교) △묵주 만들기(천주교) △원불교 알아가기(원불교) △투호례 체험(유교) △이천식천 체험(천도교) △전통매듭 열쇠고리 만들기(민족종교) 등 종교체험부스가 설치됐다.

행복의 장에는 △종교동산 바람개비 만들기 △압화 부채 만들기 △토피어리 화분 만들기 △마법의 손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불교계가 준비한 이날 '사찰음식 맛보기'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괴산 개심사 사중 스님들과 신도들이 직접 준비한 '연잎밥 만들기'는 준비한 물량이 모자라 급하게 추가물량을 준비할 정도로 성황이었다.

사찰음식 맛보기에 참석한 박헌순(전북 고창, 35)씨는 "TV를 통해 사찰음식에 대해 알게 됐지만 직접 만들어 본 것은 처음"이라며 "시중에서 평소에 먹던 음식과 다른 담백한 맛이 사찰음식의 특징이다. 유기농엑스포의 취지에 잘 어울리는 체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심사 주지 석재 스님은 "사찰음식을 많은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음식은 현대인의 큰 관심사"라며 "음식은 곧 생명이고 사찰만큼 유기농 음식을 잘 다루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 스님은 "베트남, 필리핀 등 다문화 이주여성이 직접 참여해 함께 준비했다"며 "남은 행사기간 동안 필리핀 · 베트남 · 중국 · 일본의 전통음식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교 대표들이 '사찰음식 맛보기' 불교문화체험부스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관람하고 있다.


행복의 장 '종교동산 바람개비 만들기'에 참가한 관람객들. 행복의 장 행사에는 △종교동산 바람개비 만들기. △토피어리 화분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생태적 삶은 '공존 · 화합'

이날 종교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생명나눔콘서트'였다. 이날 콘서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유교 어윤경 성균관장, 천도교 박남수 교령, 민족종교 한상윤 회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종지협 지도자들과 주요 내빈은 '생명 함께 심는 행복' 9개의 글자 통에 유기농 곡식을 부어 제19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의 슬로건을 완성하는 퍼포먼스로서 콘서트의 시작을 알렸다.

축제에 참가한 내외빈들은 종교문화축제와 유기농산업엑스포의 만남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서울을 벗어나 첫 번째로 개최한 종교문화축제가 생명사랑사상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유기농엑스포여서 더욱 뜻 깊다"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하는 생태적 삶을 보여주는 것이 유기농이다. 이는 공존과 화합의 마음으로 개최하는 종교문화축제의 의미와 같다"고 말했다.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종교문화축제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종교간 소통을 유도해내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라며 "이번 종교문화축제의 주제인 '생명, 함께 심는 행복의 씨앗'을 통해 축제에 참석한 모든 분이 생명의 고귀함에 동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콘서트에서는 대북, 사물놀이, 퓨전 국악, 뮤지컬 갈라쇼, 관악 퍼포먼스를 비롯해 초대가수 홍진영, 박상철 씨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높였다.

종교, 農家의 어려움을 듣다

이날 종교문화축제는 종교와 농민들의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됐다. 이는 도시에서 진행됐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종지협 종교 지도자들은 괴산군 연풍면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모여 직접 사과 수확을 하며 농민의 수고로움을 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지역 농업인과 오찬도 진행됐다.

오찬에 참석한 이명숙 여성농업인회장은 "올해는 가뭄이 심해 낙과가 많았다"며 "이상기온과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즐기면서 일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청정한 농산품 수확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수고로운 땀방울은 절대 자신을 져버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청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도 종교와 농촌의 만남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황경숙 108산사순례회 신도는 "이런 좋은 취지의 행사를 오늘에야 알게 됐다. 각 종교계가 화합해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종교문화축제가 다른 지역에도 개최돼 지역민과 함께 소통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괴산=이계섭 수습기자



가을 전등사서 낭만에 젖고, 문화에 취하고

10월 3~11일 삼랑성역사문화축제… '통찰' 주제로

흔히 고찰로 오르는 길에는 오욕의 세월을 그대로 맞이했을 고목들이 길 옆으로 들어서 있다. 그래서인지 항상 고찰로 가는 길은 낯설지가 않다. 언젠가 한 번은 와봤을 법한 기시감이 고찰로 가는 길에는 항상 존재한다.

강화 전등사도 마찬가지다. 전등사로 오르는 길에는 아름드리 고목들이 줄지어 서 있다. 가을 단풍으로 옷을 갈아 있는 고목들을 보며 마음을 '힐링' 하고 강화의 역사 ·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범우, 지용택, 최종수)는 오는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 간 강화도 전등사 일원에서 '제15회 삼랑성 문화축제' 를 개최한다.

'천년의 기다림, 새로운 시작– 2015 통찰' 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삼랑성 문화축제는 지난 10여 년간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인천 · 강화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올해 삼랑성 문화축제는 10월 2일 오전 10시 삼랑성 전등사의 자연, 문화, 역사화를 표현하는 '미술 실기대회와 글쓰기 대회' 로 시작한다.

이날 오후 7시부터는 방송인 전제향의 사회로 박상민, 김현정, 박학기, 유진박, 가비앤제이가 출연하는 '전등사 가을음악회' 가 열린다. 전등사 음악회는 가을산사 분위기와 관객 집중도에서 남달라 가수와 관객이 모두 만족하는 음악회 중 하나다.

10월 4일에는 다례재와 영산대재가 열린다. 다례재는 1600년 동안 전등사를 가꾸어 온 전등사 역대 조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로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오후 1시에는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대재' 가 봉행된다. 축제 조직위는 2012년부터 매년 인천 강화지역의 호국영령을 발굴하여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강화 출신 이순승 독립운동가의 위령대재가 진행된다. 이순승 독립운동가는 1939년 중국 추림현 극난파를 활동근거지로 정보수집을 전개하다 1942년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해 독립운동을 펼친 인물이다.

삼랑성 · 전등사 일원서 9일간 진행
올해 15회 맞아 인천 대표 축제로
미술 · 백일장 · 산사음악회 등 '다채'
역대 조사 추모하는 다례재 개최
인천 · 강화 독립운동가 영산대재도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 간 강화도 전등사 일원에서 '제15회 삼랑성 문화축제' 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영산대재의 모습. 축제 조직위는 2012년부터 매년 인천 · 강화 지역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10월 10일과 11일에는 지역문화 한마당과 남사당놀이가 진행된다. 인천 강화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준비한 '지역문화 한마당' 은 관악공연, 요들송, 밸리댄스, 전통무용, 민요 등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돼 있다.

축제 마지막 날 진행하는 '남사당놀이' 는 풍물, 버나, 살판, 줄타기 등 신명난 공연이 펼쳐지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통찰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 중견작가전' 을 비롯해 '문인화 전', '그림전시 원융전', '고기와 그림 전', '연꽃 사진전' 등 다양한 전시가 준비돼 있다. 특히, '현대미술 중견작가전' 은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었던 정족사고 특별전시관에서 전시하여 주변풍경과 작품전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한, 소방안전체험 · 화문석공예 · 한지공예 · 도자기물레 · 목공예 등 각종 체험행사와 먹거리 장터 · 지역 특산물 장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꾸며진다.

축제 조직위원장 범우 스님(전등사 주지)은 "삼랑성은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성으로 고려 대몽항쟁과 조선왕조실록, 병인양요, 의병전투 등 우리 역사와 함께 한 곳이다. 특산물이나 자연물이 아닌 역사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진행하는 축제다보니 매년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면서 "우리 역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어린이와 학생들은 배움과 체험을, 어른들은 추억을 쌓는 온 가족이 즐기는 축제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행 · 포교 소식

청소년 문화체험 "꿈과 희망을 펼쳐라"

삼광사, 10월 3~4일 문화캠프 '1박 2일' 개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한 문화체험의 장이 마련된다.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10월 3일~4일 '청소년 문화캠프 1박 2일' 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 · 고등생 청소년 2백여 명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 △희망진로체험 △문화공감 콘서트 △탑돌이 및 화합의 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청소년 토크콘서트 '공감스케치' 는 첫째 날인 3일 오후 2시~4시 삼광사 불교대학 제1강의실서 열린다. 불교방송 BBS 이명학 총괄국장이 사회를 맡아 무원 스님,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박세현 나눔신경정신과 박사를 비롯한 청소년 2백여 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은 패널로 함께한다.

삼광사는 "문화체험 콘텐츠를 통해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우 간 유대 강화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우곡선원, '마음동산 꾸미기' 참선 교육

10월 13일~11월 1일 매주 화 · 목 진행

선 수행의 일상화 ·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참선도량 해운대 우곡선원(선원장 장명화)이 초심자를 위한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우곡선원은 10월 13일~11월 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8시 '제76기 초심자를 위한 마음동산 꾸미기' 참선교육을 진행한다. 장명화 선원장과 법사단이 지도에 나선 이번 과정은 회향일인 11월 1일 특별행사로 만행정진이 예정돼 있다.

일정은 △선입문의 예(禮) △좌선과 호흡 △참선입문론 △사람의 참품세 △선체조 △날숨호흡의 정의 △마음열기 △실상관법 △우곡의 선 △선과 21세기 순서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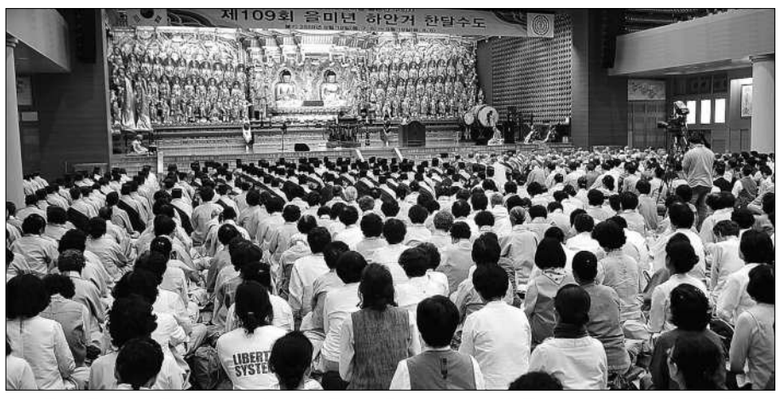
우곡선원은 "불교는 이적이나 구원,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며 인간불사를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고등종교"라며 "불자는 쉼 없는 바라밀을 행함으로써 온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자비희사로 실사구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며 많은 동참을 독려했다. (051)740-6288

하성미 기자

천태종, 을미년 재가불자 하안거 원만 회향

9월 18일 구인사서 해제 법회 열어

남 141명 · 여 745명 등 886명 이수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9월 18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도용 종정 스님을 비롯해 안거 동참자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9회 을미년 하안거 해제식을 봉행했다.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와 전국 말사서 진행된 재가불자 을미년 하안거가 원만 회향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9월 18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도용 종정 스님을 비롯해 안거 동참자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9회 을미년 하안거 해제식을 봉행했다.

이번 하안거는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단양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말사에서 진행됐다. 구인사 하안거 이수자는 남자 141명, 여자 745명 등 총 886명에 달했고, 각 지역 말사에서도 재가불자들이 천태종의 수행종풍인 주경야선을 실천했다.

이 자리에서 도용 종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닦을 수 없다. 계율이 청정해야 욕심이 떨어진다" 며 "도를 잘 닦으면 육체가 떠나도 공부한 것을 잊지 못한다. 이 생에서 마음을 잘 닦아 공부하는 데 걸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도 축사를 통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불자들의 수행도 풍년이 들었을 것이다. 한 달 동안 불조의 혜명을 잇기 위해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서 안거에 동참한 불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수행의 공덕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신심이 더욱 굳건해지고 지혜가 증장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해제식서 도용 종정 스님은 안거 동참자 대표로 조장묵(남, 서울 관문사) · 엄필한(여, 서울 관문사) · 송덕희(여, 도계 영락사) · 이계추(여, 부천 천화사) · 안영희(여, 서울 관문사) 불자에게 이수증을 수여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스님들에 올바른 인성교육법 '전수'

한마음과학원, 11월 5일~7일 한나무인성교육지도자과정 실시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인성교육법을 전수하는 장이 열린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불교적 가르침을 토대로 한 인성교육 장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은 11월 5일~7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서 '한나무인성교육 지도자과정–승려 연수' 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조계종단 스님을 대상으로 어린이 · 청소년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쉽고 재밌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2박 3일간 강의는 포교원인증 청소년 심성계발프로그램 〈꽃을 피우는 나무〉를 주교재로 △시작단계 '마음의 벽 허물기, 자생중생 다스리기' △1단계 '숲을 보는 이, 나무를 보는 이' △2단계 '마음의 힘과 소통' △3단계 '변화하는 나'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강사진은 김민선 창원 도계초 교사,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박성례 광남중 교사, 박옥남 경남한마음인성교육연구회 교사, 박종숙 호서대 중어중국학 교수, 황수경 한마음과학원 인문분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모집정원은 30명이며, 접수는 11월 2일 마감한다.

한편, 한나무인성교육프로그램은 2012년 교육부 공익법인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주최 학교부문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 2014년 포교원 청소년심성계발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바 있다. 문의 (031)470-3196, 3200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 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 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5. 10.3(토) 오후1시부터 ~ 10.4(일) 오후4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천사(강의실)
- 준 비 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장담그면서 훈훈한 마을공동체 만들어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세대 통합 이화장 프로그램 '눈길'

이화경로당 어르신 20여 명 대상
이화장 양성 교육부터 체험까지
전문성 갖춘 장만들기 교육 실시
10월 23일 '종로 장류 축제' 참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이화 경로당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장만들기 프로그램인 '이화장'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 어르신들은 마을공동체 기본교육, 이화장 양성교육, 체험활동 등을 통해 전통문화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종로구 이화경로당 어르신들이 장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당활성화사업 특화프로그램 장익는 이화마을 '이화장'은 우리 고유의 장문화를 알리고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6월 2일 종로구청 등과 협약식을 시작으로 이화 경로당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기본교육, 이화장 양성교육,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들은 10월 23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실시되는 '제1회 종로 장류축제' 참여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박재성 사회복지사는 "이화경로당과 함께 전통 장 문화 알림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화동 지역 토박이인 이화경로당 어르신들은 그동안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로&장금이 봉사단'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에 보다 전문성을 갖춘 장 담그기 교육을 통해 1~3세대 통합을 이루고자 기획되었다"며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이어 박 사회복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전통 장 문화 알림이 활동을 통한 관광객 대상 전통문화 홍보, 지역밀착형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열린 경로당 환경 조성 등 지역사회 내 재능기부활동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장담그기를 통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자긍심이 생겼다고 입을 모은다.

윤용석(71) 어르신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장만들기 기법을 배웠다. 전통방식만 배운 우리 세대하고는 다르게 간단한 장만들기 비법을 배우고 요리도 만들어 먹으며 매우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며 소감을 전한다.

이향순(78) 어르신 역시 장만들기를 통해 이웃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한다. "장만들기는 젊은 세대보다는 우리 세대들한테 더 익숙하다. 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장만들기를 통해 이웃과 나눌 기회가 생기니 이보다 더 보람되고 좋을 수 없다"며 나누는 기쁨을 이야기한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화장 교류활동으로 10월 23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하는 '제 1회 종로 장류 축제'에서 고추장 만들기 체험활동 부스를 운영해, 1~3세대 교류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화경로당 박복순(73) 어르신은 "10월달 행사에 참여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고구마 고추장 등 그동안 몰랐던 레시피도 알게 되었는데 이런 노하우를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 복지관에서 제안이 왔을 때는 노인들이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재미있고 보람을 느낀다. 특히, 우리의 장만들기 경험을 젊음의 거리인 마로니에 공원에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대가 크다"며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인근의 낙산성곽길, 이화벽화마을 등에 이화장 나눔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화장은 지역의 젊은이들에게는 경로당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고 대학로를 찾는 젊은이들에게는 전통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외이웃에게 전통장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떡만들기부터 선물나누기까지 추석맞이 복지관 행사 풍성

추석을 맞아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송편만들기에서부터 선물나누기까지 다양하게 펼쳐진 교계 복지관 추석행사를 모아봤다.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은 9월 13일 이주여성 모자가족 25명을 초청 추석맞이 생필품 전달과 '짜장면 데이'를 열었다.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은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여성과 2세 자녀들이 외롭고 쓸쓸한 한가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다문화 모자가족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의 외식을 통해 정서적으로 충만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짜장면 데이
청솔사회복지관-어울림 한마당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은 9월 19일 25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떡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이들은 용인에 위치한 웬떡마을을 방문 송편, 꿀떡, 웬떡 만들기 체험을 하고,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용인농촌테마파크를 방문해 농경문화전시관과 농기구체험도 실시했다.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장 보련 스님은 "도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23일 제3회 한가위맞이 대축제 '지역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지역주민 2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장터국밥 나누기 사랑의나눔바지회, 먹거리장터로 진행됐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윷놀이대회, 노래자랑대회, 떡메치기,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당 어르신과 광진구 내 지역주민 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9월 21일~25일 '한가위 송편만들기'를 실시했다. 광진구 내 48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송편만들기와 민속놀이 등을 통해 어르신과 지역주민들 간에 따스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송산노인종합복지관도 9월 22일 의정부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김상식)과 의정부백송라이온스클럽(회장 호영미)에서 준비한 순대국 350인분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라이온스클럽 김상식, 호영미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회원들이 직접 어르신들에게 순대국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정혜숙 기자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23일 제3회 한가위맞이 대축제 '지역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황송노인복지관 노인문화축제 개최

9월 23일 개막식…발표회 전시 등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은 9월 23일 2015년 노인문화축제 '꽃피는 청춘, 그 길을 걷다'의 개막식을 가졌다. 올해로 4회를 맞는 노인문화축제는 어르신 발표회 및 관내 부대행사 등으로 꾸며지며 한 달간 실시된다.

이번 노인문화축제는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다채로운 문화 나눔의 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꽃피는 청춘, 그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소품전시는 어르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 등 3가지 테마로 나뉘어 실시된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기금마련의 일환으로 열리는 다향제 및 황송나눔장터에서는 생필품, 의류, 먹거리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 (031)602-3653

정혜숙 기자

장애아티스트 11인의 '예술바라기' 전시

강남장애인복지관 10월 13일까지 인사동서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장애아티스트 11인의 '예술바라기' 전시를 10월 13일까지 인사동 쌈지길 계단갤러리에서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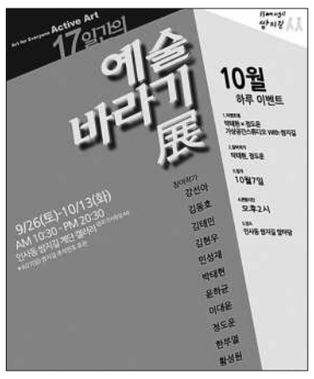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강남장애인복지관이 발굴한 아티스트 11인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부터 선 드로잉, 추상화, 수묵화, 사진 등 총 50여 점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뿐만 아니라 쌈지길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참여이벤트도 진행된다. 종이공예 아티스트 박태현과 뮤지션 타이포그래피 아티스트 정도운의 신나는 뮤지션 콜라보레이션을 10월 7일 오후 2시에 쌈지길 앞마당에서 가상공간스튜디오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관객이 참여하는 장애아티스트 응원 메시지함이 17일간 계단갤러리 내에서 진행된다. 아티스트에게 응원의 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아티스트 작품으로 제작된 아트상품을 제공한다.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전시는 장애아티스트의 독자적 예술세계를 한 장소에서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종합선물과 같다. 작품 속의 독특한 시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한편, 강남장애인복지관은 문화예술특화복지관으로써 시각예술분야의 장애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업작가로 등단하기 위한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한부열, 박태현 작가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그룹전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동대문디자인프라자 갤러리문에서 '봄을 기다리는 봄' 전, 남서울대학교 아트센터 갤러리이앙에서 '두 작가의 즐거움, 사람' 전을 연 바 있다. (02)560-8241



강남장애인복지관의 장애아티스트를 위한 '예술바라기전' 포스터

정혜숙 기자

장애인 인권 활동가 양성 아카데미

이천시장애인복지관 10월 6일까지 교육생 모집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희광)에서는 장애인권아카데미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권 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본과정으로 10월 12일~11월 10일 매주 월, 화요일 총 10회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 "교육과정은 '인권감수성 깨우치기'를 시작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내용을 회기별로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 9회 차에는 장애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교육하며 폭넓은 인권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또한 아카데미 이후 장애인 인권 활동가 양성 심화과정을 금년 중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심화과정까지 이수한 활동가를 조직해 이천시에서 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권아카데미는 이천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0월 6일까지이다. (031)637-6720

정혜숙 기자

제64차 찾아가는 포교종책연찬회

광주·전남 포교의 중심, 교구본사의 역할과 과제

광주·전남 지역 환경과 포교현황을 파악하고 포교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포교네트워크 구축과 지역현실에 근거한 포교방안 도출을 위해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합니다. 광주·전남지역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주제 광주·전남 포교의 중심, 교구본사의 역할과 과제
- 일시 2559(2015)년 10월 7일(수), 오후 2시
- 장소 광주 무각사(內 불교회관)
-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전법지원팀 02-2011-1892, think2me@naver.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

세부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세부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브리핑〉 호남 종교지형의 변화와 포교활성화를 위한 제언	고명석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
〈발제 1〉 광주·전남 지역 현황 및 포교활성화를 위한 교구본사의 역할 광주·전남지역 불교(포교)환경 및 역량 진단 교구본사 중심으로 지역포교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현진스님 (대흥사 포교국장)
〈발제 2〉 광주·전남 지역 포교과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지역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문화/힐링 콘텐츠 자원의 활용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불교의 역할	양행선 (광주불교연합회 사무국장)
〈종합토론〉 광주·전남 지역 현황 및 포교활성화를 위한 교구본사의 역할 광주·전남 지역 포교과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법일스님(신흥사 주지) 이재언(포교사단 광주지역단 사무국장) 조영훈(증심사 사무장)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제22교구본사 대흥사

고정불변한 '나'는 없다… '무상·연기적' 일 뿐

불교여성개발원 명사 초청 명상특강

오원칠 한산사 간화선 수행학교장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불자들은 부처님과 같은 해탈에 이르기 위해 2600여 년 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수행법을 변화 · 발전 시켜왔다. 이론적 방법과 방식에는 수행법마다 이견이 있지만 내면의 성찰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직시하려는 노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혜봉 오원칠 선생은 9월 21일 서울 견지동 불교여성개발원 자비실서 '깨달음에 이르는 여러 수행법, 수행 관련 즉문즉설' 주제로 강연했다. 혜봉 선생은 "좋은 가르침을 받아도 수행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단과 처방까지 받아놓고 약을 타 먹지 않는 격"이라며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오원칠 원장은 … 한국, 미얀마, 티베트의 여러 스승으로부터 수행법을 익혀 1994년부터 정토회 문경수련원서 '나눔의 장'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한산사 간화선 수행학교장, (사)밝은세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등 명상교재 다수를 집필했다.

수행법의 전파와 변천

부처님께서는 삶의 길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서 사는 삶, 두 번째는 깨어있지 않은 어두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길을 다시 또 두 갈래로 나누게 됩니다. 무지에 휘말린 어둠 속에서도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는 삶이 있는가 하면 악행만 일삼으며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삶에도 대표적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말하는 소승의 길, 그리고 두 번째는 대승의 길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에는 소승과 대승의 갈래가 없었지만 부처님 입멸 후에 종파가 갈라지게 됩니다. 원칙과 계율 수행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룹을 '상좌부(上座部)'라 불렀고 상좌부 보다 조금 자유스러운 해석과 관점을 가진 그룹이 나타나는데 이들을 '대중부(大衆部)'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상좌부는 소승 유파의 길을 가게 되고, 대중부는 '대승'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계적으로 소승 유파는 사라진 상태로 남아있지 않지만 상좌부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에 남아 수행의 법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소승 유파는 인도에서 발생해 인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승에 흡수당해 인도에서 사라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중부는 대승으로 발전해 지금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부근의 작은 공화국, 티베트, 몽골,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 등으로 대승의 수행법과 가르침이 전파됐습니다.

소승과 대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승의 경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번뇌와 고통해소에 몰두해 아라한을 성취하는 반면, 대승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함께 깨달음에 닿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승과 대승 수행법 보다 발전한 수행법이 나오는데 그것을 '마시띠' 전통이라 하며 인도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마시띠 전통은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티베트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중국과 한국에 들어온 마시띠 전통은 '선(禪)' 수행이 되고 선 수행의 종류는 조사선(祖師禪), 묵조선(默照禪), 간화선(看話禪) 세 가지가 있습니다. 티베트로 들어간 마시띠 수행법은 만트라 수행법, 족쟁 수행법이 됩니다. 마시띠 수행은 나중에 금강승(金剛乘) 수행법이 되는 등 수행법은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연기'는 상좌부 수행의 핵심

상좌부와 소승 수행법에서는 관찰의 대상을 '인식의 실체'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때리게 되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데 그 화남과 분노 자체를 가만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상상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닌 실제 하는 감각에 가만히 기대어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승 수행법은 방식은 비슷하지만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상좌부와 소승에서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대승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을 관찰합니다. 앞서 들었던 예시와 같이 누군가 여러분을 때리게 되면 분노와 화난 감정이 몰려드는데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감정을 일으키고 인식하는 마음을 관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물을 눈으로 보면 마음에 비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마음에 비친 사물은 실제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게 되는데 그 거울 안의 내 모습은 실제 하는 모습일까요?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은 존재하지만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로 존재한다고 해서 그림자 자체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존재하진 않지만 그림자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승에서는 이것을 가유(假有)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가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가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또한 이런 작용을 '유식(唯識)'이라 하는데, 일체가 다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식한 것은 마음이 인식한 것이고 마음이 인식하기 전에는 대상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말과 언어로써 정의할 수 없는데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無有定法)' 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적으로 생겨납니다. 테이블을 손으로 탁 치면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생겨나는 조건에는 테이블이 있어야 하고 손이 있어야 하며 손을 움직이게 하는 힘과 소리가 전달되는 매질인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소리 하나만 놓고 봐도 많은 조건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현상을 부처님께서는 '연기(緣起)'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테이블을 손으로 쳐서 생긴 소리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일어난 현상이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진실을 보는 것이 상좌부 위파사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깨달음의 길 대승 · 소승으로 갈려
소승은 '감정', 대승은 '마음' 관찰
마음서 비롯된 사물 '가유'라 칭해
일체가 마음일 뿐 모두 가상 존재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은 변화 때문에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고통을 받는 대상이 나 자신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행을 통해 자각하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독립적인 고정불변의 자아로서 내가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은 항상 무상하며 조건적이며 연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면 마음속에 자신을 움켜쥐고 있는 인식의 틀이 완전히 부서져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완전하게 벽이 깨지지 않아 열반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수행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수행을 했던 스승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이며, 둘째는 마음에 새겨 이해하는 과정, 셋째는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반복해서 익혀야 합니다. 여기서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단받고 처방전까지 받았지만 약을 먹지 않아 치료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행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받았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허상'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이 갈증이 나서 마시는 것을 '물'로 인식하지만 천상에서는 그 물을 '감로수(甘露水)'로 인식을 하고 지옥의 중생은 '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건에 따라서 인식하는 대상이 달라지는데 그 조건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 대승 위파사나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원효 스님은 단순히 물만 마시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구역질 때문에 깨닫게 되셨습니다. 밤에 마셨던 물은 너무 시원했지만 아침에 그 물이 담겼던 그릇이 해골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구역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효 스님은 마음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구역질을 경험하지만 원효 스님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차이는 마음이 만든다는 것을 대승 위파사나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픈 감정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인식해서 작용했는지를 자각해 버리면 열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실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생각이고 이미지라는 것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꿈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네

〈금강경〉 32품의 내용입니다. 위에서 계속 언급한 대승 위파사나의 핵심을 잘 짚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마음 작용은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와 같은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중국의 승찬 스님도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승찬 스님은 '한마음도 일으키지 마라. 지도무난(至道無難)이요 유혐간택(唯嫌東擇)이라. 단막증애(但莫增愛)하면 통영면백(洞然明白)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만 일으키지 않고 그것을 끊어 없애버리면 누구든 부처님 마음자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설명한 상좌부 수행법과 대승 수행법의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것이 '마시띠' 수행법입니다. 마시띠 수행법은 선 수행을 연계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 수행은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다',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는 것이 선의 핵심이고 출발입니다. 이것을 원효 스님은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본래부터 각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각(本覺)'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깨달은 존재이지만 그 각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 수행의 핵심은 본래부터 깨달은 존재라는 것을 온전하게 알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에서 위대한 성취자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수행법이 마시띠 수행법이고 이것이 티베트에 와서는 족쟁 수행과 만트라 수행법이 됩니다. 한국의 선 수행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행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상좌부 수행과 대승 수행이 기본으로 닦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심 수행이 갖춰져야 합니다. 자비심 수행을 우리가 익히지 않으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성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깨닫기는 것은 쉽지만 성취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할 예비 수행이 있는데, 첫째는 상좌부 위파사나 수행과 대승 위파사나 수행이고, 둘째는 자비심을 깊게 닦을 수 있는 보리심 수행입니다.

보리심 수행은 흔히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사물의 양식으로 닦는 수행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육바라밀로 닦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자비심 훈련은 고통을 자신에게 다 가지고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가지고 올 때 '일체가 모두 환영이다'는 마음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 있고 우주 법계가 한량없듯이 중생도 한량없으며, 중생이 한량없는 것은 번뇌가 한량없기 때문이고, 번뇌가 한량없으므로 고통이 한량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을 다 멈출 때까지 모든 번뇌를 끊어 없애겠다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마주할 때마다 번뇌로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명상체험하면서 상대의 모든 번뇌도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명상수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대출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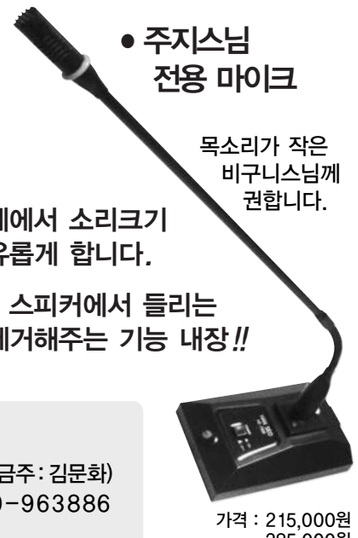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신라는 실크로드 시작, 동서양 무역의 중심"

세계 석학 한 목소리… '실크로드 고대 수도' 국제학술대회서


실크로드에 있는 고대 도시의 활발한 교역과 독창적인 문화를 조명하고 실크로드가 옛 도시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18일 이틀간 일정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렸다. 세계수도문화연구재단과 경주대학교 실크로드연구원이 '실크로드와 고대 수도'를 주제로 마련했다.

고대 실크로드(Silk Road)가 중국 서안(西安)에서 시작해 로마에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신라에서 로마를 잇는 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경주에서 8~9세기 신라 귀족들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유행하던 장식품, 보석류, 공예품 등을 사용했다는 내용과 함께 경주에서 신라에 이르는 1만2000㎞의 길을 통한 교역품 수송기간이 육로로 6~8개월이면 충분했다는 내용이다. 신라의 귀족들은 반년 남짓한 시간에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중국 등에서 유행하는 문화와 각종 상품들을 신라 귀족들은 향유했다.

세계수도문화연구재단(이사장 김일윤)과 경주대학교 실크로드연구원이 9월 18일~19일 개최한 '실크로드의 고대 수도' 주제 국제학술대회가 막을 내렸다.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폴란드 브로츨라프스키대학 로마학 권위학자인 고시비트 말리노포스키 교수, 카자흐스탄 이식 박물관 굴미라 무크타로파 관장, 일본 나라 현립 가시하라 고고학연구소 부속박물관 기노시타 와타루 부관장, 그리고 권영필 상지대 교수 등 국내외 학계의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이순자 경주대학교 총장, 전 국회의원(헌정회원) 30여 명 등 5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학회에선 많은 학자들이 실크로드가 신라 시작해 중국 서안(西安)과 콘스탄티노플(터키 이스탄불의 옛 이름)이나 로마까지 이어진 길이란 주장을 했다.

굴미라 무크타로파 카자흐스탄 이식 박물관 관장은 "카자흐스탄 고분에서 나온 황금인간과 관련된 황금제 부장품들이 신라의 적석목곽분에서 나온 유물들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신라인들이 카자흐스탄까지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기노시타 와타루 일본 나라 현립 가시하라 고고학연구소 부속박물관 부관장은 "1963년도 가시하라시 니이자와센즈카 고분 126호에서 출토된 옥류, 청동거울 등 유물 대부분이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유사하다"며 "실크로드 문화가 신라를 거쳐 일본까지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박물관장인 이희수 문화인류학과 교수는는실크로드 성격과 변천사를 설명하고 경주가 실크로드 동단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실크로드는 오래전부터 고대의 첨단제품 고부가가치상품인 비단을 비롯한 수많은 물품이 오고간 동양과 서양의 무역로"라며 "실크로드 연구를 통해 신라가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 도시였음을 세계 학계에 각인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일윤 세계수도문화연구재단 이사장은 "이번 해외 학자들의 주장은 '경주가 실크로드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국내의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 학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회장은 "이를 증명하듯 실크로드에 걸쳐 있는 중국 둔황, 우즈베키스탄 사막 한 가운데 위치한 사마르칸트 등지에서 신라인이 표현된 그림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으며 경주의 유적지에서도 중국 문화권에서 볼 수 없는 로마와 아랍 문화권의 유물이 수차례 출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1년 창립한 세계수도문화연구재단은 경주, 로마, 이스탄불, 시안, 교토 등 세계 5개의 천년고도를 연구하는 동시에 서울, 런던, 워싱턴 등 현대의 G20 국가의 수도를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계획을 구성하고 있다. 세계수도문화연구재단과 경주대 실크로드연구원은 지난 2013년에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수도문화연구회 국제심포지엄'에서 동로마제국의 오랜 수도로서 실크로드의 종착지였던 이스탄불과 실크로드의 출발지였던 경주간의 오랜 교역관계를 밝히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이 9월 22일 익산 미륵사지에서 개최됐다.

문화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주민, 관람객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백제 천년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등재 선포식은 상징물 제막, 세계유산 인증서 전달, 등재 선포,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전북도립국악원, KBS 어린이 합창단 등의 축하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로부터 받은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를 공주 · 부여 · 익산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한편,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지난 7월 독일 빈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12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노덕현 기자

충남·세종시 불교문화 살피는 세미나

충남과 세종의 불교문화를 살펴보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충남세종향토사연구연합회(회장 최석원)는 9월 3일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향토사대회를 개최했다.

'충남세종불교문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 제1부에서는 세종시의 옛 지명인 연기군 지역의 '연기불비상(佛碑像)의 제문제'를 주제로 정은우 동아대 교수가 '연기 불비상의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 발표 했다. 이어 소현숙 원광대 교수가 '연기 불비상과 동아시아 불교조각', 이훈 공주대 교수가 '연기 불비상과 지역 문화콘텐츠'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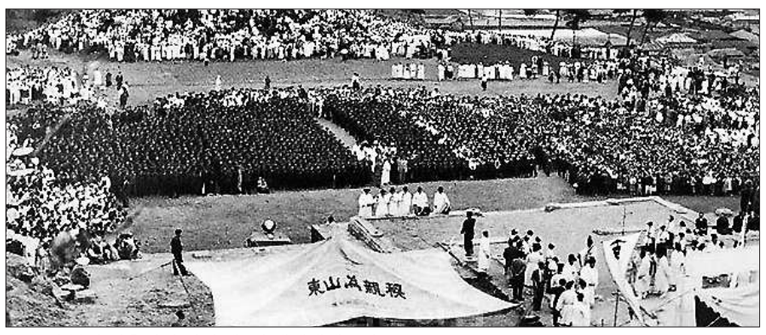
제2부에서는 보령지방 사찰의 비석과 서천 천방사 승려 변란 사건, 계룡산 동학사와 동학3사 연구, 세종지역 절터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축사에서 "향토사 대회가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높이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잊을 수 있는 우리의 문화의식을 일깨우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제61회 백제문화제, 정통성 강화에 나서다

부소산 내 삼충사, 궁녀사를 중심으로 제례 · 분향 상설화


1955년 부여 삼충사서 열린 제1회 백제대제 모습

제61회 백제문화제가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 '이라는 주제와' 백제 다시 태어나다 '라는 부제로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 부여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백제문화제 추진위는 삼충사에서 삼충제전 사진전, 삼충신 상설 제향공간 조성, 궁녀사에서 헌화 및 분향체험 등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들은 백제 말기 나라를 위해 위국헌신(爲國獻身)한 조상들의 충절을 기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궁녀복식을 입은 안내원과 백제군사 수문장을 배치하고, 옛 토성을 따라 백제기를 설치했다.

아울러, 백제문화제 기간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은 정림사지 주무대와 전통무대, 부소산, 석탑로 등 행사장 일원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아라한 제외한 모든 범부에게 자아있다"

임승택 경북대 교수, 불교학연구회 가을발표회서 주장

윤회하는 모든 중생에게는 자아가 있으며 무아를 깨달은 아라한에게는 업을 받을 새로운 탄생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회의 주체를 두고 일어난 논쟁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임승택 경북대 교수는 불교학연구회가 9월 19일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227호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무아 윤회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자아가 없다면 누가 그 업을 받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라한을 제외한 모든 범부에게는 자아가 존재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아라한은 자아의 해체를 실현한 이로 무아의 경지에 머물고 있다"며 "윤회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빠져있음을 의미할 뿐으로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일 수 없다. 윤회는 '허공에 핀 꽃'과 같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무아윤회'를 주장하는 학자들에게도 반론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무아윤회를 표방하는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논리가 연기에 근거해 있다고 믿지만, 그것은 연기가 아닌 상호의존으로 이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아비달마에서 부각된 상호의존은 고의 발생과 소멸과정보다 사물의 생성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연기를 자연과학적 생성 변화 논리로 오인하면 안된다. 연기과정이 물리법칙과 동일하다면 의지적 노력이나 실천수행 여부와는 상관없는 생성변화가 지속되고 늙음과 죽음으로 귀결되는 순환구조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요원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논평을 맡은 이필원 교수는 임 교수의 무아와 연기에 대한 견해에 공감했다. "무아와 연기는 실천적 수행론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며 "이 교수는 이어 이것을 철학적 사유의 결과로 보는 것은 붓다의 무아와 연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티벳대장경역경원, '불교경전 번역' 세미나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10월 2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2015 추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불교경전 번역의 제 문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국 불교 경전의 역경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과정과 성과, 문제점과 보완점을 논의한다.

세미나는 △정성준 티벳대장경역경원 연구원의 '티벳대장경의 현교와 밀교문헌 비교', △이방배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의 '티벳대장경 번역어의 선정에 관한 문제',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스마트미디어시대 대장경 전산화의 현황과 전망',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근현대 역경의 단면-백용성의 금강경 번역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된다.

티벳대장경역경원 진옥 스님은 "한국불교의 역경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티벳대장경 번역 연구가 여러 대학의 연구소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티벳경전을 포함한 불교경전의 번역과 디지털화에 대한 경험과 성과를 경청하고 토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창의인성 프로그램' 개설

동국대(총장 보광)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창조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동국대 C · M · L연구소(소장 김애주)는 10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깨어있는 대학(人)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마다 총 15회에 걸쳐 진행되며, 창의적 영감을 꿈꾸는 대학(원)생들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집중적인 자아성찰로 참된 자아를 만나는 무의식 체험이 있다.

노덕현 기자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사찰과 지역의 희망공동체로 가꿔가요”

전북 대표 불교축제 선운문화제, 9월 19일 성료

도솔암 미륵대재, 보은염 이운식
백미 산사음악회… 2천명 매료
역대 최다인 2만여 명 찾아



선운문화제가 9월 19일 일대에서 열렸다. 사진은 석씨원류 경판 이운식 장면

붉은 꽃무릇이 온 산하를 붉게 물들인 가운데 전북지역 최대 불교문화축제인 선운문화제가 9월 19일 고창 선운사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로 큰 충격을 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새 희망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희망’을 주제로 마련됐다. 대회에는 역대 최다 관객인 2만여 명이 찾았다.

도솔암 미륵대재를 시작으로 보은염 이운식, 석씨원류 경판 이운식, 꽃 무릇 시화전, 석상암 미술관 개관식, 산사음악회 등이 열렸다.

특히 우리나라 3대 지장도량으로 알려진 선운사 산내암자인 도솔암 칠송대에서는 12일 보물 1200호 도솔암 마애불 앞에서 미륵대재 입재식이 열렸다. 도솔암은 2018년 6월까지 1천 일간 33재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운사 경내에서는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역 및 중국에 전파된 사실을 기술한 석씨원류 경판 이운식도 마련됐다. 석씨원류 경판 이운식에서는 각종 만장을 앞세운 군산여고, 고창고 파라미타 학생들과 불자들이 참여했다. 대중들은 108개의 경판을 머리에 이고 선운사 성보박물관, 일주문, 천왕문을 거쳐 대웅보전에 경판을 봉안했다.

이운식에 동참한 박정자(인천시) 씨는 “그동안 신행생활을 이어왔지만 오늘과 같이 환희심 나는 경우는 없었다”며 “선운사에서의 경판이운식 동참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운사 보은염 이운식도 진행됐다. 선운사 보은염 이운식은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마을 주민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알려줘 생계를 잇게 한데서 시작됐다. 마을 주민들이 검단선사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1,500년간 봄과 가을에 선운사에 소금을 공양하는 행사다. 천일염 대신 전통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고창 사등마을 주민들은 올해 생산한 소금을 선운사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땅거미가 드리우는 저녁 무렵에는 선운사 앞 마당 특설무대에서 축제 백미인 산사음악회가 열려 가을밤 선운사를 찾은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산사음악회는 김이곤 음악감독의 사회로 가수 조항조를 비롯해 김보경, 지미브라더스가 출연해 대중들과 호흡했다. 또 성악가 김성록과 로멘틱 앙상블도 나서 주옥같은 멜로디의 클래식 음악을 선보였다.

이밖에 선운사 일대에서는 꽃 무릇 시화전이 열려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선운사 신도회는 고창지역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나눔장터도 개최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은 “모든 중생이 함께 더불어 사는 희망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며 “선운문화제에 함께해준 모든 대중들이 하나의 희망을 가꾸고 모든 생명이 상생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 석상암은 이번 축제를 맞아 석상미술관을 개관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석상미술관은 송담 스님의 휘호를 비롯해 석정스님 등 역대 조사스님들의 휘호가 전시돼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흥사 초의문화제, 10월 16~17일 열어

한국차인들의 큰 잔치인 초의문화제가 오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초의문화제는 조선 후기 선과 차의 세계가 하나라는 다선일여 사상을 주창하며 쇠퇴해져 가던 우리 차의 부흥을 이끌었던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을 선양하고 계승 ·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행사 첫날은 대흥사 경내에서 지역 내 초 · 중학생들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통 차 문화 체험’, ‘떡 차 만들기 체험 학습’, ‘다산과 초의가 함께한 차유적지 순례’ 등의 행사가 열린다. 이밖에 ‘다기 · 다구 및 해남특산물 전시 · 판매장’ 등도 운영된다.

두 번째 날에는 일지암에서 ‘초의선사에게 올리는 헌다례’를 시작으로 떡차만들기 체험과 행다 시연 등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기념식에서는 ‘어린이 행다시연’과 먼저 가신 차인 108인을 추모하는 ‘선고다인 헌다례’가 열리며, ‘24회 초의상’과 ‘차학술 논문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된다.

한편, 제24회 초의상 수상자는 김기원 경남과기대 명예교수(한국차학회 고문)가 선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생명나눔, 자선음악회 개최



소아암환우를 돕기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사)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정기적인 음악회를 9월 20일 무등산 원효사 입구 ‘절로가는 길’에서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우리 주위에 난치병을 앓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땅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새 희망과 새 삶을 주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진행됐다. 행사는 홍보가수 주권기, 유미라, 서지연 씨 등이 참여한 공연과 치료기금 마련을 위한 음식판매로 구성됐다. 판매대금은 전액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국가 수호 스님들의 모습 되새기자”

금산사, ‘조선시대 금산사 역사와 고승’ 세미나 열어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원장 정인)과 세계종교평화협의회(회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9월 18일 금산사 보제루에서 ‘조선시대 금산사의 역사와 고승’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승원스님의 사회로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 세계종교평화협의회장 성우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장 정인 스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뇌묵 처영과 금산사’를 주제로 한 제1부 행사에서는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뇌묵 처영의 생애와 불교사적 위상’,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가 ‘뇌묵 처영의 의승활동과 금산사’를 발표하고 한상길 동국대 교수와 김방룡 충남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조선시대 금산사의 역사와 사격’을 주제로 열린 제2부에는 황인규 동국대 교수가 ‘조선 중 · 후기 금산사의 사격 변화와 그 의미’, 최태선 중앙승가대 교수가 ‘조선 중기 금산사의 중창과 가람배치 변화’, 오경후 동국대 교수가 ‘조선 중 · 후기 금산사와 선교겸수 경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탁효정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경미 역사건축기술연구원,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이 토론에 참가했다.

성우 스님은 “조선시대 국가수호를 위해 몸바쳤던 과거 스님들의 자랑스러운 삶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회갑여행 대신 군장병 위문한 불자들 ‘화제’

전주 금선암 신도, 9월 20일 호국 충경사 위문법회



회갑을 맞은 불자들이 회갑잔치를 뒤로하고 군 불자들을 위해 위문법회를 열어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 회갑을 맞은 안준아(전주 금선암 신도회 총무) 불자 등 4명의 불자들은 9월 20일 회갑 잔치를 생략한 비용으로 육군 35사단 호국 충경사 법당을 방문해 위문 법회를 봉행했다.

이들 불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병들이 잠시나마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500인분의 떡국을 장병들에게 대접했다.

금선암 신도회(회장 김영돈)도 이에 호응해 장병들을 위해 쵸코파이 100상자를 전달했다. 또 국악인 안선희씨를 초청해 간단한 위문공연도 펼쳤다.

이날 법회에서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며 “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따르더라도 매 주말 마다 법당을 찾아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군 복무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추고 부모님께 돌아가는 것이 효도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며 “오늘 금선암 불자들이 이 같은 법회를 여는 것도 부모님의 마음을 대신한 것으로 알고 즐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 금선암과 금선암 신도회는 매년 회갑을 맞은 불자들 중심으로 군 법당을 찾아 위문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4대종단 봉사자, 300가구에 송편 전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불교 · 천주교 · 개신교 · 원불교의 4대종단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 음식을 준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고창 선운사 신도들을 비롯한 4대 종단 봉사자 60여 명은 9월 22일 고창여성회관 앞 마당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명절음식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경우 스님을 비롯해 고창중앙교회 전종찬목사, 원불교 양인경 교감, 고창성단 이성우 신부 등 4대 종단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했다. 선운사에서는 선재 자원봉사단 2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준비한 명절음식은 고창군 관내 300가구에 햅쌀과 송편 등과 함께 전달됐다. 경우 스님은 “앞으로 선운사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자비나눔행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주사, 9월 숲속 힐링법회 봉행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는 9월 20일 ‘9월 숲속 힐링법회’를 봉행했다. 200여 힐링법회 참가자들은 법주사 대웅보전에서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의 법문을 들은 뒤 속리산 자락의 숲길을 걷는 명상시간을 가졌다. 이날 법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특히 힐링호흡을 통해 치유했다.

현조 스님은 법문을 통해 “흔적조차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공연히 망상에 젖지 말고 오직 지금, 현실에 충실히 사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현조 스님은 이어 “ ‘성품’은 타고난 본성에 가까운 것이지만 ‘품성’은 후천적으로 훈련에 의해 형성되는 만큼 수행과 정진, 보시행을 실천해 좋은 품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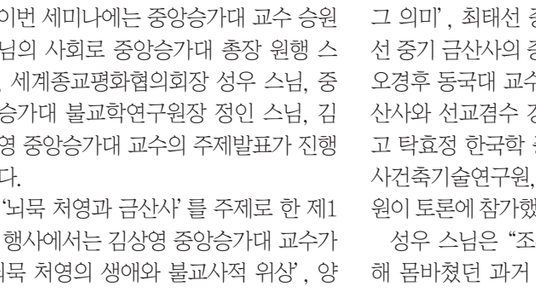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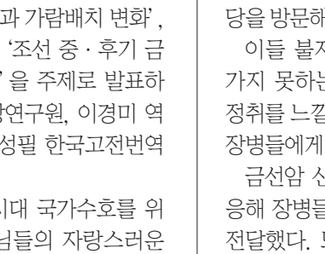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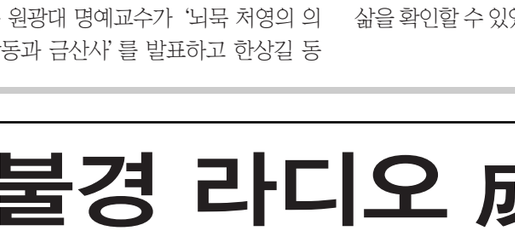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해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 양초 세트 · 밀납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불교문화 포교로 민족 자긍심 고취를

부산 장산 원각사 9월 19일 문화예술제 개최

불무도, 녹차 음식 시연 등 400여 지역 주민 큰 호응


부산 장산 원각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문화 예술제를 개최했다. 불무도 총본산인 원각사는 불무도 시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 장산 원각사(주지 안도)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원각사는 9월 19일 경내에서 '문화예술제'를 열었다.

이번 문화예술제는 다도 시연, 사찰 음식 시연, 불무도 시연 등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불교문화를 향유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이어 시낭송 대회, 사경 전시 및 불화체험, 천연염색 체험 등 다양한 부스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주지 안도 스님,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원오사 정관 스님, 하태경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안도 스님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와 민족의 자긍심인 주체의식이 많이 상실되어 안타깝다"며 "우리의 얼과 전통문화를 부흥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주체의식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각사는 금강승 불무도의 총본원으로 이번에 진행된 불무도 시연은 큰 관심을 끌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기공법 및 어려운 고난이도 동작까지 3차례에 나눠 진행된 불무도 시연에서는 정중동을 보여주는 불가의 전통무예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다. 금강승 불무도는 25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불가 전통 수행법으로 본 명칭은 불교 금강영관이다. 청호당 양익 스님이 일제 강점기에 끊긴 맥을 1950년대에 발굴해 체계화했다. 주지 안도 스님은 양익 스님의 제자로 현재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으로 불무도 전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무도 시연을 처음 본 이미나(45)씨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전통 불교 무술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다"며 "원각사의 불무도가 불교문화 콘텐츠로 개발되면 중국의 소림사보다 더 훌륭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진남(10)학생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지다"며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을 정도"라며 소감을 말했다.

또한 원각사는 장산에 녹차 밭을 직접 일궈 녹차제다 체험 활동을 펼치며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원각사에서 재배한 녹차를 재료로 사찰 음식 시연을 펼치며 대중에게 공양을 대접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선보인 음식은 총 8가지로 녹차 연근찜, 애호박 녹차전병, 녹차 무말랭이 무침, 고구마 녹차 샐러드, 녹차 장아찌 등 다양한 녹차 음식이 마련됐다. 특히 녹차 음식은 한번 녹차를 우려 마신 후 남은 차를 모아 만든 것으로 찻잎 활용도를 높여 건강 힐링 음식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희(50)씨는 "남은 찻잎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집에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원각사는 금강승학당을 통해 불무도 수련, 다도, 불화, 사경, 참선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원각사 녹차체험'을 진행한다. 또한 원각사는 금강승불무도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해마다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불무도를 전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포교를 위해 국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템플 스테이도 진행한다. 하성미 기자

정수사, 창건 60주년 개산대재 법요식

9월 22일 사부대중 500여 명 참석… 정수사지 봉정도

전쟁 피난민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안식처 부산 용두산 정수사(주지 일준)가 창건 60주년을 맞아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정수사는 과거 60년을 초석으로 삼아 더욱 발전하고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정수사는 9월 22일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부산시중구청장 김은숙 및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0주년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은 정수사 편액 제막식, 정수사지 봉정, 봉행사와 축사 및 난타공연, 축가, 축시 등으로 진행됐다.

주지 일준 스님은 "1954년 용두산 일대의 큰 화재로 슬픔과 애환에 빠진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해왔다. 또한 365일 쉬지 않고 펼쳐지고 있는 무료급식소 기쁨의 집을 비롯해 정수사는 부산의 중심지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오늘 행사는 개산 100주년을 맞이할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용두산 정수사는 9월 22일 '60주년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주지 일준 스님이 정수사지를 봉정하는 모습

"함께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 나눠요"

부산생명나눔 10월 10일 걷기대회 예정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제7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걷기대회를 10월 10일 오후 2시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연다.

올해 7회를 맞은 생명나눔걷기 대회는 환우와 가족을 초대해 격려하고 걷기 캠페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된다. 환우와 가족, 자원봉사자들과 기업봉사 단체 등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번 대회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부대행사로 무료건강검진, 무료차시음, 장기기증·자살예방안내부스,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토피어리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풍선아트 등이 진행된다. 체험부스와 현장접수는 당일 오전 11시30분부터 이용가능하다. (051)853-0429 하성미 기자

범어사, 스님들 소장품 공개 전시… 글 공예 미술품 등

9월 21일~25일, 부산 시청 전시실서

광복 70년과 부산 범어사 개산 1337년을 기념해 범어사 스님들이 소장하고 있는 1910년대의 사진, 글, 공예품, 미술품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9월 21일~25일 부산 시청 전시실서 열린 이번 전시는 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스님들의 소장 작품 130여점과 인간문화재 금어 제작자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개막식에는 주지 수불 스님, 부주지 범산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서병수 부산 시장,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및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평소 보기 힘든 금어연을 관람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금어연은 부처님과 경전을 이운할 때 쓰는 가마로 전국 최고의 명인 21명이 참여해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것이다. 아울러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용학 스님의 연기문, 향운암 명천 스님의 기마 승천도, 청암사 유리원 설민 스님의 수월백의관음도, 석공 스님의 범어사 전경 사진도 감상 할 수 있었다.

개막식에서 주지 수불 스님은 "범어사는 오랜 역사에 걸맞게 풍부한 불교사상과 문화유산을 간직해오고 있다"며 "범어사의 전통문화 자산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의 자랑이요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범어사의 문화와 역사에 공감하고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범어사는 '제1회 범어사배 친선축구대회'를 10월 4일~18일까지 매주 일요일 마다 개최한다. 건전한 운동을 통해 불교계의 친선도모와 불법홍포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축구 대회에는 통도사, 범어사와 경주석림회, 축구사랑, 홍법사, 한마음선원, 등 교구본사팀, 스님팀, 사찰팀과 초청팀으로 나눠져 총 24개 팀이 출전한다. 축구경기는 10월4일 오후 1시 양산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6강 결정전, 10월11일 준준결승전, 10월18일에는 준결승전과 결승전 통해 승리팀을 결정한다. 하성미 기자


범어사는 9월 21일~25일 범어사 스님들이 소장하고 있는 1910년대의 사진, 글, 공예품, 미술품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이번 전시는 광복 70년과 범어사 개산 1337년을 기념해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개최됐다.

장사상륙작전 순국선열 호국영령 위령재

영덕불교사암연합회, 9월 14일 기념탑서

영덕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담)와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9월 14일 장사상륙작전 기념탑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사암연합회 회장 현담 스님을 비롯해 이희진 영덕군수, 이강석 영덕군의회의장, 류병주 참전유격동지회장, 김종수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박창표 경주보훈지청장, 이봉식 122연대장외 지역기관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는 순국선열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재를 봉행했다. 이어 50사단 군악대 주악에 맞춰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에 이어 50사단 부대 장병들의 조총이 울려퍼지며 호국영령들을 위로했다. 또한 류병수 유격동지회장은 강구중학교 박세윤·축산중학교 조은아 학생에게 장사상륙참전 유격동지회 장학 증서를 수여했다.

기념공연으로는 영덕군여성합창단 상임지휘자 정하해 씨가 학도병을 추모하는 '청춘의 불꽃아! 장사 학도병'을 독창했고, 영덕군여성합창단과 지역아동센터 연합으로 구성된 조이플 추모곡 합창도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6.25 참전 태국군 위령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제 1회 태국군 한국전쟁참전기념 영산대재를 태국 람인트라 참전용사비에서 개최합니다.

세계의 중요무형 유산인 영산대재를 태국에서 개최하는 뜻 깊은 자리에 일반 참관불자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동참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봉원사 02)392-3007~8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사기간 2015년 10월 15일 ~ 20일
영산대재 봉행 2015년 10월 16일
장 소 태국 방콕 람인트라 (참전용사촌)
문 의 천년고찰 봉원사 02)392-3007~8 (보존회장 선암스님)
주 최 (사)영산재보존회 / 봉원사

※ 영산대재 봉행 후 파타야 / 아유타야 성지순례 진행합니다.





참불자의 출발점은 佛恩에 감사하는 것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⑲ 불법을 전하려는 부처님과 관음보살



그림 · 최주현

골칫덩이 손오공 물리치신 부처님, 천궁에서 온갖 대접 받으시고 서천으로 돌아오신다.

사나운 원숭이를 만나서 그러셨을까?

음란하고 혼란하고 분란 많고 환란 많은 남섬부주 그 인간들에 대한 큰 자비의 마음을 내신다.

'내게 있는 진리의 창고 그 삼장의 법문을 그 땅에 전하리라. 그리하여 그 땅의 신앙심 깊은 이가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그 귀한 법을 받아 지니고 돌아가게 하리라. 누가 가서 이러한 나의 뜻을 남섬부주에 전하겠느냐?'

자비심의 화신 관세음보살 응답하신다.

'제가 가오리다 저한테 맡기소서 그 땅 가서 훌륭한 이 찾아, 경 구하러 오는 일 부촉하고 오겠나이다.'

부처님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다.

'자비심 넘치고 지혜 충만한 그대라면 나의 뜻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오. 그대의 신통력이면 단숨에 갈 길이지만 오는 이에게 행로도 알려주고 또 중간에 도움을 줄 존재들을 안배하면서 낮게 날아 천천히 살피면서 가시오.'

관세음보살 부처님 분부 받고 제자인 혜안행자와 함께 동녘 땅으로 출발하신다. 그 가는 여정 어찌 단순히 가기 위한 것이랴. 요괴 물귀신 하나 만나 이름을 사오정(沙悟淨)이라 지어주시고 다시 요괴 돼지 귀신 하나 만나 이름 저오능(猪悟能)이라 지어주고 벌 받는 용 하나 만나 그 벌 풀어주고 이 모두에게 조신하게 기다리다가 앞으로 경 구하러 서천 가는 이 도와주라 부촉하시네.

마지막에 오행산 아래 깔린 손오공 만나니 그 사이 하계의 시간은 어언 오백년이 흘러 사납던 손오공도 이제는 좀 노골노골해 졌구나. 관세음보살에게 이 고통 면하게 해 달라 청한다. 보살님의 자비가 어이 차별 있을까 흉악한 원숭이 또한 너그럽게 불법 문중으로 들이고

이름 지어주려 하니 마침 항렬자도 맞는 오공이란 이름 지니고 있네!

이렇게 경 가지러 서천 갈사람 도와줄 도우미들 구색도 맞게 준비해 놓으시고 드디어 도달한 동쪽 땅, 달마가 서쪽에서 오기 전에 이미 관세음보살 오셨었더라!

오신 땅이 어디였더뇨? 오신 때는 언제였더뇨?

땅은 중국 땅, 때는 당(唐)대 태종황제 시절이었다네. 마침 그 시절 그 땅에 현장(玄)이라는 신승(神僧)있었으니 그 아니면 누가 서천에 가서 경을 구해 올 수 있으랴!

부처님 뜻 이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동방의 신승 현장의 뜨거운 구도심이 만나게 되는 날

온 천지에 미리 하늘 꽃비 내리리라!

부처님께서 큰 자비심을 내시네요. 정말 큰 자비심을 내시네요. 부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그런 부처님이 중생에 대해 자비심을 내어 진리를 전해주신 그 큰 은혜!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물론 부처님의 본분에서야 그러한 자비심이 없다면 부처님일 수가 없겠지만, 우리 중생의 분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고해를 헤쳐 나가면서,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불자가 되는 출발점 아닌가 싶네요. 그 감사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저는 이렇게 감사드리는 마음이 기본이 아닐까 생각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기에 제가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못난 모습으로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더 괴롭게 이 세상을 한탄하며 살았겠습니까? 참으로 고맙고도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부처님의 큰 가르침 열심히 받아 실천하며, 나날이 부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칠계님! 맨날 "기도드리니까 꼭 들어주시더라!"하는 감사에만 머물지 마시라는 겁니다. 좀 발전을 해야지요. 제 이야기에 무슨 인연으로인지 계속 들으러 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초치는 말씀만 하지 말고 이런 때 고개 몇 번 주억거리면 추임새도 넣어 보세요! 어? 정말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아, 삼쾌 선생 하는 말에 따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부처님께서 더더욱 어여삐 여기시고, 기도도 잘 들어주실 것 같다구요? 에궁, 말을 말아야 겠네요. 그래도 그 말씀 옳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맘으로 기도하면 기도도 더 잘 될 거라는…. 단지 잘 들어주신다기 보다는 좀 큰마음으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늘 부족한 거 달라고 칭얼거리는 기도보다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예쁘겠지요.

불법을 전하는 마음이 모아지면
"현장 법사가 너희를 고통서 건질 것"
관음, 손오공 · 저오능 · 사오정에 언질

아무튼 부처님이 큰 자비심으로 삼장(三藏 ;經과 律과 論,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를 말함)의 법을 남섬부주의 동쪽 땅에 전하려 하시네요. 그런데 그 때 하시는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나는 법력 있는 이를 뽑아 동녘 땅에 보내 착한 이를 찾게 하고, 그 착한 이가 온갖 험한 강과 산을 건너고 넘어 고생을 겪으면서 여기로 오게 하고 싶다"

에고~ 부처님이 무슨 심술이 그렇게 심하신가요?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오게 하고 싶으시다니. 좀 편하게 오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기왕 자비심 내신 김에 친절한 배달 서비스 같은 거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실제로 서유기 저 앞으로 가면 손오공이 요괴 때문에 무진 고생 하면서 그렇게 투덜거리는 대목이 있어요. 불보살이 직접 가져다주면 좋을 것을 게으름 피우면서 사람 고생시키느냐, 아니 원숭이 고생 시키느냐…. 그런 투정이죠. 그 때 관세음보살님이 타이른 말이 있지요? 뭐냐구요? 미리 알면 재미없죠. 대강은 그런 고생을 겪지 않고 쉽게 얻으면 그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만 귀띔해 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며 이 부처님 계신 서쪽 땅으로 고생하며 올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그래도 너무 힘들어 못 오지 않게 어느 정도 안배를 해줄 법력 있는 사람을 물색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자비심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이 자원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야 물론 흡족하실 수밖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에게 금란가사(金 袈裟; 황금을 섞어 짠 비단으로 만든 가사) 한 벌, 구환석장(九環錫杖; 아홉 개의 고리가 달린 큰 지팡이) 하나, 그리고 세 개의 긴고(緊?)라는 테를 주시네요. 금란가사와 구환석장은 경을 가지러 올 스님에게 줄 것이고, 세 개의 테는 경 가지러 올 스님을 도울 요괴 제압용이지요. 여러분도 친숙하시죠? 손오공이 말 안들을 때 현장법사가 써먹는 거. 손오공 머리에 씌워져 있는 그 테 말입니다. 주문 외우면 막 조여들어서 손오공 때굴때굴 구르며 아파하게 하는가 말입니다. 바로 이 테가 그것이죠.

그것을 받아 지니고 출발한 관세음보살님, 약수(弱水), 또는 유사하(流沙河)라는 곳에서 흉악한 물귀신을 만나네요. 연잎조차 뜨지 못하니, 뗏목 띄울 생각은 할 수도 없는 강이라네요. 실제 사막에 접어들면서 만나게 되는 험한 자연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곳이 어디를 말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앞으로 얘기할 중요한 대목이니까, 미리 말하면 천기누설! 거기서 만나는 물귀신이 사오정이라는 것만 밝혀두죠. 그리고 사오정의 신분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본디 요괴가 아니라, 하늘에서 벼슬을 하다 죄를 지어 하계로 추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앞으로 만날 저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본디 악한 존재가 아니라, 어찌 잘못되어 지금의 흉한 모습으로 있게 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손오공이 마음을 상징하며, 또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양면을 동시에 그린 존재라면, 이 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닌 어떤 측면을 상징화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의 어떤 측면도, 지금 중생으로 있을 때는 흉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이 본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디 하늘에서 벼슬하던 존재라는 것, 무언가 계기가 주어지고 노력을 기울이면 다시 고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귀신에게는 불법 문중에 든 기념으로 사오정(沙悟淨) 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유사하에서 만난 것을 인연으로 사(沙)라는 성을 주고, 맑음을 깨우친다는 뜻을 지닌 오정(悟淨)이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호, 나칠계님. 얼굴에 기쁘고 반가운 기색이 가득하시네요.

나칠계: 저두 아는 인물이 나오니 정말 반가울 수밖에요. 제가 늘 존경해 마지않는 저팔계님의 아우 노릇하는 사오정 아닙니까? 말귀 어두운 사오정! 그 사오정 시리즈라는 유머들 제가 정말 많이 알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한 유식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에인~ 역시 나칠계님께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거. 모르시는군요. 사오정이 말귀 어둡다는 것은 서유기 전체를 이잡듯 뒤져도 없어요. 그건 대한민국에 유명한 허영만이라는 화백의 작품 '날아라 슈퍼보드' 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 제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찌 나칠계님은 저에게 이렇게 보람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드릴 때마다 처음 들었다고 하시니 가르치는 보람이 팍팍 나는군요.

제가 서유기 원본에 없다고 해서 허영만 화백을 흠잡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유기를 소재로 이렇게 세상에 하나의 흐름까지 만들어 냈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고전을 소재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품들이 더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요. 저의 이런 이야기들이 혹 그런 새로운 일들에 조그만 시사라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구요.

자~ 다시 원 줄기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저팔계를 만나지요. 저팔계의 모습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돼지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요괴란 말이지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하늘의 관리였는데 죄를 지어 하계로 추방되었는데, 재수가 없어 돼지의 태속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돼지가 되었다는…. . 그런데 저팔계 하는 짓 봐서는 단지 재수가 없어 그리 된 것 같지는 않죠? 꼭 돼지 같은 성향을 가졌기에 돼지 태속으로 떨어진 것이라는 강력한 심증을 지울 수가 없군요. 헛! 나칠계님, 이번에는 좀 성이 난 기색이시네요. 말씀해 보세요.

나칠계: 그건 확실히 재수입니다. 괜히 제게 존경하는 저팔계님 험담하지 마세요. 용모 가지고 그러는 거 정말 아닙니다. 저도 좀 모습이 저팔계님 닮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선입견 많은 중생 때문에 시달리는지 아세요? 제가 아직 장가 못가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삼쾌 선생! 좀 잘생기신 건 안정하지만 이건 아니지요!

이쿠! 이건 정말 제 잘못입니다. 용모로 사람 평가하는 짓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틀림없습니다. 단지 상징적인 이야기를 너무 사실에 적용한 제 잘못이 매우 큽니다. 죄송 죄송~

그래두 제가 잘생겼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나칠계님의 말씀, 속으로 매우 기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회에 뵈어요.

since 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저렴한 가격!!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 (051)515-888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 농협 : 121068-56-042256 ◆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상호인쇄


미니:상호인쇄


수첩:상호인쇄

12절(벽걸이형)달력
200부 이상 @ 1000 원
• 백부이상 @1,200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 × 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 정가 1800원
• 규격 : 30cm × 63cm
1,600 원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18장

탁상달력200부 이상 @
• 정가 1800원
• 규격 : 26cm × 19cm
1,600 원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규격 : 8.9cm × 9.5cm • 매수:16장

언어가 상호의존 본질 말할 수 있나



원효의 혜안-화쟁(3)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

모든 현상과 견해를 '조건 인과적' 으로 파악하는 것은 실재와 진실에 부합한다. 현재의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신뢰도와 영향력이 큰 과학적 지식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다름 아닌 '검증 가능한 조건인과에 대한 열린 탐구' 때문이다. 그러므로 견해를 조건 인과적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는 과학과도 공유하는 오래된 합리성이다.

그러나 개인과 집단의 생물학적 이익(생존과 복사에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언어 전략의 오랜 관행은, '견해의 조건 인과적 이해' 에 저항한다. 이익을 확보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언어 속성인 동일화와 배제를 견해에 적용하고, 견해를 무조건화 · 절대화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경험을, 오랫동안 체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인간의 물질적 · 정신적 유전자에는, 견해 차이를 동일화와 배제의 승패 문제로 처리하고, 무조건적 · 절대적 옳음이나 그름으로 확정하려는 충동이, 본능처럼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다.

절대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
갇힌 언어 떠나 인과 파악하면
쟁론을 '화해의 화쟁' 으로 이끌어

쟁론의 당사자들은 자기 견해와 상대의 견해를 조건 인과적으로 이해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견해를 성립시키는 조건들의 인과적 연관을 사실대로 포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견해의 옳음과 상대 견해의 틀림을 입증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인과들을 자의적으로 선택한다.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이유를 채집하는 태도는 그 전형이다. 원효가 견해와 이론의 문(門) 구별을 통해 '불통의 쟁론' 을 '소통의 화쟁' 으로 바꾸려 한 것은, 인류의 오래된 '동일화와 배제, 무조건화와 절대화' 의 언어 사유의 관행을 치유하려는 행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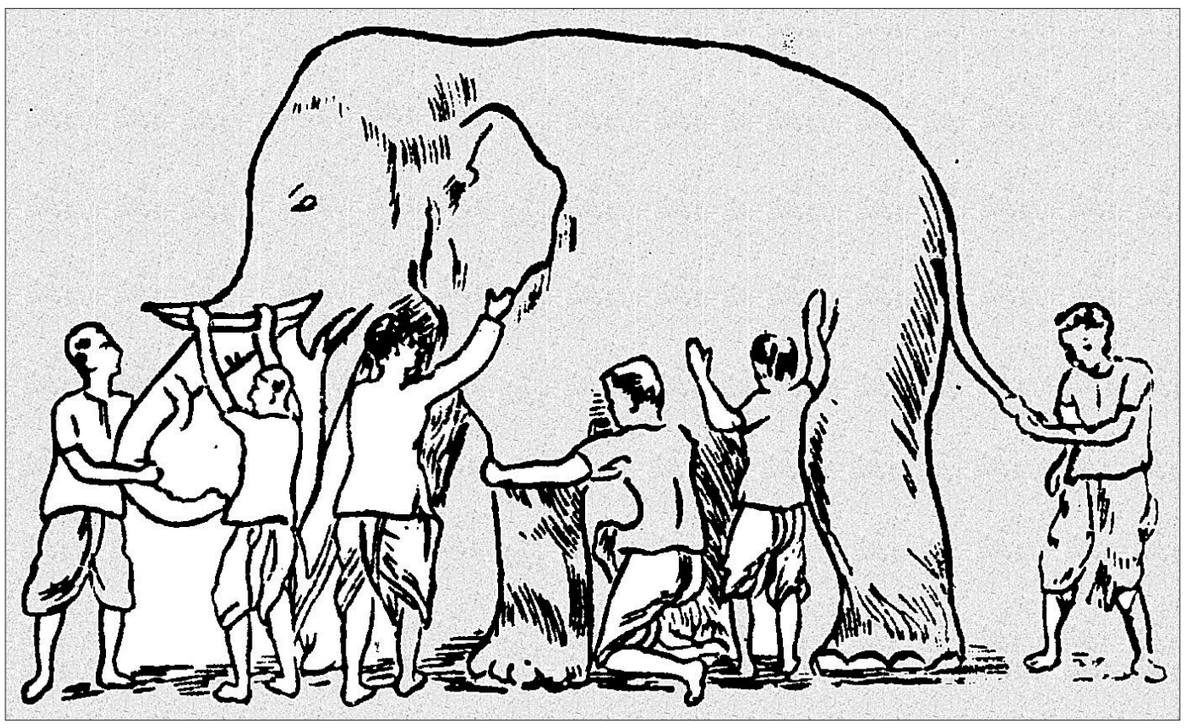
견해의 차이를 조건 인과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부분적 타당성' 이 눈에 들어온다. '~한 조건에서는 타당하다' 거나 '~한 조건에서는 부당하다' 라고 하는 '조건적 타당성' 이 포착되는 것이다. '무조건 맞다' 거나 '다 맞다' 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맞거나 틀리다' 라고 하는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적 · 조건적 타당성을 원효는 '일리(一理)가 있다' 고 말한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여섯 분의 주장이 비록 모두 불성(佛性)의 실체를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맥락에 따라 설하였으므로 각자 일리는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 하문(下文)에 설하기를, '저 눈먼 사람들이 각기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과 같아서 비록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코끼리를 설명한 것이 아님은 아니다' 고 하였다. 불성을 설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여섯 가지 주장이 곧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여섯 가지 주장을 떠난 것도 아니다."

"이 두 주장에 모두 도리가 있다. 그 까닭은 열반과 깨달음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차이의 측면에서 말하면, 깨달음은 과위(果位)로서 능히 증득하는 덕에 있으니 사성제의 도제(道諦)에 속하고, 열반은 과위에서 증득하는 것으로서 멸제(滅諦)에 속한다. 공통의 측면에서 말하면, 과위인 도제도 열반이고 과위에서 증득한 진여 역시 깨달음이다."

"또한 이 일각(一覺)은 본각과 시각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본각의 드러내어 이룬다는 뜻(本覺顯成義)이 있기 때문에 진리대로 닦는다(眞修)는 말도 도리가 있고, 시각의 닦아서 이룬다는 뜻(始覺修成義)이 있기 때문에 새로 닦는다(新修)는 말도 도리가 있다. 만약 한쪽에 치우쳐 고집한다면 곧 미진함이 있게 된다."

견해를 조건 인과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언어의 '동일화와 배제' 속성, 무조건화 · 절대화의 충동이 초래하는 '언어 본질주의' 나 '절대적 규정' 의 환각에서 풀려나게 하여, 언어의 실용적 유연성을 극대화시켜 준다. '언어 본질주의' 란 언어에 해당하는 불변의 동일한 내용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비유는 자신의 견해만을 집착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교훈으로 던진다. 갇힌 언어로 보여지는 환상들을 부수고 '조건 인과' 를 파악한다면 불화의 쟁론은 화해의 화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컨대 '책상' 이라는 명칭 안에는 책상을 책상이게 하는 불변의 동일한 본질이 있고, 마찬가지로 걸상에는 걸상의 본질이, 장미꽃에는 장미꽃의 본질이,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명칭에는 각각 고유한 불변의 본질이 독자적으로 있다고 간주하는 시선이다.

만약 언어에 해당하는 불변의 고유한 본질이 있는 것이라면, 언어의 속성인 동일성과 배제성은 실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어에 해당하는 그 어떤 내용에서도 경험 가능한 불변의 독자적 본질을 발견할 수가 없다. 언어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존재나 현상에서도 경험 가능한 불변의 독자적 본질은 없다.

수학이나 논리 같은 추상적 범주에서는 불변의 형식이 있지 않느냐고 말할지 몰라도, 그 논리와 추상을 발생시킨 경험세계는 불변의 본질이 아니다. 논리를 수립하고 구사하는 인간도 불변의 본질은 아니다.

일체의 존재와 현상은 가변적이고 상호의존적이다. 언어의 기초 소재인 그 어떤 개념도 '그것 아닌 것' 에 기대어 성립한다. '책상' 은 독자적 ·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본질 · 실체가 아니라, '책상 아닌 것' 을 조건으로 그것에 기대어 성립한다. 본질주의나 실체주의가 설정하는 불변 · 독자 · 절대의 본질이나 실체는 그 어디에도 없다.

만약 언어가 지시하는 불변의 독자적 본질이 있다면, 언어 용법은 고정적이고 절대적 규정도 가능할 것이다. '장미' 는 '장미' 로만 불러야 하고, 견해나 이론적 규정도 절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변의 독자적 본질이나 실체는 실재하지 않는 허구다. 언어적 환각일 뿐이다. 그 어떤 명칭과 명제 및 견해도 '유동하고 의존하는 조건들에 의해' '조건 인과적' 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질주의 · 실체주의의 허구를 깨뜨릴 수 있고 언어 본질주의와 무조건적 · 절대적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때 주어지는 선물은, 언어 채택과 구사의 실용주의적 유연성과 탄력성 및 개방성이다. 특정한 언어 용법과 규정에 갇히지 않고, 조건 인과적 진실에 부합하고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실용주의적 · 탄력적 · 개방적 언어 구사를 통해, 불통과 불화의 쟁론을 소통과 화해의 화쟁으로 바꾸는데 강력하게 기여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게으름은 병이다

부처님이 열반(涅槃)에 드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였다. 진리의 등불로 스승을 삼고(法燈明), 마음의 등불로 스승을 삼으라(自燈明)는 말씀과 함께.

수행승들에게 있어 게으름은 분명 병이다. 수행승일수록 부지런해야 한다. 잠을 멀리하고 일찍 일어나야하며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어진 소임에 충실해야 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一日不作) 하루 먹지 않는(一日不食) 정신이 승가(僧伽)본연의 갖추어야 할 덕목일 테니까.

몸만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아니다. 마음 속의 번뇌타작을 위해 끊임없이 털고 쓸어내야 한다. 신발도 바르게 벗어 놓아야 하고, 밥그릇도 말끔히 씻어 먹어야 하며, 앉아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생각을 모아 간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상야릇한 부끄러운 풍토가 자리매김해 그 둘레를 넓혀가는 느낌이다. 큰 사찰이든 작은 사찰이든 도심(都心)속의 포교당이던 주지직책을 맡게 되면 끼니 때마다 독상 차지가 정례화 되어 있다.

승복에서 속내의 양말에 이르기까지 공양주나 신도들이 빨아주고 다려준다. 거기다가 법당 청소도 신도 몫이요, 도량 청소는 부목 처사 담당이다. 신도들이 사찰에 와서 주지스님께 큰절을 올려도 주지스님은 고개나 손만 까닥하거나 앉아서 큰절을 받는다.

어디 그뿐이랴. 승려 된 게, 그리고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대개는 반말을 즐겨 쓴다. 웃기는 배경이, 배워먹지 못한 작태가 주지라는 허명(虛名)에 가려 당연시하게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

게으름은 마음가짐과 행동 자세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간디의 아힘사(Ahimsa) 정신이 비폭력에만 한정된 게 아니듯이.

스님은 스님다워야 스님이다. 청소도 빨래도, 그리고 공양주 보살을 수고스럽게 하지 말고 끼니때마다 신도들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주지스님을 보고 싶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는 부처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언어와 문자를 쓰며 미소 짓는 게 다를 뿐이다. 인간 뇌(腦)의 93~95%는 지극히 동물적이라는 게 학계(學界)의 정설(定設)이다. 먹을거리를 보면 먹고 싶고, 이성(異性)을 만나면 짝짓기를 생각하며, 이익을 위해서는 싸울 준비부터 갖춘다는 것이다. 강자(强者) 앞에서는 고개 숙이거나 꼬리를 내리고, 약자(弱者) 앞에서는 으르렁거리듯 냉소를 짓거나 거만을 떤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지극히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패거리 짓기를 좋아하고 배반과 충성을 손바닥 뒤집듯 즐긴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질서와 신앙마저 자기 이익, 자기만족 쪽으로 기울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명만 하다 죽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물론 일부의 성직자, 철학자, 사상가, 학자, 예술가 등의 뇌(腦)의 구조는 5~7%에서 상향 조정되어 감성(感性)보다 이성(理性)쪽으로 기우는 경우도 없진 않을 터이다.

수행승에게 게으름은 병이다
자연이 병들면 사람도 병든다

그러긴 하나 사람은 누구나 〈주홍글씨〉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베아트리체를 찾아 헤매는 '단테' 도 될 수 있고.

사람은 또한 자연의 일부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따라 초목의 모습이 바뀌듯이 사람 역시 철따라 기후 변화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다.

자연이 병들면 사람도 병들게 되어 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 사람의 감성(感性)과 인성(人性)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환경 훼손은 자연 파괴로 이어져 사람의 주거 공간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보호는 사람보호이며 환경 보존은 인간 생활의 보존을 의미한다. 내가 너를 소홀히 하면 너도 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사람은 누구나 야누스(Janus)적인,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적인 양면(兩面)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양면성(兩面性)은 선(善)과 악(惡)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방황한다. 줄 타는 곡예사처럼 좌(左)로도 우(右)로도 기울지 않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균형은 언제나 깨어지게 되어 있지만 철들어 죽을 때까지 동물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동물적 행위를 이어간다. 자연의 일부이면서 자연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달라이라마 하반기 일정 '전면취소'… 왜?

9월 8일 방한추진회와 회동서 직접 밝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뗀진갸초 · 80)의 올 하반기 법회 전면 취소가 확정됐다. 해외 불자들의 요청으로 10월 1일부터 나흘간 인도 다람살라(Dharamshala)와 델리(Delhi)서 예정됐던 법회를 비롯해 11월 몽골법회, 12월 러시아 법회 등 하반기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또한 내년 1월 인도 보드가야(Bodhgayā)에서 예정된 칼라차크라 법회도 내 후년으로 연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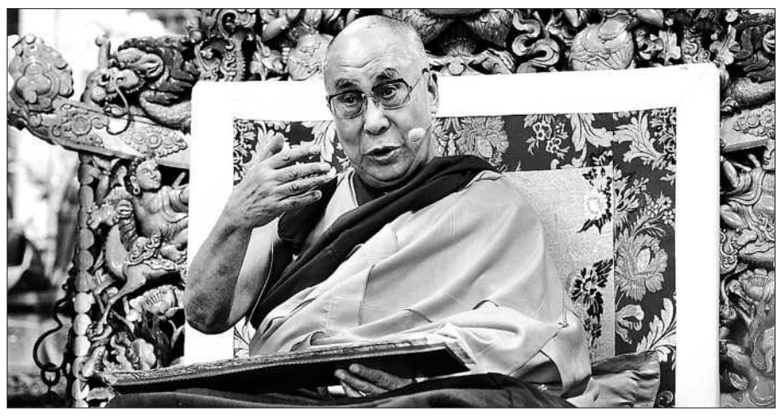
원인으로 '달라이라마 건강 악화설'과 '중국과 대화 모색'이라는 의견들 제기되는 가운데 달라이라마는 9월 8일 티벳대장경역경원장 진옥 스님,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 공동대표 금강 스님과의 회동서 법회 취소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옥 스님과 금강 스님은 인도 북부 다람살라(Dharamshala)에 위치한 남걀사원 쭉라캉서 9월 7일~10일 열리는 아시아불교도연합법회에 한국인 법회 주관을 위해 참석했다. 이에 9월 8일 오전 7시 30분경(현지시간) 달라이라마 사무소 접견실서 달라이라마와 회동을 가진 것이다. 달라이라마는 "지금이야말로 휴식이 필요한 시기"라며 "당뇨 위험은 없으나 혈당 수치가 비교적 높게 측정됐으며, 퇴행성관절염 및 결막염 증상으로 인해 의사 권고에 따라 요양을 취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라이라마는 10월 중순 경 미국 행사를 끝으로 올 한 해 인도서 머무를 계획이다. 미국 일정은 빌게이츠재단 주관으로 로스엔젤레스서 열리는 행사를 비롯해 '인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세계 종교 화합' 주제 의회 연설, 제27차 자유의 메달 수상을 위한 필라델피아 방문 일정 등이다.

11월 몽골법회 등 모두 취소
건강악화, 중국 염두 등 원인 제기
달라이라마 "요양 필요한 시기"
10월 중순 美 일정 후 휴식기

아울러 이날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는 달라이라마에게 방한에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방한추진회는 "2017년 4월 1일 달라이라마를 한국에 모시기 위해 현재 100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정식 추진위원회 발족도 예정 중"이라며 "향후 2년 안에 방한 계획을 확정 짓기 위해 달라이라마도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달라이라마(뗀진갸초 · 80)의 하반기 법회 일정이 전면 취소되며, 원인으로 건강악화 · 중국과 대화 모색 등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달라이라마는 방한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달라이라마를 바라보는 현 중국 정부의 시각이 유연해졌다며, 수년간 중국 정부에 요청한 '문수성지 오대산 순례'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달라이라마는 "부처님 제자로서, 또 수행 승려로서 한국 불자들의 다람살라 순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법을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한 치의 게으름 없이 정진하겠다. 가까운 날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길 함께 기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나의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서 다라살라까지 방문한 것은 '순례의 길'과 같다"며 "인도 다람살라에 망명하며 재건된 티베트 사원에서 수행 정진하는 티베트 스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화려한 호텔이 아닌 작은 접견실에서 회동이 각별하게 느껴진다"고 기뻐했다.

한편 9월 7일~10일 열린 아시아불교도연합법회는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 아시아 불교도국가 7개국 합동 주관으로 성사됐다. 약 8천 명의 청중이 동참했으며 한국인 법회서는 용수보살의 〈중관보만론〉 적천보살의 〈입보리행론〉 10장 회향품 등 진행됐다.

인도 다람살라=가연숙 객원기자

부처님 '무아 사상' 과학적 근거 제시되나…

에반 톰슨 교수 등, 뇌신경적 변동 과정에 불교사상 투영

신경과학계에서 부처님의 핵심 사상 '무아(無我)'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목된다.

'Quartz'는 9월 20일 "사람들은 유아기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지만 그때와 지금의 '자아'가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교적으로도, 또 과학적으로도 틀린 것"이라며 "자아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불교적 담론이 신경과학계의 과학적 근거에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반 톰슨(Evan Thompson)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수에 따르면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뇌와 몸은 끊임없이 유동적이다. 이는 모든 유 · 무정물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해간다는 불교적 자아의 개념, 즉 '무아설(無我說)'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단초가 되는 대목이다.

즉, 신경과학과 불교는 서로 다른 분야의 영역이지만, '자아'를 보는 관점을 일맥상통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몇몇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에 불교사상을 투영하고 그것에 근거한 밑그림을 그리는가하면, 고대 스님들의 사상이론을 인용하고 있어 자아에 대한 신경과학과 불교 사이 공통분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신경과학 저널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9월호에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뇌신경이라는 물리적 영역에서 자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연구자들은 "뇌에서 자아가 형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은 뇌신경적 변동 과정이겠지만, 그 생성 · 역할 · 소멸 과정은 불교에서 말한 '무아'를 보여주는 듯하다"며 "이는 불교적 담론이 신경과학계 이론의 든든한 배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톰슨 교수는 "신경과학계에서 보는 인지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 명상 실수를 통해 학습되고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신경과학계의 연구는 철저히 과학적 방법론에 따르지만,

뇌와 음 '유동성' 무아설과 연관
모든 유 · 무정물 시간따라 변해
"불교적 담론, 신경과학계 배경될 것"

연구 성과 의미를 평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교적 가치를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Quartz'에 따르면 신경과학 저널 'PLOS'의 2013년 8월호에는 "명상이 수면 중에 뇌신경 변화 추이에 전기적 · 물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돼 있다. 톰슨 교수 역시 이 근거에 주목하고 "동시대 신경과학계는 자아란 뇌신경 체계가 만든 '환상'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를 덧붙여 명상이 뇌신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아'라는 환상을 만드는 데 '육체' 역시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건강센터가 '스님과 함께하는 명상센터'로!

베틀크리크 지역서 명상모임 '빨첸스터디' 결성


빨첸스터디 회원들이 라마 타쉬 톱가이(Lama Tashi Topgyai) 스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있다.

'시리얼의 도시' 미국 배틀크리크(Battle Creek)에서 불교 명상모임 활동이 활발하다.

'Enquirer'는 9월 20일 "미국 미시건 배틀크리크의 불자모임인 빨첸스터디(Palchen Study)가 매주 토요일 배틀크리크의 공공시설인 '커뮤니티 하우스'에 모여 명상 실습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빨첸스터디는 티베트불교 명상을 배우며 익히고 있는 배틀크리크 주민들의 지역 소모임"이라고 설명했다.

빨첸스터디 결성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30여 명의 배틀크리크 지역 주민들이 메트 윌리스(Matt Willis)씨를 중심으로 불심을 키우고 있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불교 사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요 신행 무대는 '건강센터'였다. 공간 활용이 용의한 장점 때문이다.

"당시에는 모임 이름도 없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불교 명상을 가르치고 배우는 정도였다"고 설명한 매트 윌리스 씨는 "그러던 중 건강센터를 방문했던 라마 타쉬 톱가이(Lama Tashi Topgyai) 스님과 인연을 맺으면서부터 모임 이름도 짓고 정례화 될 수 있었다"며 "주민들에게 불교명상을 가르쳐야 했던 내 무거운 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5년 전 지역주민 30여 명 시작
치료위해 방문한 스님과 인연돼
매주 토 명상실습 활동 '활발'

라마 타쉬 톱가이 스님은 뉴욕에서 활동하던 티베트 스님으로, 배틀크리크를 방문하던 중 건강 악화로 건강센터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때 메트 윌리스 씨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명상 실습을 지켜보게 된 것이다.

"센터에서 명상을 하는 지역 주민들을 본 순간 뉴욕이 아닌 배틀크리크가 내가 있어야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라마 타쉬 톱가이 스님은 "2011년 빨첸스터디를 결성,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명상을 가르치며 신심을 키우겠다는 서원을 실천하고 있다"며 "메트 윌리스씨와 같은 독실한 불자들이 그 여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nquirer'에 따르면 빨첸스터디는 몇몇 불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명상 실습이 이제는 '스님과 함께 익히는 명상 실습'으로 정착됐다. 건강센터의 빈 방을 찾아 전전긍긍하는 대신 지역 공공시설인 '커뮤니티 하우스'에 명상 모임을 위한 공간을 지정 받을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빨첸스터디 회원들과 함께 일상에서 부처님의 여정을 찾아가는 것이 즐겁다"는 라마 타쉬 톱가이 스님은 "처음에는 지역 주민의 상담 전화를 받으며 이메일 등 묻고 기록하는 게 낯설었다"며 "그러나 이 역시 하나의 포교 · 수행이라 생각하니 적응할 수 있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자 설치미술가 '반전 기원' 전시회 열어

베티나 위트빈, 브루클린서 '어둠의 마음' 展

미국의 불자 설치 미술가가 브루클린에서 반전을 기원하는 전시회를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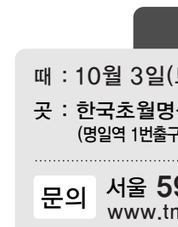
'Lion's Roar'는 9월 16일 "예술가이자 사회운동가인 베티나 위트빈(Bettina WitteVeen) 작가가 미국 브루클린에서 반전을 주제로 '어둠의 마음'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 위트빈 작가는 'When We Were Soldiers… once and young'이라는 설치 미술을 선보인다"고 보도했다.

9월 19일~10월 24일 진행되는 '어둠의 마음' 전에서 선보이는 이 작품 이름은 베트남 전쟁을 다룬 베스트셀러 소설 제목이기도 하다. 작품은 전쟁과 관련된 사진 1백여 장을 입체적으로 이어 붙여 제작됐다.


불자 설치미술가 베티나 위트빈(Bettina WitteVeen) 작가

닫힌 공간 보다는 열린 공간에서의 전시회를 선호하며 인간 내면을 조명하는 데 집중하는 작가로 알려진 베티나 위트빈 작가는 "전쟁은 가장 큰 폭력이자 고통이며 이번 브루클린 전에서 그런 감정을 정화할 수 있는 설치 미술품을 선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TM 창시자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가장 쉽고 빠른 힐링! 깨달음!
고혈압 · 심장병 · 우울증
불면 · 스트레스 해소
KBS(마음, 생로병사의 비밀), CNN, TIME지 등에 소개

초월명상(TM) 강연회

오프라 윈프리는 왜 TM을 선택했나?
"초월명상을 하면 저는 10배나 좋아집니다."
(미국 최고 여성부호, 방송인)
【 하버드 대학, 일본 노동성 등 세계 200여 연구소가 입증한 효과 】
수면보다 2배 깊은 휴식 / 불안, PTSD, 강박증 해소 / 지능, 이해력, 집중력 증가 / 대인관계 개선 / 흡연, 음주, 분노, 습관 개선 두뇌개발, 창의력 증가 / 당뇨, 비만 등 신진대사 증후군 개선 내면의 평화, 삼매경 체험 /자아완성(깨달음)
"초월명상으로 암 사망률 50%, 심장병 사망률 30% 감소 입증"
[2005년 5월 2일 SBS 8시뉴스, 중앙일보 의학뉴스]
소개강연 초대
때 : 10월 3일(토) 2:30 pm, 11일(일) 2:30 pm
곳 : 한국초월명상원 (서울 강동구 천호1동 4-2 세일빌딩 601호)
(명일역 1번출구, 사거리에서 우회전 250m, 강동삼성한의원건물 6층)
문의 서울 598-3152 / 010-7504-1299
www.tm-korea.org (기업 및 지방 출장 강연 환영)
▶ 미국 심장협회가 유일한 뇌졸증 치유 명상법으로 권장!
▶ 일본 150여 기업 등 세계 유수 기업들 도입!
▶ 세계 1천여 학교에서 시행, 브라질 전 국립학교에 도입!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 易學강좌
논리로 푸는 사주학 과학역학 '석하명리'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음양오행과 사주학의 모든 이론에 대한 원리를 밝히는 과학역학 '석하명리'
성공과 실패의 10주년 패턴 '석하리듬'

구 분	요 일	시 간	개 강
초급(주간)	매주(火)	15:00 ~ 17:00	10월 20일
초급(야간)	매주(火)	19:00 ~ 21:00	10월 20일
초급(야간)	매주(水)	19:00 ~ 21:00	10월 21일
중급(주간)	매주(木)	10:00 ~ 12:00	10월 22일

■ 기간 14주 과정 / 수강료 20만원
■ 교 수 진 : 석하 소재학 박사, 석원 박성희 박사, 심원 남상용 교수, 교원 설운스님, 강세명 교수
■ 강의장소 : 선정릉역 2번출구(지하철 9호선 / 분당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 자격증 과정 겸비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명리진로적성 상담사/현대명리교육 상담사
■ 하원정미래학회 석하명리 동문자격(서울 29기)
· 성격특성, 진로적성, 성공과 실패의 시기 분석
서울벤처대학원 FCA
• 문의 : ☎ 02)3443-4984

행자교육생 모집안내
올바른 가치관과 신심이 두터운 참신한 행자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교육일시 : 2015년 10. 15(목) ~ 10. 25(9박10일)
■ 교육장소 : (사)한국불교미륵종 부산교구 무량사 부산시 동래구 금정마을로 59-9
■ 교육과정 : 승려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습의 및 인례, 예불, 경전봉독, 운력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운용
■ 교육인원 : ○○명
■ 기타사항 :
▷ 타 종단 행자 위탁교육 시행
▷ 단기 출가자 환영
▷ 혜택 : 교육 후 사미(니)계를 수계하고 본 종단 승려로서 활동
■ 접 수 처 :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 경남 김해시 가야로405번안길 14-9(구룡사) ☎ 055)338-3678 / 010-4940-8979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내방, 면접 후 결정
■ 교 육 비 : 실비
※ 자세한 내용은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으로 문의바람^^
2015년 9월 12일
(사)한국불교미륵종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 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NAVER 귀장술 원판 검색
Daum 귀장술 원판 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 전화 010-8558-2345



미얀마, 중국 현대불교신문이 준비한 해외성지순례에 불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붓다의 길을 걷는 성지순례, 부모님의 효도여행,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창간 21주년을 맞는 현대불교신문은 독자여러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억에 남을 해외성지순례'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못 떠나신 분, 마음맞는 친구, 여행동반자가 없어 못 가셨던 분, 여행의 안전이 걱정되어 못 떠나신 분, 사는 것이 힘들어 잊고있던 그 여행...
가족과 함께 , 부모님과 함께 현대불교신문사와 품격 높은 여행사가 함께 준비한 '해외성지순례'로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전

① 성지순례 후 특별지면을 편성하여 내용을 지면에 게재합니다.
② 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동일 상품 비교)
③ 성지순례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미리 나눠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④ 여행후기 소감문을 보내주시면 현불뉴스에 게재해 드립니다.
⑤ 전 일정 촬영한 사진을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⑥ 현지와의 문화, 봉사 교류 및 불교행사 가능합니다.
(천도재, 수계법회, 마정수기, 신뿌행사, 봉사활동, 현지불교 교류 등)
⑦ 현지 전문 불자가이드로 성지순례의 감동을 더합니다.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팀 이동격 부장
02)2004-8214 / 010-7339-8688
협력여행사 : 마하연여행사 ☎ 02)365-7747
(견지동 74-8, 조계사 일주문 앞)
■ 종단 및 사찰, 단체 접수 환영합니다.
■ 현지와의 교류 행사는 일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4박 6일 / 대한항공 (KE471)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790,000원

■ 포함 사항 : 국제선 항공료(유류할증료 포함), 전 일정 호텔(2인1실), 전일정 식사, 전용차량, 전용보트, 전용유람선, 관광지 입장료, 한국인가이드, 기사&가이드팁, 비자수수료, 여행자보험 1억원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매너팁 등)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전일정 가이드/기사TIP (전일정$60) + 공동경비(전일정$10) 포함
- 12명 이상 45인승버스 진행 (타사비교 필수)
- 아름답게 펼쳐진 탑과 마을을 지나는 마차투어
- 갈증을 풀어줄 시원한 미얀마 맥주, 맛있는 열대과일 제공
- 헤호지역 수상 호텔로 이용
- 미얀마 천연썬크림 다나까 체험
- 유람선을 이용 민군순례
- 아름다운 깐도지 호수 산책

제 1일 인 천 양 곤
인천공항 3층 A카운터 미팅
양곤 출발 (대한항공 KE471)
양곤 도착 (시차2시간 30분)
호텔로 이동 – 호텔휴식
HOTEL : 스카이스타 호텔 또는 동급
석 : 기내식

제 2일 양 곤 바 간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바간으로 이동
냥우시장 관광
쉐지곤 파고다/ 부파고다 / 아난다사원 / 틸로민로 사원 / 세산도 파고다 순례
강변레스토랑에서 저녁공양 후 휴식
HOTEL : 트레저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3일 바 간 만달레이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만달레이 이동
우뻬인다리 / 마하간다용 수도원 탁발의식 참여 / 마하무니 파고다 /
신뿌미파고다 / 민군대탑,민둔대종 순례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만달레이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4일 만달레이 헤 호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헤호로 이동
인맹유적지 / 팡도우 파고다 방문 /
쭌묘(수경농경지재배단지) 관광 /
수상마을,전통공방 관광 /
수상호텔에서 휴식
HOTEL : 후핀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5일 헤 호 양 곤
호텔 조식 후 양곤으로 이동
까바이에파고다 /
마하파타나구하 동굴사원 /
쉐다곤파고다 / 차욱타지파고다 순례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
양곤 국제 공항 출발 (대한항공 KE472)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 6일 인 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단식
조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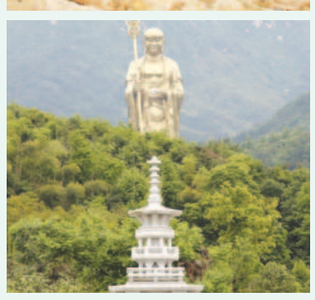
지장도량 (구화산)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성지순례 5박 6일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490,000원

■ 포함 사항 : 왕복 항공권, 호텔(2인1실), 전용차량, 관광지 입장료, 전 일정식사 ,여행자 보험 가이드&기사 팁, 중국 단체 비자 등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옵션비용, 싱글 룸 챠지 [전일정 18만원]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수준 높은 마하연 여행사 전속가이드의 책임 있는 행사 진행
- 가이드 &기사팁 포함 및 공동경비 포함, 전문 인솔자 동행
- 환상적인 상해의 외탄 야경 관람
- 중국 10대 선종 고찰 영은사 순례
- 99m 지장대불 참배
- 전일정 특급 호텔 숙박으로 편안한 휴식
-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발마사지 체험
-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 완벽 순례
- 천년전 항주를 재현한 송성가무쇼 관람
- 헤제사 순례 시 케이블카 이용







제 1일 인 천 / 상 해 / 황 산
인천국제공항 3층 G카운터 미팅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상해국제공항 도착
황산으로 이동(약 4시간 소요) 후
공양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 호텔 또는 동급
중 : 기내식 / 석 : 현지식

제 2일 황 산 / 구화산 (전용버스)
구화산 순례, 천태 케이블카 탑승
– 고경배대 순례
만불 천태사, 육신보전, 백세궁 등 참배
화성사, 99m 지장대불 참배
황산으로 이동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존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3일 황 산 / 항 주 (전용버스)
항주 극락 서호유람 및 육화탑(차창)관람
영은사, 청하방 순례, 송성가무쇼 관람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마르코폴로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4일 항 주 / 보타산 (전용버스)
보타산, 법우사, 관세음보살님이
방생하셨다는 보제사 순례
헤제사(케이블카), 관세음보살님
화현처 범음동 순례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보타산레이디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5일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전용버스)
낙가산 자죽림 순례,
남해관음대불 순례 후
상해로 이동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 줄 발마사지 체험
남경로 및 외탄 야경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가든 뷰 호텔 또는 동급 미정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 6일 상 해 / 인 천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상해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 : 호텔식 / 중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BTN 불교라디오 www.btn.co.kr

불교음악오디오 채널을 풍성하게 할 불교음악을 모읍니다

"혹시 '불교음악오디오 채널' 들어보셨나요?"

10월 가을날, BTN에서는 불교음악오디오 채널운영을 시작합니다. BTN에서는 불교음악의 활성화와 방송포교의 다양화 차원에서 10월부터 위탁 운영을 결정하고, 불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반으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거나, 또한 최신 다양한 불교음악과 독경, 부처님 말씀을 오디오 채널을 통해 많이 소개 할 예정입니다.

이에 법보시 및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 보관하고 계신 불교음반(찬불가, 염불, 독경, 부처님말씀 등)의 음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 3270-3338 (BTN불교라디오 담당자) *E-mail : nadapacem@btn.co.kr
*보내주실 곳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BTN불교TV 빌딩 불교라디오 담당자 앞



BTN불교라디오는 BTN홈페이지, 모바일웹 [m.btn.co.kr], BTN스마트폰 앱 을 다운받으셔서 청취가능 합니다. ARS후원전화 060-800-7000 방송포교 정기후원 02)3270-3301~2

간다라서 서라벌까지 고대 불상 한 자리에

국박, 고대불교조각대전 11월 1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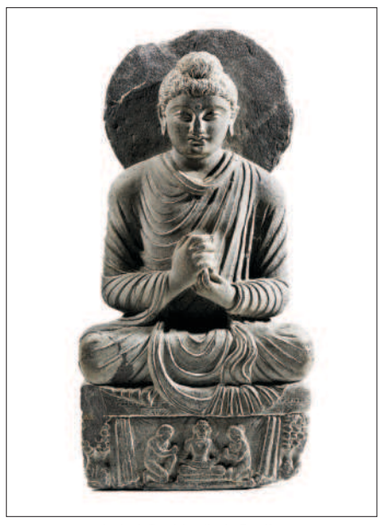
불상은 그 시대의 불교문화를 대변해 준다는 점에서 총체적 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전 세계 8개국 26개 기관에 소장된 불상을 210여 건을 한 자리에 모은 전시를 연다.

용산 이전 10주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이 고대불교조각대전 '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를 11월 1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과의 교류 속에서 한국 불교조각의 전통을 조명하는 동시에 불교 확산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인도에서 불상이 처음 등장한 시기부터 우리나라에서 반가사유상 제작이 정점에 이른 700년경까지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불교조각은 다양한 형식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상 성격의 불상과 보살상을 위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총 4부로 구성되는 전시는 불상의 창안 또는 전래에 대한 각 지역 사람들의 수용태도에 집중하고, 점차 지역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에 따라 구성됐다. 1부 '인도의 불상-오랜 역사의 시작'은 인도에서 불상을 처음 제작한 목적과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처님의 유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초기 불교에서는 400년이 넘도록 부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전통이 없었다.


설법하는 부처(간다라 쿠샨 시대)


국보 78호 반가사유상(6세기 후반)

반가사유상, 일본 삼존불 등 불상과 보살상 위주로 하는 국내외 유물 210여건 선봬

그러나 기원 전후가 되면 이러한 무불상(無佛像) 시대가 끝나게 되고, 간다라와 마투라 두 지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두 지역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독자적으로 불상을 창안했기 때문에 불상 역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전시에서는 간다라와 마투라 출토 불상과 보살상, 이야기 부조를 통해 새로운 성상(聖像)에 대한 각 지역의 접근법과 관심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2부 '중국의불상-시작부터 수대(隋代)'까지에서는 오호십육국(304~439)부터 수(581~618)로 이어지는 중국 불상 제작의 흐름을 보여준다. 후한 대에 불교와 함께 불상이 중국에 전래되었을 때 중국인들이 이 낯선 형태를 어떻게 자신들의 신상(神像)으로 소화하는가를 초기 금동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쓰촨 성 청두 시 만불사 터와 산둥 성 칭저우 시 용흥사 터에서 발견된 일군의 불상을 통해 인도에서 전해진 불상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문화에 맞게 양식을 변형하는 중국화 과정이 지역별, 왕조별로 특색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소개한다. 특별히 인도 굽타 시대 불상, 베트남 지역에서 발견된 불상과 동 시기 중국 불상의 비교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교류를 바탕으로 새로운 양식의 영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는 코너도 마련했다.

3부 '한국 삼국시대의 불상'에서는 외래의 상을 본떠 만든 최초의 상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국적 논란을 포함해 삼국시대 불상 제작 초기의 양상을 살펴본다. 또한, 삼국시대 불상이 중국 남·북조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전개되다가 6세기부터 점진적으로 한국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모습도 조명한다. 중국 불상과 한국 불상을 가까이에서 함께 보면서 양식적 흐름이 유사하게 진행되는 양상과 삼국시대 사람들이 취사선택한 부분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4부 반가사유상의 성립과 전개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은 도상이자 가장 주목할 만한 종교적·예술적 성취를 이룬 반가사유상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반가사유상은 실존에 대해 사유하는 인물을 묘사하던 인도의 전통에서 출발했고, 중국, 한국, 일본에서 두루 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보살상 가운데 반가사유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아 반가사유의 도상을 중요하게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전시에서는 1965년 봉화 북지리에서 출토된 석조반가사유상이 선보인다. 추정높이 3.0m에 달하는 이 상은 한 사원의 주존으로 모실 만큼 반가사유상이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원 소장처인 경북대박물관을 떠나 선보이는 작품이라 의미가 크다. 또 2004년 이후 11년 만에 다시 국보 78, 83호 두 반가사유상도 나란히 선보인다. (02)2077-928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범자문 막새기와를 이야기하다"

12월 22일까지 양주회암사지박물관서

양주회암사지박물관에서는 12월 6일까지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다양한 범자문 막새기와를 공개한다. 이번 전시는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다양한 형태의 범자문 막새기와 유물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은다.

왕실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명문기와 '효령대군선덕갑인(孝寧大君宣德甲寅)' 명 기와를 비롯해 회암사지 출토 유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자문 막새기와 약 2,300여점 중 대표성을 띄는 35점을 이번 전시에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출토된 범자문 막새기와와 함께 범자문이 도안된 청동거울, 향완까지 다양한 범자문의 활용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전시 입구부는 희망과 믿음의 발원문을 작성하고, '탑돌이' 의식을 모티브로 전시장 가운데 탑 형태의 조형물을 돌아볼 수 있게 구성했다. 그리고 전시 후반부에서는 범자의 구조와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 코너를 마련했고, 전시장을 나가면서 발원문을 통에 넣어 관람객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도해보는 기회도 제공한다.


효령대군 선덕갑인명 범자 문수막새

정혜숙 기자

2015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10월 8일~11일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서

성덕대왕신종을 주제로 한 '2015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10월 8일~11일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은 '에밀레 모형종 타종' '에밀레 주제관' '신라 문화체험 마당' '신라 간등회(看燈會)', '전통문화공연' 등으로 꾸며지는데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성덕대왕신종을 디지털로 복원해 눈길을 끈다.

'에밀레 주제관'은 30여 평의 기와집으로 조성되며 6개의 신라시대 범종 모형종 전시를 비롯해 성덕대왕신종 표면의 기록물인 명문 해석과 문양 설명 등을 전시한다. 또 성덕대왕신종의 특징과 과학성, 주조과정 등을 그림으로 쉽게 풀이해 소개한다.

'신라 간등회(看燈會)'는 한국 전통등의 효시인 신라시대 간등(看燈)을 재연하는 행사다. 대형 공작등과 용(龍)등, 황룡사 9층 모형탑등을 비롯한 50여 개의 대형 전통등이 첨성대와 함께 은은한 야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디지털 성덕대왕신종'은 높이 4m, 최대 지름 2.5m 크기로, 신종의 '맥놀이 현상'을 화려한 LED 영상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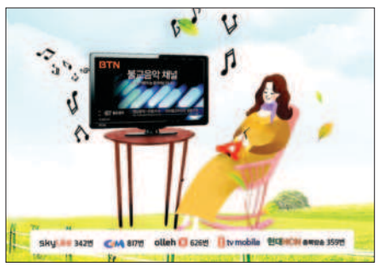
4톤 규모의 '에밀레 모형종 타종'은 에밀레전의 빼놓을 수 없는 체험이다. 범종을 타종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직접 타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 코너는 매년 행사 때마다 가족단위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지난해 에밀레전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타종을 체험하고 있다.

BTN, 불교음악오디오 채널 운영 돌입

10월 5일부터 케이블TV 등에서 서비스


BTN 오디오 서비스 홍보 이미지

BTN이 본격적인 전문 오디오채널 운영에 들어간다. BTN(대표이사 구본일)과 BTN불교라디오(이하 BTN)가 10월 5일부터 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 IPTV 및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불교음악오디오 채널 운영을 시작한다.

오디오채널은 디지털방송에서 영상채널 다음에 배치된 채널로 오래된 TV 시청자들조차 모르는 이가 적지 않다. 오디오 채널에 포함된 불교음악채널도 마찬가지다. 불교오디오 채널은 TV 화면이긴 하지만 라디오처럼 소리로 불교관련 콘텐츠들을 듣는 채널이다. BTN은 "불교음악채널은 그동안 오디오전문채널 업체가 찬불가, 독경, 명상음악, 국악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불교음악음원확보의 어려움과 낮은 청취율,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전한다.

불교음악오디오채널은 케이블TV와 같은 방송플랫폼사나 운영업체뿐 아니라 불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아 불교음악을 24시간 들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저변확대가 되지 못했다. 이에 반해 타종교음악오디오채널은 불교음악오디오채널에 비해 음원확보도 유리하며 청취율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TN은 "불교음악의 활성화와 방송포교의 다양화 차원에서 10월 5일부터 기존 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채널 운영을 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불교계 다양한 음악과 독경, 명상말씀 등을 널리 알리는 토대를 불교음악채널을 통해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미 3개월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다.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이미 알려진 찬불가뿐만 아니라, 최신 다양한 장르로 발전된 다양한 찬불가와 불교 명상음악 음원을 확보하였고, 법보시 및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불교음반(찬불가, 염불, 독경, 명상말씀 등)의 음원을 수집했다. BTN은 "기존 음원시장에서 노출되는 불교음원이 많지가 않아 사전 홍보를 통한 음원수집 및 확보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문의와 기증 및 음원 무상제공을 약속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간의 과정을 전했다.

이밖에도 BTN불교라디오는 다양한 음원확보를 위해 풍경소리와의 협약을 완료하여 찬불가 및 찬불동요를 제공할 예정이며 최근 설립된 조계종 불교음악원과도 앞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BTN은 순수 배포 및 홍보 목적으로 만들어진 숨겨진 불교음반을 소장하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린다.

(02)3270-3338 정혜숙 기자

實戰四柱 강좌 안내

運命을 개척하는 實戰四柱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운명을 개척하자!"


송암 김서경

각고의 노력으로 드디어 實戰四柱 종합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스님을 비롯하여 법사님 등 누구라도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파멸과 부귀영화는 나 자신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습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시고 무량공덕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 實戰四柱 강좌
◐개강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강의일시 : 매주 월~화, 목~금 (10-12시, 15시-17시, 19시-21시) 하루 2시간 강의
◐강의과정 : 1년 과정 + 육효, 성명학 4개월
◐강의장소 : 명리학연구원 강의실
◐강의교재 : 實戰四柱 (교재비 무료)
◐수 강 료 : 월 20만원

명리학(命理學) 연구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3-1
농협건물 4층 401호
전화 010-3341-4867
원장 송암 김서경

實戰四柱 책 판매 안내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별도 판매합니다)

이 실전사주책은 1,030페이지로 사주팔자가 구백육십개이며 용신과 대운과 세운, 질병, 성격, 팔자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 책만 배우면 어떠한 사주라도 감정해 줄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1년만 배우면 타인을 감정해 줄 수 있으며 육효도 필히 배워야 합니다. 사주와 대운은 큰 틀이며 매월의 운세와 승진, 합격, 재물, 매매, 송사, 문서, 생과 사, 택일, 일진, 모든 길흉사는 육효로 감정합니다. 육효는 4개월만 매우면 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 85,000원
(입금 확인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제1기〉 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출범

동양역학,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서울벤처대학원 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졸업 후에도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이 시대 동양 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역학 전문가, 동양 미래예측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진 :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 백운산 한국역술인협회장, 학선 유래웅 고려기문학회장, 박영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동양학부장, 경기대 백민교수, 한양대 정창근교수, 백운암 노성순교수, 박청화 청화학술원장, 최명우 현공풍수지리연구소장 , 창광 김성태원장,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청주대 이상광교수, 국제뇌교육대학원 박성희교수, 공주대 이수동교수, 글로벌사이버대 문봉 박재범교수, 서경대 김인순교수, 충청대 남정 권오연교수 외

■대 상 : 역학자, 명리학 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 (학력무관)
■일 정 : 1학기 과정(15주), 10월 19일부터 매주 월(月) 18:40 ~ 21:30
■수강료 : 185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1-275629 (예금주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특 전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료 후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자격증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문화관광부 등록)

선정릉역 2번 출구 (지하철 9호선 / 분당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문의 02-3443-4984 www.gfca.kr

BTN 드라마 '붓다'

"인간은 무기력하고 시간은 막강합니다"

지난 줄거리

싯다르타와 야소다라의 결혼식을 방해하려는 데바닷타 가족의 다양한 음모가 이어진다. 특히, 데바닷타는 야소다라의 납치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음모를 알게 된 향락궁 기생 칸치니가 야소다라인 척하고 잡혀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게 된다. 한편, 코살라국 왕은 드로나단의 이간질로 싯다르타에게 적의를 품는다.



가난한 집의 장례식을 치러주게 된 싯다르타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궁 밖을 여행하고 싶다는 싯다르타왕자와 반대하는 숫도다나왕


야소다라의 임신소식에 너무나 기뻐하는 싯다르타



마하파자파티가 친모가 아닌걸 알았으나 변치 않는 애정을 맹세하는 싯다르타

싯다르타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난 후에 향락궁의 기생 칸치니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된다. 데바닷타는 자신이 칸치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전전긍긍하다가 망갈라와 드로나단에게는 이 사실을 밝힌다. 한편, 싯다르타는 행방이 묘연한 칸치니를 걱정한다.

또한 궁중회의에서 대신들이 전쟁 결과를 두고 회의를 열고 여기에서 싯다르타는 전쟁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대신들 또한 싯다라타의 말에 공감을 하며 숫도다나 대왕과 싯다르타를 지지한다. 한편 코살라국 프라세나짓 왕은 죽음을 맞이하는 선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결심을 한다.

망갈라는 붓다를 수행자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싯다르타가 왕이 되기 전에 백성들을 살피는 여행을 할 것을 제안한다. 망갈라의 의도를 모르는 싯다르타는 좋은 생각이라 여기고 이를 숫도다나왕에게 말하지만 거절당하자 이렇게 주장한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 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카운다냐 현자는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왕은 백성의 마음을 알고 그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요."

결국 야소다라 등 주변사람들의 설득으로 싯다르타와 야소다라는 여행길에 오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칸치니가 입었던 베일이 발견되고 그녀가 주검을 당한 오두막집이 불탄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데바닷타의 목걸이 조각이 발견된다. 다시 궁으로 돌아간 싯다르타가 이를 추궁하자 데바닷타는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발뺌한다.

싯다르타는 여행 중에 다른 카스트 계급들과 몸만 스쳐도 죄를 짓게되는 불가촉천민을 만나며, 얼마나 하층계급이 모욕당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또다른 곳에서는 흉역에 걸려 신도시로 보내진 형 때문에 울고 있는 다룬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된다. 다룬의 집을 방문한 싯다르타는 다섯 명의 식구가 바가지 하나에 담긴 밥으로 한 끼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싯다르타는 야소다라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음식이 한 조각도 없는 상황이야. 또 다른 사람은 너무나 부자라서 숭배의식 때 금을 브라만에게 바쳐. 동물을 희생하여 제단에 올리고.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싯다르타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야소다라와 왕궁 밖 여행하며
인간 생로병사의 고통 체험
야소다라 임신에 기뻐하지만
친어머니의 존재 알고 충격

그리고 다음날 사원으로 향하는 싯다르타 부부 앞을 다룬이 가로막는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다룬을 따라서 강가로 가니 다룬의 형은 이미 시체가 되어 돌아와 있다. 장례를 치를 돈이 없자 가족들은 시체를 강물에 띄우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왜 장례식을 하지 않냐고 묻자 "브라만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제 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싯다르타는 그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다 남은 재를 보게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죽음을 향하여 그렇게 가는 거라면 우린 왜 태어났을까? 다섯 가지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왜 잿더미로 변하고? 우리는 왜 금욕생활을 싫어할까? 세상은 왜 꼭 거짓처럼 보일까?"

이밖에도 세금을 강탈당하는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 등 싯다르타는 인간사의 다양한 고통들을 보게된다. 이런 과정에서 야소다라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싯다르타는 이 소식을 전하고자 궁으로 향한다. 망갈라에 의해 왕 부부가 궁에 있지 않고 로히니 강변에서 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왕 부부는 바로 마야부인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중이었다. 싯다르타는 이 자리에서 파자파티가 자신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파가 아기를 가져서 두 분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러 온 것인데. 오히려 제 어머니의 죽음을 말씀해 주시는군요. 인간은 진정 무기력하고 시간은 진정 막강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도 잃게 될 거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잃고 언젠가는 저도 사라지겠군요."

파자파티는 싯다르타에게 마야의 유품들을 보여주며 친어머니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다. 싯다르타는 파자파티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는 마야의 아들이지만, 어머니 없이는 완전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희생에 은혜를 입었고 난다에게는 죄를 지었어요. 저에 대한 사랑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말입니다." 정리=정혜숙 기자

BTN Buddhist True Network
본방 매주 수 · 목 저녁 9시
재방 일요일 새벽 1시 · 오후 3시(각각 2회 방영)
월~목 새벽 1시/ 화 · 수 오전 9시

리뷰 – 법현 스님이 본 드라마 '붓다'

괴로움의 진리를 인지하다

총55부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초반부가 지나 20~22회에 들어서면서 극의 전개는 더욱 활기를 띄고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일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 〈붓다차리타〉 등 부처님의 전기를 다룬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부처님의 일생에 획을 긋는 몇 가지 사건이 있다.

그것들을 우리는 흔히 팔상(八相)이라고 하고 그것을 부처님이 되심을 중심으로 기억하기에 팔상성도(八相成道)라고도 한다. 보통사람들이 부처님의 생애를 접하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들이 꽤 있다. 그 가운데 꿈 이야기와 농경제(農耕祭)이야기가 초반을 장식한다. 하지만 꿈 이야기는 그저 꿈이라 하면 받아들이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이 세상에 내려올 뜻이라고 이해하면 다른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농경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다. 싯다르타가 대중들의 시끌벅적한 곳에서 벗어나 사유를 깊게 하였고 모르는 사이에 선정삼매체험을 깊이 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어떻게 동영상화 할까를 궁금해 했는데 그냥 지나가버렸다.

농경제에서 이미 아시타선인이 예언한 수도자로서의 길을 가게 되는 계기인 선정삼매체험이 있었다면 중국선사들의 화두참구의 첫 번째인 커다란 의심덩어리(疑團)는 평생을 계속하는 숙제풀이일 것이다. 알다시피 의심이 들지 않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정확한 이해에도 걸림돌이며, 더욱 큰 진리를 체험하기는 어려운 자질이다. 그래서 중국의 선사들은 몽둥이질을 하거나 갑자기 고함을 크게 질러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뇌리에 명토박아놓는다. 싯다르타가 뭇삶(衆生)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 아니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차마 볼 수없는 고통의 현장을 겪으면서 그의 뇌리에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의 진리를 인지하게 된다.

싯다르타, 고통의 현장 다니며
점점 커지는 '의심 덩어리'

아마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인 괴로움의 진리(苦聖諦)는 이 때 이미 머릿속에 들어앉은 것이 아닐까 한다. 사문유관(四門遊觀)으로 알고 있는 민초들의 체험 삶의 현장은 드라마에서는 계속되는 의문으로 마음이 피곤한 싯다르타에게 기분전환의 기회와 아내 야소다라가 숫도다나 대왕에게 청하여 얻은 혼인여행휴가 같은 민심살피기의 결과였다. 그런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은 지나다 병든 환자나,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 그리고 상여에 메어진 시체를 보고 인생의 무상을 느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대개는 그 장면을 읽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반응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충격을 받아 세상을 싫어하기까지 하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가난하고 수탈 받아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이나, 자신이 삶의 슬픈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숫도다나가 만든 신도시 정책 때문에 고통 받게 된 하천민들과 장애인 등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더 괴롭게 느꼈을 개연성이 분명해보여서 느낌이 확 다가왔다. 자신의 성에 차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어버린 기녀 칸치니를 데바닷타가 죽인 것을 알고는 상심이 매우 컸다. 더구나 그것이 야소다라와의 관련임을 알게 되면 마음이 어떻겠는가?

드라마에서처럼 혼인을 하기까지 까마득히 몰랐던 생모 마야왕비의 죽음 사실을 알게 되어 커다란 충격파가 몰려오듯이 더욱 흥미진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 한국 시청자들이 복을 받았다. 붓다의 일생과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고민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부처님을 닮아가는 지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아는 계기를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부디 바라기는 드라마 붓다를 보는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 생애를 기록한 전기, 여러 가지를 함께 묶은 불교성전을 한 권씩 가지고 때때로 읽으며 살아가기를!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BTN 자문위원)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 · 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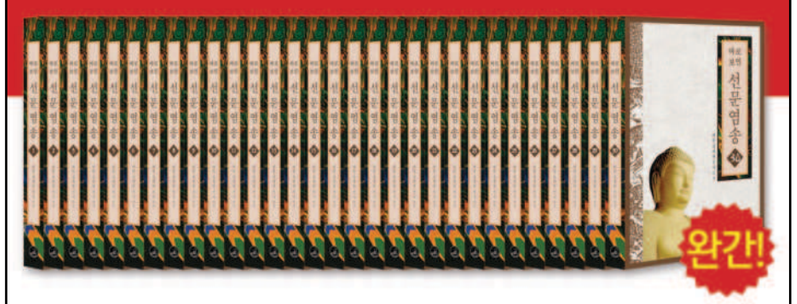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불조정맥 제77조 전강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73번째 저서 출간!!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각 칙마다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의 참 뜻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각권 15,000원 / 전권 구입시 15% 할인됩니다.
031-534-3373 / 010-4520-7963

〈도서출판 바로보인〉이
〈도서출판 문젠〉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9.17~2015.9.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2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3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4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5	시끄러운원숭이잠재우기	아잔브라흐마/각산	나무옆의자
6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7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8	명추회요-종경록 촬요본	회당조심/원택	장경각
9	감산자전	감산덕청/대성	탐구사
10	유심안락도	원효/혜봉역주	운주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수행자의 무기는 '부드러움'… 두려움 극복 시켜줘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쵸 c트룽파 지음
신유나 옮김
불광 펴냄
1만 4천원

불교 지도자로 서양인들에게 추앙받는 쵸 c트룽파 린포체는 극심한 경제적 위기와 혼란 속에서 영적 혼란에 빠진 현대인들을 위한 따뜻한 가르침을 세상에 남겼다.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이 책은 우리 사회와 개인의 인생에서 겪게 된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넘어서는가에 대한 안내서이다. 우리는 지금 내 모습, 감정, 고통, 불안, 두려움 등으로부터 달아나려 애쓴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현실을 껴안고 친구가 되는 것만이 진정한 선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트룽파는 바로 그 선택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끈다.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존재, 전인적인 존재,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다.

엄마의 배 속서 나온 아기가 처음 만나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닐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는 배고파서, 아파서, 엄마가 사라질까 봐, 누군가 해칠까 봐 울음을 터뜨린다. 아이의 울음은 인생의 여정서 진화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좌절과 실패, 연인과의 이별, 가족의 죽음……. 게다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고 삶에 대한 두려움은 커진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고통 속에 빠트린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끊임없이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스스로를 무겁게 억누른다.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은 '나'는 또 다른 '나'가 되려고 안간힘 쓰며 때로는 무기력과 분노를 오가며 지쳐간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을 마주칠 때마다 외면하거나 무시한다. 과장된 긍정이나 잘못된 종교에 빠지기도 한다. 술과 게임, 스마트폰, 쇼핑, TV 시청 등에 과도하게 정신을 쏟기도 한다. 천천히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릇된 감정이나 습관에 빠지는 것을 쵸 c트룽파는 '저물어가는 태양'에 몸을 맡기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저무는 태양빛은 반짝거리지만 곧 어둠을 불러오는 부정의 빛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다. 떠오르는 태양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그들은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본다. 두려움은 무엇인가, 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가, 두려움은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들처럼 '두려움'을 마주보겠다는 용기를 내는 순간, 두려움은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삶의 극적인 요소가 된다. 이 책은 떠오르는 태양을 안고 살아가는 법에 관한 책이다. 저물어가는 태양과 떠오르는 태양,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 책서 다루는 '샴발라 수행'은 쵸 c트룽파가 1970년대 불교 명상수행을 소개하고자 만든 수행 프로그램이다. 샴발라는 히말라야 고산의 전설적인 샴발라 왕국서 가져온 말로 이상 세계를 뜻한다. 내 안의 참본성을 깨달으면 나를 이해하고 남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한편 샴발라 수행은 불교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종교에 의지하지 않는 개인적인 깨달음을 추구한다. 종파를 초월한 수행법이다. 지

샴발라 수행, 저자 1970년대 만든 프로그램
불교에 바탕을 둔 초종교적인 명상수행법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행자 '전사'라 칭해
저자 "우리는 모두 각자 삶과 싸우는 전사"

금 우리 주위에도 이와 비슷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적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행이 종교 안에서 깨달음을 찾았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 안에서 길을 찾고 있다. 이 책은 혼자서 또는 명상이나 수행 모임 등을 통해 길을 찾고 깨어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겪는 과정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혼자서 마음 수행의 길을 가는 여정 내내 일어나는 '두려움'을 핵심적으로 다룬다. 두려움 극복이야말로 인간의 자유와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행자를 '전사(warrior)'라고 부른다. 보통 '전사'라 하면 전쟁터서 싸우는 사람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사란 '용기 있는 사람', 즉 자기 내면과 마주하면서 '작은 자아'에 굴복치 않고 꿋꿋이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내면의 적과 맞서는 사람, 본질인 자신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의심과 두려움을 넘어서 가는 사람이 바로 전사이다. 전사가 길을 가는 여정에는 단호함과 명료함 등이 필요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전사의 무기는 연약함과 관대함이며, 전사가 이르게 되는 목적지는 나를 허용하고 긍정하며 자신을 나눠 주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즉 티베트 용어로 말하면, 내면의 빛 또는 공(空)의 상태인 아셰(Ashe)를 만나 삶의 활력과 건강성을 되찾아 긍정적 상태가 되는 '바람의 말' 룽타(lungta)의 등에 올라타게 되기까지가 전사의 여정이며, 이 책에서 말하는 두려움과 함께하면서 미소를 짓게 되기까지의 과정이다. 그것은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것, 잃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역설적인 상태이다. 두려움 또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서 자유를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절망 또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기를 희망하는 의지를 갖게 한다. 우리가 깨어남으로써 세상이 깨어난다. 우리가 곧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깨달음의 기법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적 각성과 변화를 꿈꾸며 저물어가는 태양의 심리 상태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여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의심, 두려움, 허약함에 빠지는 순간 흔들리는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길을 나서겠다는 용기를 북돋워준다. 그 약함이야말로 강함의 증거라고 말이다. 우리가 기꺼이 약해지기로 한다면, 약함으로부터 천하무적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잃을 것이 없으면, 실패할 일이 없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없으면 두려움에 정복당할 일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내면의 용기와 믿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삶의 기쁨에 도달할 수 있다. 쵸 c트룽파는 우리 내면의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힘은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타고난 힘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불은 혼자 힘으로 활활 타오릅니다. 바람은 혼자 힘으로 스스로 붑니다. 흙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힘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이러한 힘은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쵸 c트룽파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겸손한 수행자다. 그는 이 책에서 전사로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온 에너지를 다해 설명한다. 특히, 트룽파 특유의 신비하고 감성적인 은유(왕국과 전사, 저물어가는 태양과 떠오르는 태양, 가슴 속의 달, 머릿속의 태양, 달과 바람, 들판을 달리는 말)는 일렁거리는 호수처럼 천천히 흘러들어 가슴속에 무언가가득 차오르는 충만함을 전해 준다. 직설적이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가르침이다. 이 부드러운 힘이 진정한 내면의 용기를 이끌어내는 기운과 이어져 있다. 나아가 '부드러운 마음의 용맹성'이 삶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됨을 트룽파는 강조한다. 부드러움의 연습, 기꺼이 약해지기로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큰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 큰 농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천수경을 참선수행 안목과 연결해 풀이



선으로 풀어낸 천수경
진원 풀어씀
운주사 펴냄
1만 2천원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항상 중생들을 살펴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은 한국 불교의 가장 대중적인 신앙형태이다. 그리고 관음신앙의 결정체는 천수경이다. 이 책은 믿음신앙, 타력신앙의 대표격인 천수경을, 성품을 바로 보아 돈오견성한다는 선의 안목으로 융합하여 풀어낸 독특한 해설서로, 천수경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해줄 것이다.

한국의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 중 하나인 천수경은 원래 제목이 '천수천안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으로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에 대한 찬탄과 가피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특히 천수경의 핵심이랄 수 있는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능엄주와 함께 주력수행의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 이렇게 천수경을 참선수행의 안목과 연결해 풀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이 책은, 특히 천수경의 각 내용을 역대 선사들의 법어를 중심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대표적 타력수행의 하나인 관음신앙과 자력수행의 대표격인 선(禪)의 융합을 시도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려울 때 기도를 통해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천수경의 관음신앙과 모든 외부의 힘을 부정하고 오직 자기의 본래마음을 관해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참선수행이 융합할 수 있을까? 얼핏 보면 양자는 비록 둘 다 불교의 가르침에 속하지만, 그리 쉽게 어울리기 힘들다고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저자는 단연코 자력과 타력은 다르지 않고 둘이 아닌 하나이며, 따라서 당연히 선적인 안목으로 천수경을 더욱 깊이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증명하고 있다.

예컨대 천수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정구업진언을 보자. 일반적으로 정구업진언은 입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하는 참 말씀이라는 뜻으로, 진언의 내용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진언을 외우면 입으로 지은 모든 죄가 소멸되고 맑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에 대해 과연 그럴까 라고 한 다음, 마조선사의 말을 인용한다. 즉 '경전이란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근본으로 하며 문 없는 문을 법문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은 말하는 이것이 마음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과 문자를 붙들고 씨름하며, 정작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주무르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심에 집착해 한량없는 죄업을 입으로 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인 줄 깨달을 때 비로소 입으로 짓는 모든 죄업을 소멸하고 맑게 할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어지는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역시 독송자가 단순히 입으로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를 외운다고 동서남북 중앙의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이 한마음이니 일체 중생을 부처로 바로 보는 이것이 오방내외에 있는 모든 신들을 편안케 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나머지 천수경의 경문들도 모두 이렇게 내면의 마음자리를 깨치는 참선의 안목으로 심도 있게 그 속뜻을 찾아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타력신앙을 받쳐주고 있는
근본 마음자리 주목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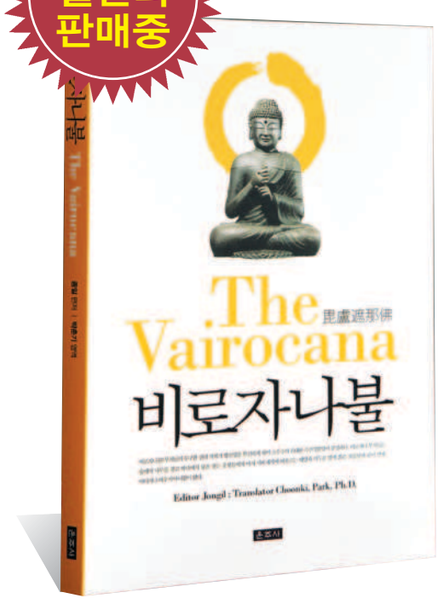
이렇듯 이 책은 대중적인 타력신앙인 천수경의 내용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적으로 풀이함으로써 타력신앙의 근저에 있으면서 타력신앙을 받쳐주는 근본 마음자리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로써 자칫 기복적으로 흐르기 쉬운 천수관음신앙을 진정한 신앙이 되도록 이끈다.

동북아시아의 대승불교가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한국불교에서는 불보살에 대한 타력신앙과 화두로 대표되는 참선이란 자력수행의 두 흐름이 꾸준히 공존해 왔다. 그런데 흔히들 불보살에 대한 타력신앙은 대중적이고 하열하며, 참선은 상근기가 하는 뛰어난 수행이라는 편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책은 타력신앙의 대표적 경전 중 하나인 천수경을 선적으로 풀이함으로써 자력 속에 타력이 깃들어 있고, 타력 속에 자력이 기반하고 있어 양자가 둘이 아니라 끝내는 성불이라는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는 불교 가르침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잘 드러낸다. 김주일 기자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실외 양초 공양집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참 불자를 위한 성불로 가는 지침서
종일 스님의 비로자나불
21C 3대 과제 : ①인간과 자연의 화해 ②종교 간의 화해 ③지식과 삶의 화해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종일 편저 박춘기 영역
193쪽 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The Vairocana 毘盧遮那佛
나무 암밤람함캄 청정법신 대교주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무구한 진리 자체가 법신임을 확신하게 하며 소우주의 위대한 즉신성불임이 분명하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숲에서 나무를 찾고 바다에서 물을 찾는 중생들에게 마치 사바세계에 떠오르는 태양과 어두운 밤에 밝은 보름달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네 삶이 영원히 나고 죽음에 벗어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이치인가! - 불교TV 회장 석성우 스님의 추천사 中
■ 구입문의 : 도서출판 운주사 02-3672-7181

기쁨 주는 삶을 위한 행복 설명서

마음에 대해 무닌드라에게 물어보라

미르카 크네스터 지음 | 류시화 옮김
연금술사 펴냄 | 1만 6천원



추구의 길서 아름다운 스승을 만난 이는 행복하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일생을 추구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한히 열려 있는 사람, 스스로를 구루나 스승이라고 여긴 적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소박한 거처의 문을 열어 놓은 사람, 스승인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제자들이 진리에 헌신하기를 원한 사람, 삶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유머가 넘치고 너무 자주 웃어 어린아이처럼 보인 사람, 가식이 전혀 없어 그 앞에선 우리 자신도 꾸밀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나 근원적인 의문을 느꼈을 때 맨 먼저 찾아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 자연스러운 기쁨을 강조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깨어 있으라고 가르친 사람, 미소 지으며 생을 마친 사람……. 이 책은 그런 스승을 만나러 떠나는 특별한 여행이다. 그는 우리에게 '이 생을 충만하게 살라' 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이 책의 원제는 〈Living This Life Fully〉이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명상 분야와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 미국 최초의 위빠사나 명상 교사들이며 통찰 명상 협회를 공동 설립한 조지프 골드스타인과 잭 콘필드. 탁월한 자애 명상 교사로 전 세계를 돌며 학교와 기업체와 수행 공동체들에서 명상을 지도하는 샤론 샐즈버그, 감성지능 EQ 개념을 만들어 IQ보다 EQ가 중요하다고 역설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 세계적인 심리학자 대니얼 골먼, 하버드대 교수를 하다가 인도 여행 후 미국 젊은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람 다스, 만성적 고통과 스트레스 관련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마음챙김 명상을 적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심리학자 존 카밧 진……. 이들은 각자 인도를 비롯한 동양의 영적 스승들과 불교 스승들의 제자로 입문해 명상을 배웠지만, 이들에게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 이들 모두 '내 마음속의 스승은 무닌드라이다' 라고 말한다.

아나가리카 무닌드라(1915~2003)는 인도 벵골 지역 출신의 불교 스승이자 학자이며 20세기의 중요한 위빠사나 명상 스승이다. 이름 앞에 붙은 '아나가리카' 는 출가 승려와 속인의 중간 상태에 머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집 없는 자' 라는 뜻이다.

오로지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 절이나 가정, 신분과 거처를 갖지 않고 방랑 생활을 하는 실천적 불교 수행자를 의미한다. 40대에 미얀마로 가서 9년간 위빠사나 스승 마하시 사야도 밑에서 배운 그는 인도로 돌아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때는 유럽과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인도와 동양으로 향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물질주의 가치관에 환멸을 느끼고 동양의 사상과 종교 속에서 삶의 근원적인 해답을 찾고자 했다. 그들에게 무닌드라는 멘토이자 롤모델이 되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그들에게 일생의 감동을 안겨 주었다.

동서양의 수많은 이들에게 명상과 진리를 가르쳤지만 무닌드라는 자신의 절, 자신의 명상 센터, 자기 소유의 거처를 가진 적이 없었다. 다른 절, 다른 명상 센터에서 가르치고, 다른 이가 제공한 작은 공간들에서 평생을 살았다. 그가 머무는 곳, 그의 작은 방이 곧 가르침의 장소였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심지어 만난 적 없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다. 눈앞에 마주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데 온 에너지를 쏟았다. 그럼에도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을 통해 그의 가르침은 전 세계로 퍼져 가고, 그들이 쓴 수많은 명저들로 탄생했다.

누군가가 한번은 무닌드라에게 왜 명상 수행을 하는지 물었다. 제자들은 높은 수준의 대답을 기대했지만 그는 말했다. "나는 길가에서 자라는 작은 보라색 꽃들을 알아차리기 위해 수행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놓치고 지나갔을 것이다."

작은 보라색 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또한 그 꽃들을 보기를 원하게 된다. 이것은 기쁨을 서로 나누고 싶은 연민 어린 바람이다.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이 무닌드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진정한 의미에서 언제나 깨어 있었다. 순간순간의 삶을 사랑했고, 그것을 보여 주었다.

이 책에 대한 발상은 예기치 않고 불가사의하게 찾아왔다. 2000년 5월, 매사추세츠 주 베리에 있는 숲 속 명상 홀에 앉아서 저자는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한 생각이 어디선지 모르게 일어났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크게 소리 내어 묻는 것 같았다.

"누가 무닌드라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지?" 그러나 물론 홀은 완전히 고요했다.

나중에 저자는 그 질문을 노트에 적었다. 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는지 당혹스러웠지만 일단 한 달간의 집중수행을 끝냈을 때 무닌드라와 가까웠던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저자는 무닌드라가 지난해에 세상을 떠났지만 누구도 책 쓰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놀랐다. 그래서 저자는 두 권의 다른 글쓰기 계획을 옆으로 밀쳐 두고 무닌드라를 알았던 전 세계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차례로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연결되었다. 수백 가지가 넘는 구체적이고 가슴 아프고 유머가 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들은 뒤 저자는 그 개인적인 경험들뿐만 아니라 무닌드라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사람들과 나눌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게 됐다. 그것들을 한데 엮으면 무닌드라의 삶과 가르침을 전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변화를 위해 항해 중인 독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느꼈다.

그렇게 해서 미르카 크네스터는 무닌드라에게 명상을 배웠거나 만난 적 있는 전 세계 200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서 이 책을 썼다. 열여섯 개의 장 각각은 마음챙김, 관용, 자애 등과 같은 핵심 용어를 주제로 무닌드라의 가르침과 그에 대한 감동적인 일화들을 풀어 나간다. 그리고 각 장 끝에는 그 장의 주제에 해당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달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비움과 나눔의 아이콘 '사찰음식' … 스토리텔링 통해 속살 가이드

이야기를 담은 사찰 밥상

글 사진 이경애 | 아름다운 인연 펴냄 | 1만 3800원



이 책을 펼쳐 보면 큰스님의 서릿발 같은 고성을 뒤로 하고, 하하호호 봄날의 개떡잔치를 벌였던 이야기, 절대 레시피를 알려줄 수 없다 하여 집에서 끙끙대며 만든 향기로운 장떡, 고구마줄기로 만든 팔찌를 차고 깔깔거리며 만든 고구마줄기김치가 있다. 옛 맛을 떠오르게 하는 음식들을 따라 가다 보면 이 책의 특별함이 보인다. 밥상에 담긴 마음이 보이는 것이다. 사찰음식을 통해 익숙한 맛과 당연하게 여겼던 밥상을 벗어나 보자. 낯설고 신선한 만남의 기회가 된다. 이 책은 단순히 음식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밥상에 담긴 마음을 읽고 독자에게 들려준다. 자연스럽게 독자는 사찰 밥상을 통해 한 그릇의 밥과 소박한 반찬이 전달하는 마음을 잊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수 있다. 한 그릇의 밥에 담긴 마음을 읽는 것, 어쩌면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점일지도 모른다.

서울 북촌생활사박물관 이경애 관장은 타고난 입담꾼이다. 그는 북촌의 옛것이 가진 가치를 알아채고, 이를 통해 스토리텔링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다. 기존의 사찰음식에 책들이 레시피 전달과 사찰음식의 건강함에 대해 다뤘다면 맛깔스러운 이야기꾼 이경애 관장의 시선은 색다르다. 그는 오래된 것들을 바라보는 특별한 눈과 입을 가진 사람이라, 과거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먹던 음식에 대한 추억을 속살거려주고, 자연스럽게 선조들의 지혜를 짚어 준다. 더불어 더 좋은 맛을 찾아다니는 시류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놓기도 한다. 사찰음식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한 그리움이 있고, 어린 시절 동네 골목에서 맡았던 냄새가 느껴지는 이유다.

다양한 식재료와 간편한 조리법이 넘치는 지금, 〈이야기를 담은 사찰 밥상〉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이야기를 통해 특별한 감동을 선사해 줄 것이다.

사찰음식을 만들려면 손품이 많이 든다. 우선 재료를 구하기 어렵고, 조리과정도 만만찮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정성을 기울여야 겨우 한 개의 반찬을 만든다. 이런 사찰음식을 매 끼니마다 해내는 공양간 속사정이 궁금하지 않은가. 저자는 세월의 흐름이 느린 사찰 공양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밥상을 대접받고, 장독을 열어 보며 스물네 가지의 기록을 꼼꼼하게 남겼다. 사찰음식에 얽힌 사연도 많다. 건강이 위태로운 노스님의 입맛을 찾기 위해 만든 장떡, 재료 준비만 삼개월 전부터 시작해야 하는 오과백미, 지리산 청정한 산골에서 꽃과 약초를 구하는 보살과의 만남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그 이야기 끝에 〈이야기를 담은 사찰 밥상〉은 옛것을 지키고, 순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에게 묻는다.

한 그릇 밥에 담긴 마음을 읽는 것
맛깔스런 이야기꾼의 특별한 시선
음식 찾아 떠난 스물 네 가지 기록

"너무 빠른 세상을 살다 보니 잊은 것도 모르고 잊는 게 많다. 밥 한 끼에 담긴 기본을 살펴 보면 정확하게 보인다. 우리가 잃은 것은 옛것을 지키는 마음이다."라고.

사찰음식에 대한 이야기이니 언뜻 보면 불교신자만을 위한 책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육류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비움과 나눔의 사찰음식을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가이드가 될 것이요, 별다른 이유 없이 건강이 나빠져 고통을 겪으며 "도대체 왜 내 몸에 이런 일이?"하는 물음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멘토가 되어 줄 것이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음식을 통해 나눔을 배우고, 스스로를 비워나간다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건강을 얻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고구마 줄기 김치

卍자에 담긴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만심(卍心)

만성 김종성 지음 | 한진출판사 펴냄 | 십만원



한 물건도 없는데 모양 없는 모양을 드러내고, 모양 없는 모양이 일정한 틀을 갖추어 움직이니 이는 보이지 않는 궤도요,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 생각 일어나기전의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만성(卍成) 스님이 쓴 〈卍心〉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하나의 문자로 하나의 부호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 卍이라고 설명한다. 부처님 몸에 새겨진 길상(吉祥) 모양으로 卍이다. 마음에 생사가 없는데 물질이 변하는 과정을 생성소멸이라 하고 이에 따라 생멸(生滅)이 있다하고 중생들의 육근(六根)의 변화를 생로병사(生老病死)라 하기에 생사(生死)가 있게 마련이다.

본래 잔여의 세계에는 허공과 같아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생멸이 없고 생사가 없다. 그래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분명 활용하고 있으니 신기 미묘한 것이다. 바로 진공묘유의 실체가 우리의 생명을, 존재의 실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는 이것을 부호나 문자로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표기할 수 있을까? 바로 卍 이다. 불전(佛典)에는 卍을 부처님의 위대한 길상(吉祥)으로 표현했을 뿐, 卍의 정확한 해설은 없다. 卍의 해설은 금번 만성 스님이 쓴 〈卍心〉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만성 스님이 쓴 〈卍心〉이 보기드문 해설서이다.

저자는 "모두가 보이지 않는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인연 따라 변화하는 모습의 뒤에 나타난 현상으로 어느 것 하나 실제 정지되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진리를 한 글자 한 부호로 이름이나 형상으로 나타나게 할 수는 없지만 卍으로는 모든 표현의 가능성이, 진리의 실상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데 卍이 위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행복과 불행. 좋고 나쁨. 괴로움과 즐거움.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관념의 틀이요. 이 관념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이는 바로 오랜 습관에서 시작되었고 깨달음에서 사라진다.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세포들이 하나의 기억인자가 되어 인지하고 있는 거대한 우주인 동시에 거대한 슈퍼컴퓨터인 것이다.

이것이 오랜 세월동안 육근(六根)을 통하여 습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때 관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념의 틀에 얽매면 좀처럼 깨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우주적인 운동이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끝이 없는 미래로 이어지는 것이 卍의 운동으로서 모든 물질과 중생의 생명 활동이 卍의 모습으로 운동하므로 이 모양을 보거나 만지고 느끼면 생명활동의 잠재성이 저 먼 과거의 세계로부터 관념에 자리 잡아 왔으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라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김주일 기자

한국불교전체
종단·단체
법인연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고려=불교’ 상식의 함정에서 벗어나자

11. 고려시대 불교, 어떻게 볼 것인가?

불교는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융성하면서 사상과 문화의 꽃을 피웠고, 성리학을 숭상한 조선시대에 들어서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식적 통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에도 불교는 많은 종교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신라나 고려시대에도 토착 신앙이 강고하게 존속하였을 뿐 아니라 유교가 상류 지식층에서 중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의 굳어진 관념으로 재단하거나 통설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다면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역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 또한 많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자기 성찰과 전환적 사고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흔히 이야기하듯이 고려를 불교국가라고 보는 것은 어떨까? 대각국사 의천과 보조 지눌을 알지 못하더라도 보통의 한국인이라면 세계기록유산인 고려대장경과 화려한 고려불화의 장엄함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답을 할 것이다. 또 조선이 개국할 때 성리학으로 무장한 신진사대부들이 고려 불교를 맹렬히 비난했다는 교과서적 지식을 기억한다면 역시 그렇다고 할 것이다.

물론 고려시대는 통일신라와 마찬가지로 불교의 전성시대였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고려가 불교를 국교로 내세운 것은 아니었고 정치는 유교 이념을 통해 운영되었으며, 대개의 고려인들은 불교뿐 아니라 무속과 도교 등도 숭신하였다. 이 점에서 고려는 불교를 숭상하였지만 덮어놓고 불교국가라고 단정하기에는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든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선 고려시대 불교의 다양한 실상과 함께 ‘불교국가’와 연결시킬 수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자.

고려는 불교국가였을까?

고려(918~1392)는 통일신라에 이어 불교를 국가 차원에서 중시하였으나 정치는 유교 이념으로 운영하여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였다. 그러면서도 교단은 관료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에 의해 편제, 관리되었다. 고려시대에 유교와 불교는 새의 두 날개와 같이 상호 공존하는 관계를 이루었고, 불교 교단이나 승려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불교의 사회적, 정치적 역할은 국가운영에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컸고 국왕과 귀족에서 일반민과 천민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서 불교를 신앙하였다. 왕족이나 문벌귀족 출신의 고승들이 다수 나왔고 대장경 조성 등 국가적 차원의 불서 집성과 출간이 이루어져 불교를 통해 문화국가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 말에 도입된 선종이 종파로서 성립하였고 고려 중기에 천태종이 개창되면서 화엄종, 법상종과 같은 기존의 교종 교단과 함께 공존하였고 후기에는 선종이 불교계의 주류가 되었다.

고려의 역대 국왕들은 기본적으로 숭불군주였는데, 불교를 신앙하면서도 불교 교단의 확대나 정치적 세력화는 경계하였다. 즉 숭불과 통제는 고려시대를 관통하는 국가와 불교 관계의 기본 구도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연등행렬 모습. 신라시대에 시작돼 고려시대에 와서 국가적 행사로 자리매김한 연등회는 현대에 와서 세계인의 문화 축제로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 2012년에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고려 왕조의 정치이념은 유교
‘崇佛’하면서도 政·敎는 분리돼

‘훈요십조’ 내용대로 왕실 주도
연등회·팔관회 등 성대히 개최
왕권 아래 불교교단 형성·운영

유교·도교도 꾸준히 지원·발전
고려 문화의 다원성 이해해야

이러한 경향은 창업자인 태조 왕건에게서 비롯되었다.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이후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는 자신이 통합시킨 후백제 지역에 개태사를 창건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원문을 지었다.

“하늘에 고하여 생민을 도탄에서 건질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위로는 부처님의 힘에 의탁하고 하늘과 신령의 위엄에 의지하여, 20여 년간 바다와 성을 공격하는 전투에서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남쪽을 치고 동쪽을 치며 방패와 창으로 베개를 삼은 끝에 마침내 백제의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죄를 뉘우쳐 새사람이 되겠다고 귀순해 온 이들은 털끝만큼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보호해 주심에 보답하고, 산신령의 도와주심을 갚으려고 특별히 불당을 창건하여 산의 이름을 천호, 절의 이름을 개태라고 하나이다. 원컨대 부처님의 위엄으로 덮어 주고 보호해 주시며, 하느님의 힘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는 통일전쟁의 승리가 부처님과 하늘과 신령의 은덕이며 불법의 도움으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불교뿐 아니라 하늘과 신령을 함께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복합적인 신앙 양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한편 태조 왕건은 후대 국왕들의 국정운영에 기본 지침이 된 ‘훈요십조’를 남겼는데 이 중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1조에서는 “우리나라의 왕업은 여러 부처님들이 보호해 주시는 가피를 입었다. 그러므로 선종과 교종의 절을 짓고 주지를 뽑아 보내어 그 업을 닦게 하라”고 하였고, 2조는 “도선이 터를 잡아 정한 곳 이외에 절을 함부로 짓는다면 지덕을 손상시켜 왕업이 길지 못할 것이다. 신라 말에 다투어 절을 지어 지덕을 손상시켜서 망함에 이르렀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5조에서 “연등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천령, 오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불법을 숭상할 것과 절을 지어 땅의 기운을 보완하는 비보사찰을 보호할 것, 연등회와 팔관회를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사찰을 새로 지나치게 많이 짓는 것을 금하는 등 교단 및 사찰의 비대화, 권력화를 경계하였다.

숭불왕조와 연등회·팔관회

‘훈요십조’에 나오는 연등회와 팔관회는 태조의 유훈대로 국가의례로서 국왕의 주도 하에 매년 성대하게 치러졌다. 즉 연등회와 팔관회는 고려의 ‘불교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국가적 의식이었다.

연등을 밝히고 음악과 춤, 연극을 행하는 연등회는 음력 1월 15일이나 2월 15일에 개경과 지방 중심지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틀간 치러진 연등회는 불교행사이면서 동시에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을 기리는 국가 차원의 의례였고, 고려 국왕과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인하고 과시하는 자리였다. 다만 원간섭기 이후에는 1, 2월의 상원 연등회 대신 석가탄신일을 기리는 사월초파일 연등회가 유행하였고 이후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연등회의 설행방식을 보면, 첫날인 14일에는 국왕이 왕족, 귀족들과 함께 궁궐에서 열린 음악 및 가무행사에 참석한 후 개경 남쪽 태조의 진전사원인 봉은사에 행차하였는데, 이때 장엄한 행렬을 통해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국왕은 봉은사에서 태조 영정에 절을 하고 제사를 올려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개창한 태조의 위업을 기렸다. 저녁에는 궁중에서 등석연이 펼쳐졌는데 휘황찬란한 연등 밑에서 악기가 연주되고 신하들은 시를 지어 바쳤다. 백성들 또한 관등놀이를 즐겼는데 이날 밤은 도성 내의 통행이 허가되어 밤새도록 축제가 이어졌다. 다음 날에는 군신이 함께 공연을 보고 차와 술을 권하면서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본격적인 연회가 펼쳐졌다.

팔관회는 서경, 즉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서 10월 15일, 개경에서 11월 15일에 열렸다. 팔관회는 전통적인 명산대천과 용신 등에 대한 제사, 제천의식 및 불교의례가 접목된 행사로서, 불교의 반승의식과 함께 고대의 수확제, 토착 신앙이 결합된 축제의 성격을 가졌다. 또한 팔관회는 고려와 국왕의 위상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군신 간의 위계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팔관회는 전쟁 등의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설행일자를 반드시 지켰을 정도로 고려의 중요한 국가의례로서 치러졌다.

팔관회 때는 첫날에 수천 명의 군인들이 깃발과 무기를 들고 도열한 가운데 국왕이 의봉루에 행차하여 태조의 영령에 작헌례를 올리며 시작을 알렸다. 이후 궁궐에서 신하들이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였고 국왕은 음식과 술을 하사하며 흥겨운 연회를 베풀었다. 다음날에도 국왕이 의봉루에서 신료들과 함께 작헌례를 행하고 외국에서 온 축하사절단을 맞이하여 진상을 받았다. 황제의 격식을 갖추어 치러진 팔관회는 지방관과 외국 상인 및 사절단이 고려 국왕에게 축하의 글과 예물을 바치고 그에 대한 하사품을 내리는 대연회가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왕권의 불교 숭앙 이면의 것들

이처럼 불교는 역대 국왕들의 숭앙을 받고 국가 차원의 불교의례가 행해졌는데, 고려시대 국가와 불교의 관계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교단의 관리 및 운영 체제였다. 고려는 관료체제와 동일하게 승정제도를 운영하여 정치와 종교의 이원체제를 갖추었다. 즉 불교 교단을 담당하는 관서로서 승록사를 두어 승적을 관리하였고 왕명에 의한 고승의 탑비 건립, 사찰과 승려 관련 행정업무의 처리 등 제반 승정을 다루었다.

또 관료 선발시험인 과거제와 마찬가지로 학식을 갖춘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제를 운영하였다. 승과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승과에 합격한 승려에게는 승계가 수여되었고 그에 따른 승직이 주어졌다. 주요사찰의 주지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계가 있어야 했다.

승계는 승과 합격 후 대덕-대사-중대사-삼중대사의 순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는 교종의 경우 수좌-승통, 선종은 선사-대선사의 최고위 승계를 받았다. 이처럼 승적 관리, 승과 시행, 승계와 승직의 부여와 같은 인사체계와 교단 행정, 공과에 대한 대우와 처벌 등 제반규정을 관료체제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또한 승과와 함께 고려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왕사, 국사 제도를 들 수 있다. 왕사와 국사는 국왕의 스승으로서 국왕에 의해 예우 되었고 국가의 정신적, 종교적 스승으로 받들어졌다. 이는 국왕이 정치와 종교를 함께 관할하는 이원적 체제에서 고승을 명목상 국왕의 상위에 두어 불교 교단의 정치적 자립과 독립성을 상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왕사와 국사의 최종 임명권은 국왕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불교 교단이 역시 세속의 왕권 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고려는 단순한 불교국가가 아니다

이제 시야를 고려사회 전체로 돌리면, 불교는 다양한 계층에서 신앙되고 지지를 받았다. 국왕과 왕실은 1만 명에 달하는 승려들을 초빙하는 대규모의 반승 행사를 열어 공양하기도 하였고 원찰을 두었으며 국왕과 왕비의 영정을 봉안하고 제사 지내는 진전이 주요 사원에 설립되었다.

또 의천과 같이 왕족 출신의 고위 승려가 배출되고 귀족 자제들 중에서도 관례적으로 많은 출가자가 나옴에 따라 승려의 사회적 위상 또한 매우 높았다. 귀족 및 관료층의 경우 은퇴 후 사원에서 여생을 보내거나 화장, 납골과 같은 불교식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반민들도 민간신앙과 함께 불교를 숭신하였고 각 지역의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신앙결사공동체인 향도가 조직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양상을 보면 고려는 불교국가의 모습과 가까웠다. 하지만 정치이념은 유교였고 도교의 경우도 도관이 설치되고 관단화가 이루어지는 등 국가의 지원 및 관리를 받았으며, 사회 일반에서도 무속과 풍수지리설 등이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고려인들은 불보살뿐 아니라 각지의 영험 있는 신들을 찾아가 복을 빌었고, 이러한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이야말로 고려시대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그럼에도 고려를 불교국가로만 한정한다면 고려가 가진 다원성과 복합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또 굳이 불교국가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고려시대 불교가 가진 저력이나 위상이 결코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국가와 불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고 불교는 국가권력의 간섭과 세속화의 용광로 속에서 2천년 동안이나 존속해 왔다. 문제는 참된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지, 국가의 후원이나 통제, 국가에 대한 불교의 기여를 더 이상 금과옥조의 역사적 기억으로 회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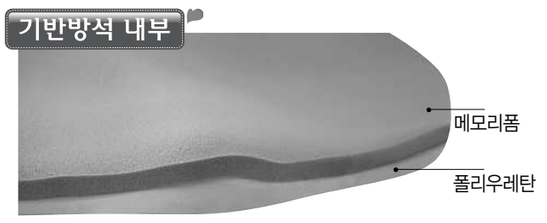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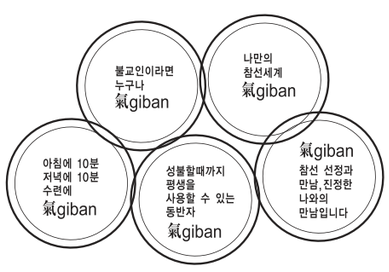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식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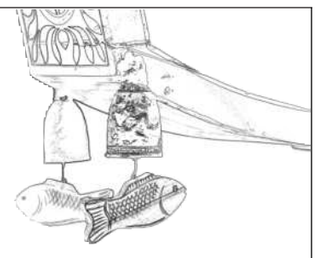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달빛이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추위의 괴로움을 더해 주듯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고정된 모습이 없다네.

- 불소행찬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호적,
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약사여래불사 권선문

약사여래 부처님은 왜 해야 하는가? 약사여래 부처님은 모든 장애와 두려움과 곤란을 없애주시고 모든 나쁜 질병과 고통을 없애주시며 모든 좋은 일을 소원성취시켜주시는 신비한 부처님이시다.
성원사 (제주시 도련길 66)
064-783-2092, 010-9267-2092,
011-699-2616
우체국 510446-01-000934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관상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얼굴손금만봐도어떤질병이있는지한눈에알수있다
암질병산소문제재판,가족,교통사고운을 알 수 있다
- 관상, 손금, 성명학, 타로, 사주 (개인지도, 단체)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책 출간 (판매 중)

010-4014-8822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미륵불 (대형)

석가모니 불상
알림
010-4630-8005

인 연 명 리

삶은 인연생, 인연멸입니다!
· 영가 찾고 보는 법 / 매화역수, 속성반 모집
· 명리기초반 (10월 개강)
· 명리 통변반 (현재 강의 중)
* 지금 내앞에 있는 인연이 가장 소중합니다!!
정인스님 010-4047-0134
(서울 광진구)

명리첩경의 저자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 분
010-3054-3345
전화 상담환영

문하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 : 스님,학생 (회비없음,무료지도)
- 강사 : 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대구길상사 주지
- 주소 : 대구중구대봉2동 744-21
- 문의 : 삼소정 서예문인화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대전, 60-70대, 부부환영)
010-5209-7420

비구니 스님 구함

비구 노스님 시봉하면서
암자 관리할 40대,50대
비구니스님 구함
차후에 다 물려줌
010-8598-4193
경북 상주

49재, 천도재, 점안식

영혼천도를 잘하는 스님이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작법무,회심곡,살풀이)
최고의 의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010-5482-2091

스님이 사고없이 잘
관리하고 사용하였던
2007년식 회색 현대자동차
아반테 차입니다
스님 및 불자님께 저렴하게
드릴 인연을 찾습니다
인허스님 합장
010-4026-5810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불교무용 특별지도

바라춤,극락무,나비춤,
살풀이,법고,승무 등
30년 경험 선생 직접지도
수강료 : 십만원/월(선착순)
010-3711-5072
부산 서면역 부근 반야선원

광고달력 주문

단일종류, 광고배포용
1부 1500원, 전화접수
경기 오산시 오산로 62번길 8
031-373-1120 (오후 6~8)
등산 포교선원 다르마 사업부

비법 중의 비법

-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법왕불교대학 관불사 안내

- 불교법사과 : 6개 속성과정
- 불교사미과 : 1년 종합과정
- 유발승려과 : 1년 종합과정
- 불교승려과 : 2년 종합과정

큰스님 특별친견
-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
- 부부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 매매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장산로 13길 82
연락처 : 02)963-0607 / H.P : 010-3329-113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최면과 기공술을 특별 전수합니다

대한불교약사불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오
010-9229-3801

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6-7075



빙의치료 전문사찰
화 엄 선 원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생길 것이요,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 곧 깨달음이 생길 것이다.
- 불반니원경-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2,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1,650평
- 가액 : 10억 5천인수(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경주시 급 양도 사찰
- 청정계곡 접 토지 약 6400㎡
- 기와단청법당.단청산신각.지장전.요사채
- 양도금액 : 9억(융자 5억 있음)
- 실인수가액 4억. 주변산세 좋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7호선 사가정역 근처
- 평수 : 4층 54평, 방4개, 내부화장실 2개
- 보증금 : 3,000만원 월 임대료 130만원
- 시설비 별도. 상담 후 결정
(법당 집기류외, 에어컨 2대, 냉장고 2대 TV 등 기타 모든 집기류 포함)
- 기존 신도가 있으니 몸만 오셔서 법회 보시면 됩니다

010-7144-0066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군 유곡면
- 사찰 800평, 요사채 50평
- 창고 9평, 법당 20평, 삼신각 7평
- 경관 좋음, 남향, 넓은 주차장
- 가액 : 2억 4천 5백만원

055)583-9635
010-8676-963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경기
◎ 대지:170평 ◎ 종교용지:1300평
◎ 법당:50평 ◎ 법당:50평, 요사:100평
◎ 요사:100평 ◎ 차량진입,경관수려
◎ 양도:20억원 ◎ 양도:16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단양시토굴 암자 급 양도
* 요사채 80㎡, 토지 4500㎡. 과실수 있음
* 뒷편은 산이고 전망좋은 토굴겸암자
* 양도가 : 2억 7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송추계곡 근방
- 2층 건물 중 2층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백만원
- 시설비 : 추후 결정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면지역
- 대지 : 120평, 전 390평
- 법당 : 목조 13평
- 요사채 : 26평, 종무소 6평, 산신각
- 가액 : 1억 8천만원

010-9231-6825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 매각(가격 협의)

010-5097-346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사천시내 5분거리
- 대지 175평, 법당 13평
- 요사채,방2개,주방1,거실
- 양도가 : 7천 8백만원 시설비 500만원

055-833-5769
010-8503-576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논산시
- 목조법당 42㎡, 목조 공양간 40㎡, 스님실 8㎡ 요사 50㎡, 토지 400㎡
- 논산 IC 부근 마을 주변 조용하고 깨끗함
- 가액 : 1억 2천만원 (3천 4백만원 융자있음)

010-9918-7937

사 찰 안 내
- 유동인구 많은 안산시내 위치좋은 역세권 큰길 대로변, 전철, 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 4층 전체(엘리베이터, 옥상포함), 실평수 60평
- 법당, 요사채, 상담실, 주방, 욕실, 다용도 주거겸용 쾌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90만원 시설비 2,800(가격절충 가능)
- 절살림 준비 잘되어있어 바로 여법하게 법회가능
- 단골 신도 포교하기 유리한 최적지

010-5913-7239 일연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해 김수로왕능과 공원사이 (김수로왕능이 한눈에 보이는 전경)
- 평수 : 2층 50평(상가건물)
- 시설 : 포교당 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3628-1156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아미타, 지장, 관음, 삼존불, 소불, 인등, 연등, 후불탱화
-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일부 보시함 약 40평
- 가액 : 시설비 5백만원, 절충가능 전세금 삼백만원에 월세 오십만원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랍니다 명리, 철학 호 조건

010-4609-4377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 가액 : 6억 8천만원(1억8천 융자)

010-6898-911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용호동 (230평)
- 건물 : 5층 건물중 5층, 엘리베이터사용
- 구조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지장단 방 5칸, 공양간, 종무실
- 가액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 시설비 3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10-6369-225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 관음전, 종각
- 요사채, 방 총13칸, 공양간, 창고, 차고 외 부하장실 등등 건물 총 13동
- 대형버스주차장, 소형차주차장 등
- 가액 : 3억 9천만원

010-4628-5699
스님 건강 문제로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3층 건물중 2층, 같은 3층(60평)
- 종무실1, 방2, 화장실2, 욕실1, 후원(상태 깨끗합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99만원 (관리비 없음) 시설비 3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02)993-0399
010-5205-0118

농가주택(토굴)
- 위치 : 경기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 건물 2동
- 가액 : 4천 5백만원
- 문중땅이며 건물만
- 건물 등기 있음

010-9849-7727
덕산 합장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 사 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명당 터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가액: 21억

010-9567-0813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아늑한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 백운산 자락 (진월IC 20분거리)
- 대지 200평 / 차량진입 가능 건물 10평(ALC건축)
- 전기/지하수 및 옹달샘/정화조 구축
- 주변 인가 없고 전망 최고
- 더 가꾸고 싶은 욕심이 나서 처리함
- 가액 : 4천5백 만원(조절가능)

010-6633-2687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54-283-6293
010-4606-7253

토굴 겸 임법당
- 건물 22평, 실제 30평 이상됨
- 대지 129평, 정남향
- 방3개, 주방1, 화장실 1
- 삼존불, 탱화, 관음소불 100불
- 조용한 시골 홀로 정진하기 좋은곳
- 노스님 시봉관계로 급 안내
- 꼭 하실분만 전화
- 가전집기 일체 양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5,500만원 (대출 안됨)

010-4323-3579

포교원 안내
- 위치 : 진주시 미천면
- 대지 440평, 법당 15평, 요사채
- 공양간 20평,
- 산세 아주좋음
- 비구니 스님 계시기 좋은곳
- 가액 : 1억 6천(부동산 사절)

010-9800-75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164-1
- 대지 201평, 전129평, 임야 137평 총 467평
- 정남향, 교통, 전망좋음
- 인법당1, 방2, 욕실1, 주방1 창고 옥외 화장실 있음
- 가액 : 1억 5천

010-7521-085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4차선도로
- 4층건물중 3층, 62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 모든시설비 2천만원
- 특징 : 포교당 최고의위치
- 현재법회중(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716-3811

좋 은 토 굴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에 위치
- 산 좋고 물 좋은 명당의 터 훌륭한 경치, 넓은 정원, 조용한 마을
- 약 570평, 집4채, 정자 포함
- 전통가옥과 현대식 인테리어~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010-3572-15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대웅전, 산신각, 영각, 문화재 3층석탑, 요사체 전체 12000평
- 보증금 1억 3천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2262-0001
010-2262-565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부근
- 대지 324평, 법당 34평
- 삼성각 6평(목조)
- 요사채 1, 2층 100평(목조)
- 사용할 수 있는 땅 1,200평
- 가액 : 20억

010-4069-7723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안락동
- 평수 약 50평, 방2, 부엌, 욕실
- 4층 중 3층. 삼존불, 소불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개원한지 1년, 본찰 업무상 관계로

010-4541-1140
051)532-114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5억8천만원 (대출 2억8천 안고 양도금액 3억)

010-5019-538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부시장 경남 양산시 중부동 429-7(2층)
- 평수 : 80평
- 대법당 삼존불 탱화
- 실내화장실 3개, 부엌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9945-2030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마음 다이어트

김대선 (명상 지도자)

〈9〉 숨 명상의 효과

단 '1% 노력' 으로 영감 얻는 법



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숨(기운)과 함께하는 숨 명상을 하다 보면 각 개인의 목표와 수련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호흡 길이와 강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자신의 건강과 심리상태에 따라서 느끼는 효과와 순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숨 명상은 맑은 기운으로 하는 숨 호흡을 통해서 가장 먼저 몸의 기운을 변화시킨다. 일상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탁해진 몸을 맑게 하는 것이다. 맑아진다는 것은 몸의 냄새가 조금씩 없어지는 것과 같다. 흔히 아이들은 젖비린내가 난다고도 한다. 성인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설탕 같은 단내, 홍역 환자에게는 깃털 같은 냄새, 지하철이나 버스에 탔을 때 주변에서 비린내와 매콤한 냄새가 나는 것은 이와 관련된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기혈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특유의 냄새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남녀의 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향을 발산하기도 한다. 숨 명상으로 기운이 맑아지면 냄새가 조금씩 없어지고 향이 나기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몸이 맑아지면서 탁한 에너지가 배출되면 천근만근이던 몸이 매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을 일반적인 운동으로 느끼는 가벼움과는 차이가 있다. 체조, 서서하는 명상, 디톡스 호흡으로 몸이 활성화되면서 몸 안의 무겁고 탁한 에너지를 배출하고, 맑은 에너지를 가득 채우면서 가벼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셋째, 전신의 기혈 순환이 촉진되면서 몸의 자율 작용이 강화된다. 긴장된 곳이 이완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두피의 비듬, 발의 무좀이 점차 사라진다. 피부 질환도 조금씩 좋아진다.

넷째, 강한 디톡스 호흡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유독가스로 인해서 코의 안쪽에 있는 비강과 부비동에 심한 자극을 받아 축농증과 비염을 자주 앓는다. 코막힘 현상으로 미세먼지가 입을 통해 폐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관지에 염증을 발생시키고, 입 냄새를 유발한다. 폐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혈액 속으로 들어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세포들의 염증을 발생시킨다. 디톡스 호흡을 하면 폐의 강한 호흡을 통해 발생하는 압력 차이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 속에 녹아 있는 유해 가스를 배출한다.

다섯째, 기혈 순환이 촉진되면서 몸의 감각 기능이 회복된다. 인체의 감각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초정밀 기계의 센서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먼지가 끼면 불량이 발생하듯이 탁한 에너지가 발생하면 감각 저하가 발생한다. 몸이 맑아지면 감각 기능이 과거보다 좋아진다. 특히 온몸으로 느끼는 감각이 강화됨을 알게 된다.

여섯째, 몸의 유연성이 증대된다. 유연성을 강화하는 서서 하는 명상과 체조를 통해 몸의 유연성이 향상된다.

일곱째, 입으로 호흡을 하던 습관이 코로 호흡할 수 있도록 점차 바뀌면서 몸의 치유력이 강화된다. 스트레스는 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세포의 치유와 회복을 지연시킨다. 스트레스와 같은 탁한 에너지가 배출되면 세포의 자연치유력이 향상된다. 명상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산화질소의 활성화로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일산화질소의 효과는 신경전달물질의 기능을 도와 플라시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의 생성을 촉진하여 쾌감과 안정감을 준다.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병과 뇌졸중

호흡이 기운 맑혀 몸 냄새 없애
운동 후 느낀 가벼움과 차이
호흡기 · 감각기 · 치유력에 효능

예방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남성 성기능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여성의 폐경 후 우울증 개선에도 일산화질소가 긍정적 영향을 준다.

여덟째, 깊은 호흡으로 몸속 산소가 충만해지고,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서 피부가 젊어지고 깨끗하게 바뀐다. 복부의 수축과 팽창 운동을 통해 복부가 따듯하게 되면서 장운동이 활발해진다. 산소 부족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깊은 호흡이 이에 큰 도움을 준다.

영감과 창의력의 공통점=비움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의문과 그에 따른 문제가 존재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명상과 사회 문제 해결 절차의 차이는 단 한가지다. 명상에서는 날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날숨을 쉬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비우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대책 회의를 할 때,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를 하자' 고 말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 각각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비우는 행위' 를 사실상 경험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우는 행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유는 망각에 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행동과 사건을 망각하며 살아가는데 이를 가지고 생각을 비웠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체나 조직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찾는 것에서 난항을 겪을 때가 많다. 이 상황에서 '비우는 행위' 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뿌리를 제거하는 데서 시작된다. 고정관념이나 기존 질서에 기대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디어 또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한다면 먼저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된다. 이때 날숨을 하면서 모든 생각과 감정, 지식을 다 밖으로 내보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날숨으로 그것을 몸 밖으로 밀어낸다는 의식을 가진다. 중간 중간에 좋은 아이디어와 영감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호흡과 함께 버리는 의식에 집중한다. 최소 5분에서 여유가 있으면 30분 정도 날숨 위주의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잡념을 비울 수 있다.

호흡을 하면서 비우는 방법 외에 절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방법도 좋다. 절은 자신을 비우고 낮춘다는 의미가 있는 수행이다. 때문에 고민이 있을 때 절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마음이 비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날숨으로 충분히 비워진 다음 필요한 아이디어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 하고 마음속으로 물어본다. 이때 떠오르는 생각을 3~5회 정도 추가로 비우면 필요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처음에는 생소할 수 있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나는 글을 쓸 때 막히면 잠시 멈추고 충분히 호흡을 하면서 '비우기' 를 한 뒤 다시 펜을 든다. 그러면 억지로 생각을 짜내지 않아도 이전보다 쉽게 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명상을 하면서 바로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일까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버리기' 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생각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범주의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 자신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과 가지고 있던 지식, 문제에 대한 생각들은 잡념일 뿐이다. 날숨으로 내면을 비워야 새로운 생각과 영감이 그 빈틈에 떠오를 수 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삼천포에 빠질 수도 있고, 원하는 답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핵심은 먼저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다. 비운다는 것은 필터를 통해 뿌연 흙탕물을 정화하여 맑은 물로 바꾸는 것과 같다. 이렇듯 비우기를 잘 활용하면 넘치던 생각과 감정의 잡념을 정화하여 평소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내 문제' 를 '네 문제' 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문제의 원인을 주변과 타인에게 찾으면 찾을수록 문제는 더욱 커진다. 해결책은 오리무중에 빠져 버릴 수 있다. 오히려 '모든 문제의 발단이 나로부터 시작되며, 모든 것이 내 탓' 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면,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영감과 노력은 99:1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인간 중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50% 내외라는 내용을 본 적이

망각을 '비웠다' 고 착각
근본원인 찾아내 제거하면
고정관념 탈피 영감 떠올라

있다. 나머지 50%는 상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그래, 상상해야지' 하는 생각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방식이 경직되어 있을수록 상상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선배에게서 사고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동물 다큐멘터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무리의 원숭이 집단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를 학습시키는 내용이었다. 원숭이 집단이기 때문에 늙은 대장(수컷) 원숭이, 늙은 암컷 원숭이, 새끼 원숭이, 총각 원숭이, 처녀 원숭이 등 많은 원숭이가 가족을 이루며 주연배우로 출연한다. 이들은 모래 위에 떨어진 과일을 먹고 사는데, 문제는 모래가 묻어 있으면 먹지를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날 과학자가 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주워서 물에 씻어 먹는 모습을 몇 번 보여 주었다. 어떤 원숭이들은 이것을 따라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과연 어떤 원숭이가 가장 빨리 따라 하고 어떤 원숭이가 끝까지 따라하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대장 원숭이가 아닌 처녀 원숭이가 가장 먼저 따라 하고, 다음이 처녀 원숭이의 친구 원숭이 순으로 따라 했다고 한다. 끝까지 따라 하지 않은 원숭이는 대장인 '늙은 수컷 원숭이' 였다는 것이다.

위 내용을 '101마리 원숭이' 법칙이라 하는데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자신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원숭이 사례를 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어떻게 하면 상상을 잘할 수 있을까? 애플의 전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명상에서 얻은 영감으로 아이폰을 구상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영감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을 상품화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따른다.

'창작의 고통' 이라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계속 창작을 하는 이유는 결과물이 주는 기쁨에 중독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발명가 에디슨은 '99%노력과 1%의 영감이 성공의 비결' 이라는 말을 했다. 그럼 영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떠오르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우연처럼 어떤 생각이 다가와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어떤 생각에 몰두하다가 잠시 비몽사몽 조는 순간이 있다. 이때 어떤 생각 하나가 떠오르면서 실마리를 찾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사례가 바로 영감이다. 그래서 에디슨은 1%의 영감이라 했지만 명상에서는 그 반대로 1%의 노력과 99%의 영감이라고 말한다.

영감을 파장이라고 하는데 1%의 노력으로 파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다. 생각과 마음으로 비우겠다고 해서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생각을 비우는 방법으로 호흡을 사용한다. 호흡(呼吸)의 호(呼)는 날숨을 의미하고, 흡(吸)은 들숨이다. 명상에서는 아랫배로 하는 호흡이 가장 빠르게 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준다. 내 안에서 보내는 것은 비우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채우는 것이다.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는 날숨으로 먼저 안에 있는 것을 비우고, 들숨으로 채우면 된다. 날숨과 들숨에 주의를 기울이고 호흡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마음 다이어트〉(책나무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한불교 선학원 관음사
• 법명 : 성조 (김종숙)
• 주소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부적기름의 혁명

松송 根근 油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세요



형제끼리 다투지 않고 아끼겠어요

I will not fight with my siblings. We will take care of each other and help one another.

허난설헌(1563~1589년)은 조선시대의 여자 시인입니다. 이름은 초희이고, 난설헌은 호입니다. 〈홍길동전〉을 쓴 허균(1569~1618년)과는 남매 사이입니다. 둘 다 뛰어난 문학작품을 남긴 남매 문학가인 셈입니다.

허난설헌과 허균은 우애가 좋았습니다. 허균은 누나가 지은 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허난설헌의 시를 가져가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허난설헌이 아이를 모두 잃고 고통 속에서 살다 세상을 떠나자 누나의 시를 모아 시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허난설헌, 허균 남매처럼 같은 일에서 두각을 보인 형제들이 많습니다.

독일의 그림 형제는 전국의 전설과 민담을 모아서 그림 동화집을 엮었습니다. 유화를 발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얀 반 아이크도 형과 화가로 활동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반 고흐는 외롭고 힘들 때마다 동생인 테오 반 고흐와 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빈센트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는 무려 700통이 넘습니다.

세상의 모든 형제, 자매가 이들처럼 사이좋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자처럼 느껴서 서로를 비교하고 시기하고 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는 대립하는 사이가 아니라 우애를 지키며 서로 돕는 사이여야 합니다.

* 형제나 자매가 미울 때, 또는 고마울 때는 언제인가요?
* 형제, 자매와 어떤 이유 때문에 다투나요?
*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몸과 마음을 돌보며 즐겁게 공부하겠어요

In my family, my job is to take care of my mind and body, and to try my best in school.

조선시대 한석봉(1543~1605년)은 붓글씨를 잘 쓴 명필가로 유명합니다. 국가의 여러 문서와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도맡아 쓸 정도였습니다. 한석봉이 명필가가 된 데에는 어머니의 힘이 컸습니다.

한석봉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떡장사를 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살림살이가 빠듯했지만 아들을 위해 비싼 종이와 붓을 사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해에 아들을 절로 보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라는 배려였습니다. 어머니는 앞으로 3년 동안 집 생각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어찌 지내시는지 궁금했던 한석봉은 1년 만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석봉을 앉혀놓고 글씨를 시험해 보겠다며 불을 껐습니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 보아라."

어둠 속에서 쓴 석봉의 글씨는 괴발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썬 떡은 가지런했습니다. 석봉은 그제야 자기가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어린이의 가장 큰 역할을 건강하게 자라며 즐겁게 공부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한석봉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나요? 잘 못하고 있으면 그 이유를 말해 보아요.





집안일을 열심히 돕겠어요

I will help out when we are cleaning the house.

가정에서 어린이의 역할은 건강하게 자라며 즐겁게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오로지 공부만 하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생활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가 나누어 맡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안일을 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학교 성적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가족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서 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집안일은 결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배려하고 남에게 베푸는 마음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집안일이라고 해서 꼭 어머니가 하시는 설거지나 빨래 같은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물건 정리로 시작하여 신발 정리, 우편함 살펴보기, 문 앞에 붙은 전단지 떼기, 거실에 떨어진 물건 제자리에 놓기처럼 작은 관심으로 할 수 있는 집안일도 아주 많습니다.

* 여러분은 집안일을 자주 하는 편인가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 집안일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이 부모님 입장이라면 자녀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을까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경을 대본 없이 즉설로 강의하는
진귀의 화엄경 강좌




대상 : 비구, 비구니, 불교대학을 졸업한 재가불자
1학년(약사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2시간)
2학년(비로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2년 4학기 과정이며 수료증서 수여및 해외 성지순례 동행
수업료는 한학기당(6개월) 30만원 임

진귀스님의 화엄경 수행의
가피로 사람들의 몸과 1m이상
떨어진곳에서 마주앉아
차만 마셔도 절을 전혀 못하는
노보살이 절을 삼배하는
기적같은 일들이 강원에서는
누구나 체험 하게됩니다.

■ 진귀 수행자와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천도재와 불교적 방편 및 유사 의료행위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잔의 친견과 강의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책(15만원)은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이며 화엄경 강원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입금(15만원)을 하신후 전화로 택배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2016년 1학기 과정부터는 등록 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화엄경 강원 전화(대구) 1899~9532

불자 세상보기

막장 정치, 관심과 지적이 처방전



석 길 암
금강대 HK교수

'막말 전성시대?' '역시나 국감' 며칠간 신문 지면이며 방송사 뉴스시간을 오르내린 단골 용어이다. 국민들은 한숨만 내쉰다는 취재 아닌 취재보도가 줄을 잇고, 마침내 '국감무용론'과 '상시국감 필요성'을 언급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그럼 언론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이런 기사가 줄줄이 지면을 채우는 걸까? 쓴소리 내뱉자면, 천만에다. 때 만났을 뿐이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떡 떨어진 격이다. 무노동에 받아쓰기만 해도 읽을거리가 넘쳐난다는 이야기이다. 제발 이제는 바꾸자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하지만 특정 시점만 되면, 곧 국회만 시작되면 반복되는 일상어에 불과할 뿐이다. 언론 역시 부추기고 타성적으로 반응하는 모양새다. 그런 아수라장의 한쪽 귀퉁이에 서서 국민들은 말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쉰다. 그리고 자괴감을 느낀다. 아마도 그런 국민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막말은, 쇼맨십은 아뜩한 절망일 수밖에 없다. 제발 우리도 얼굴 들고 좀 살자는 말, 어디 남부끄러워서 살겠냐는 말이 저절로 내뱉어진다. 거기 보니까, 사람은 없고 멍멍이만 있더란다.

어느 정도까지 대변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정국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면 느낄 만하고 내뱉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신문이며 인터넷이며 여기저기서 주워 모아본 것이다. 아마 거기서 거기까지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된다.

그 막말해대고 쇼맨십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의원들은 누구 뱃속에서 나온 분들인가? 국민들의 투표권이라는 뱃속에서 나오신 분들이다. 그래서 더 거만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키우는지 생각해보자. 노랫말처럼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여가며 키운다. 조금이라도 눈을 뗄라치면 큰일이라도 날까봐 조금도 쉬지 못하고 밤낮으로 보살피며 키운다. 구순 넘은 어머니라도 칠순 넘은 아들에게 길조심 하라고 타이르는 게 바로 모정이다. 그만큼 관심과 애정으로 키우는 게 자식이라는 이야기이다.

의원님은, 다르게 말하자면, 관심을 못 받아서 버르장머리가 없어진 자식에 다름 아니다. 못난 자식이기라도 하면 눈치라도 볼 터인데, 그만 저마다 잘난 점은 턱없이 많아서 야단조차 치기 힘든 자식이다.

그런 자식을 길러 놓고는, 이제는 부모가 오히려 자식 눈치를 보고 할 말을 다 못하는 꼬락서니에 다다른 꼴, 그게 우리나라 국회란 것의 모양새다. 그 되바라진 자식이 온갖 지 잘난 짓은 다하는데 단속할 방법도 없이 지쳐버린 부모의 모양새, 그것이 또 국민이다. 이래서야 집안 꼬락서니가 제대로 될 턱이 없다고 해야겠다.

다행히 그 잘난 자식을 국민들은 4년에 한번만 낳으니, 다음에 낳을 때 잘 낳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천만에 말씀이다. 부모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자식이 달라질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제발 관심 좀 쏟자는 이야기이다. 옛 말에 관심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은 아이가 엇나가는 법은 없다고 했다. 관심 없이 툭툭 던지는 이야기는 비난이지 애정이 아니다. 더 되바라진 길로 가도록 만드는 채찍질일 뿐이기 때문이다. 한숨소리만 내지 말고, 관심 좀 가지자.

밥 먹고 똥 누는 내 일상의 사소한 삶 하나하나가 정치와 절대 무관할 수 없다는 절대명제를 기억한다면, 정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막말 국회 막말 정치에 대한 유일한 처방이란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 역시 탓하고 비난하는데 동승하기 전에 집중할 수 있는 문제 제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불교의 정견(正見), 바른 견해 역시 그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상시 국감이니 하는 구체적인 처방전은 '관심' 그 이후에야 거론할 일이다.

발언대

화쟁을 화쟁하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화쟁문화아카데미가 9월 22일 서울 안국동 화쟁문화아카데미 강당서 '화쟁좌담회-화쟁(和諍)을 화쟁하다'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자들의 화쟁에 대한 이해와 현실 적용 문제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화쟁, 원융무애의 실천적 원리



조성택
고려대 교수

다양한 경전들과 원음(原音)으로서의 불설(佛說)과의 관계를 체계화하는 원효의 해석학적 전략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각 개별 경전의 '부분적 진리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부분적 진리성과 불설(佛說)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다.

원효에 있어 각 개별 경전들의 다양한 주장들은 불설(佛說)의 전개로서 각기 부분적 진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학파의 다름은 결국 불설로 귀일(歸一)된다는 점에서 그 본원적 동일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인위적 조작이나 자의적 가치판단이 개입됨이 없이 다양함에서 통일성을 보고 통일성 가운데서 다양함으로 살려내고 있는 것이다.

원효는 현실세계의 갈등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부처의 세계나 깨달은 자의 관점을 요청하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 각 개별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원융무애한 불이(不二)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효는 개합(開合)과 종요(宗要)라고 하는 그의 독창적인 해석학적 방법론을 통해 당시 동아시아 불교권에서의 여러 교리적 쟁론들을 화해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화쟁에 역사·사회성 결합해야



이도흠
한양대 교수

아래 여섯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화쟁의 사회적 적용은 오류를 범한다. 첫째, 이 담론과 장(場), 맥락에서 저 담론과 장과 맥락으로 전이해도 보편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다른 담론과 장(場), 맥락으로 전이하면서 발생하는 차이를 인식하고 이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편성으로 논증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논증과 해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적용하는 과정이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의 오류를 범하지 말하여야 하며, 이는 진리로 판별된 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논증을 해야함을 전제한다. 넷째,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할 경우 추상과 구체 사이에 변증법적 종합이 이뤄져야 한다. 추상과 구체는 일반과 개별, 보편과 특수로 대치되기에 변증법적 종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적용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런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해석이나 결과를 추출해야 한다. 여섯째, 방법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방법을 수정하거나 버려야 한다. 이 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작업은 초역사적이고 탈사회적인 화쟁에 역사성과 사회성을 결합하는 것이다.

진실 추구가 곧 화쟁의 정의



정웅기
붓다로살자 연구위원

화쟁이 확고하게 정의로 간주되는 것은 '진실'이다. 진실은 내편, 네 편을 넘어서서 추구해야 할 무엇이다. 진실은 누군가에게는 정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의가 도리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 자체를 말한다. 약자에게는 진실이 되고, 강자에게는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툼의 당사자들이 상대를 불의라고 낙인찍으며 배제하는 대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진실을 추구하는 데로 마음을 모은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한들 풀지 못할 까닭이 없다. 이왕이면 다수인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해결하는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조차 진실의 기반 하에서만 허용돼야 한다. 화쟁은 이렇게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굳게 믿는데서 출발한다. 화쟁과 관련한 염려 중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있다. 강자 쪽으로 힘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양편의 힘을 균등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화쟁은 곧 강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첫째, 공정한 운동장에서 공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둘째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가이다.

社說

근대 선지식, 독립유공자 조명 나서자

경허만공선양회가 9월 20일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개최한 제7회 만공선사 학술대회에서는 눈길을 끄는 증언이 이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실문화재단 총재 이석 황손은 "만공 스님은 아버님인 의친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수덕사는 제2차 3.1운동의 비밀기지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일제에 알려졌고 결국 의친왕은 서울로 강제 압송을 당해 연금됐고, 만공 스님은 한탄 속에 수덕사에서 정진했다는 게 이석 황손의 주장이다.

여러 증언을 살펴보면 만공 스님은 독립운동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던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독립유공자의 선정은 투옥 등이 확인돼야 이뤄질 수 있어 만공 스님의 유공자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만당비밀결사를 조직해 독립 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진 우봉 스님 역시 속가 손자인 법주사 도봉 스님이 나서서 독립유공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은 모호하다. 8년 이상 독립운동 활동, 혹은 옥고를 치른 사실이 인정되면 1~3등급(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심사 결과만 공표될 뿐, 과정은 공개되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고 투옥 등에 근거한 유공자 선정 기준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단 역시 근대 선지식들의 활동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진관사에서 태극기 발견으로 백초월 스님이 조명을 받았듯이 종단은 근현대 선지식들의 행적과 역사적 역할들을 발굴해야 한다. 이것은 민족 수호를 위해 노력했던 선지식들의 넋을 기리는 것이자 한국불교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후학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종단이 근현대 선지식들에 대한 관심과 행적 발굴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WFB 유치 계기로 한국불교 위상 높이길

진각종이 2016년 제 28차 WFB 세계불교도우의회 총회를 유치한다. WFB는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태국서 열린 제85차 WFB 집행이사회서 내년 제 28차 세계불교도우의회 총회를 진각종이 개최키로 했다.

WFB는 전 세계 불교가 종파를 초월해 국제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로 1950년 스리랑카에서 창립됐다. 현재는 50개국 250여 불교단체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불교단체다.

진각종은 회당대종사가 한국불교 세계화를 서원하며 1958년 태국서 열린 제 5차 WFB 총회에 참석했으며, 2008년 일본서 열린 제 24차 WFB 총회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내년 9월에서 10월경 총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진각종 국제교류사의 첫 장은 WFB와의 일대사인연으로 장식된다.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와 손제석 前 위덕대 총장의 주도하에 태국 방콕총회에 한국 종단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이것을 계기로 종단의 국제교류가 물꼬를 트게 된다.

이후 진각종은 WFB 활동에 관심을 두고 제 14차 스리랑카 총회(1984)에 원정각 총인이, 제 15차 네팔 총회(1986)에는 혜일 통리원장, 제20차 호주 총회(2000)에는 성초 통리원장, 제 23차 대만 총회(2006)에는 회정 통리원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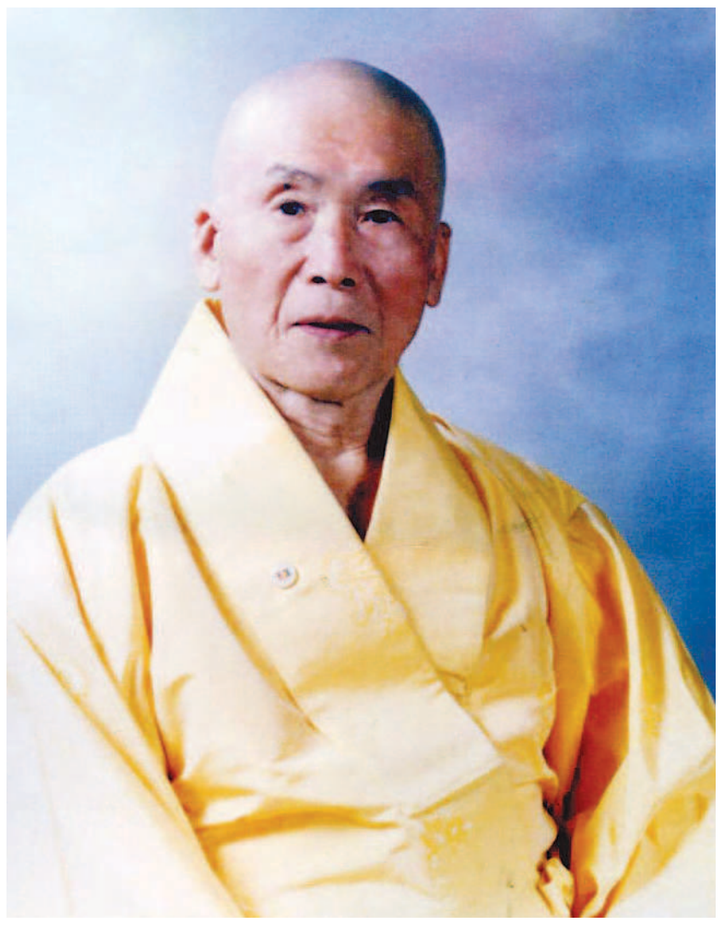
이 같은 종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2006년 10월 회정 통리원장이 WFB 한국본부 회장으로 추대됐다. 말라라세케라 박사가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전 세계 불교들의 일치단결과 각 종파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WFB를 창립했듯이, 진각종도 내년 총회 유치를 통해 불교가 대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고견들을 청취해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는 대회로 치러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사)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제 44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 및 제 20대 회장단 이취임 대법회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44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 및 회장단 이취임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9(2015)년 9월 좋은날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 **만주**

■ 일시 : **불기 2559(2015)년 10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한국문화연수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065)

■ 문의 : 02)363-8105, 010-9257-0278
(회장 직통)



세계불교법왕 의륜 서주범 대승정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 만주

■ 후원 : (사)대한불교종단총연회(189개 회원종단),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BTN 불교TV, KBS, 현대불교신문사, 매일일보, SBC서울불교방송, 불교일보,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한국문화연수원)

학술

한국불교
불교학 70년

교학·사회 실천·제학문 융섭…

불교학은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한국불교학은 근대적 불교연구의 자각과 개척단계로부터 형성과 정착, 나아가 새로운 전환 노력을 통해 그 지평을 확대해가고 있다. 한국불교의 선양은 물론 그 위상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것이다. 불교학의 발전은 학문 발전 외에도 불교교리와 사상을 대중에게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에 한국 불교학 발전의 70년을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해 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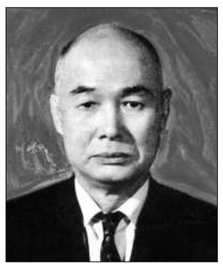


2004년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한국 불교학계는 세계여성불자대회,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세계교수불자대회 등 10여개의 크고 작은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특히 세계불교학계 석학들의 연이은 방문과 논쟁은 한국불교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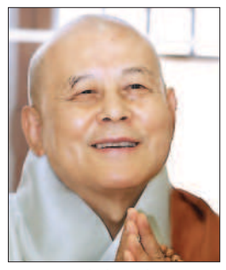


2013년 인도철학회의 '불교전통과 식문화' 세미나. 2000년대 이후 불교학은 기성 불교연구와 함께 다양한 사회문화와의 접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김잉석


김동화

60년대 신라 화엄 등 정체성 수립
7~80년대 학회 및 학술단체 폭 넓어져
90년대 응용 및 실천불교 영역 확대
2000년대 '융합' 주제로 활발한 활동
전체 20여개 학회, 학문 폭 넓혀


지관 스님


이기영


고익진


박성배

불교학 – 한국 불자 지성인의 노력의 결실

정체성 형성의 시기

한국불교학에 대한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은 광복을 맞이하며 비로소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일제시대 연구와 차별화되는 한국불교학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일본불교의 영향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한국불교만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과제였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는 극심한 사회혼란이 지속된다. 이런 와중에 터진 한국전쟁은 불교학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불교학은 전후 사회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시작된다. 1953년 동국대에 불교대학이 발족하면서부터 불교연구는 본격화된다. 아무래도 초창기 불교학 연구는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시 불교학자들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 일본식 학문연구 등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이 당시 대표적인 인물은 김잉석, 김동화, 조명기 선생 등이 있다. 한국불교학의 1세대로 꼽히는 학자들이다. 그 중 1954년 발간된 김동화 선생의 〈불교학개론〉은 한국불교계의 최초의 불교학 입문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1947년 첫 탈고 후 1953년 재탈고를 거친 이 책은 일본불교의 저술을 부분적으로 참조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한국불교학 형성과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다.

중국·일본과의 차별화 모색

1960년대는 1세대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불교학이 발전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특히 한국불교를 중국불교와 일본불교와의 차별화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김잉석의 〈화엄학개론〉(1960년), 조명기의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1962년) 등이 대표적으로 한국불교 안의 화엄학, 그리고 신라와 고려시대 불교의 특징을 짚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출간된 이기영 선생의 〈원효사상〉(1967년)도 '원효'라는 존재를 새롭게 조명하고 보살사상의 실천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기영 선생은 벨기에 루벵대학 유학 등을 통해 다른 연구방법을 보이기도 했다.

1962년에는 동국대 내 연구기관인 불교문화연구소가 개소해 불교학 발전의 토대를 쌓았다. 특히 불교문화연구소의 전문학술지 〈불교학보〉는 교계 최초의 불교학술지로 다양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불교학보〉 1963년 10월 창간호가 나온 〈불교학보〉는 현재 71집까지 나온 상태다.

다양한 학회·학술지 나와

1970년대에는 다양한 학술지가 발간되며 이러한 문호가 더욱 넓어졌다. 한국불교학이 정착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1973년 7월 동국대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회가 창립됐다. 한국불교학회는 이어 1975년 학회 학술지인 〈한국불교학〉을 펴낸다. 이는 교강사까지 연구발표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한국불교학회는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와 워크샵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지관 스님·장원규·우정상·이종익·홍정식·황성기·이재창·김영태·김운학·원의범·정태혁·이기영·서경수·김항배·박성배 선생 등 다양한 학자들이 불교학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1세대로 꼽히는 김동화 선생은 〈불교유심사상의 발달〉(1970년), 〈불교윤리학〉(1971년), 〈선종사상사〉(1975년), 〈불교교리발달사〉(1977년) 등을 펴내 인도불교에서부터 한국불교까지, 철학·윤리·교리·사상사 등 광범위한 연구의 토대를 쌓았다. 지관 스님은 금석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

1980년대는 한국불교학의 연구층이 두터워지는 시기였다. 동국대 불교대학과 각 대학의 철학과에서 배출한 석·박사와 함께 해외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소장학자들에 의한 새로운 학설이 제기됐다. 동국대 이외의 대학에서도 불교학 연구가 점차 활성화됐다. 채인환·김인덕·목정배·이영자·고익진·권기종·서윤길·신현숙·김영길·윤호진·서성원 선생 등이 불교학 연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개방·세계화 조류 반영

80년대 이후의 주목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불교학 연구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었다. 80년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와 함께 경제성장, 개방과 세계화 등 광범위한 사회변화에 따라 불교학연구도 변화했다. 그동안 불교학 연구가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훈고적이고 교조주의적이거나 혹은 민족주의 성향을 띄었다면 이 당시 불교학은 다학문·다문화적 접근과 개방을 시도하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이 당시는 '민중불교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였다. 이에 불교교리를 노동·빈곤·소외·권위주의·경제윤리 등 사회문제와 관련지어 재해석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불교학이 다른 학문분야와의 연결성을 찾던 시기였음은 당시 학술대회 주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1984년 5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개최한 불교학술세미나 주제는 '불교와 유전공학'이었으며, 1986년 동국대 개교 80주년 기념세미나 주제도 '불교와 제과학'이었다.

이러한 관심은 불교학이 응용과 실천 분야로도 나가는데 시발점이 됐다.

응용·실천영역 본격 확장

1990년대에는 응용불교학 또는 실천불교학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부터 불교학은 사회실천 영역으로 확대됐다. 1990년대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학과에는 '불교사회경제'·'포교론', 경주캠퍼스 불교학과에는 '불교문화재 관리론' '불교와 현대과학' '불교와 정보환경' 등 강좌가 개설됐다. 이런 움직임은 불교대학원에 불교사회복지학과와 장례문화학과 문화콘텐츠학과를 개설하고, 불교문화대학원에 장례문화학과·불교상담학과를 두는 것에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1996년 10월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세계불교학술회의는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주제로 열렸다. 이 세계학술회의에서는 21세기 문명의 불교적 조명, 종교다원주의의 사회와 불교, 지구화시대의 윤리와 불교, 자연·환경·생명과 불교, 한국불교의 세계화 등으로 분과별 발표가 이뤄졌으며 여기에는 국내외 석학들의 연구논문 19편이 발표됐다.

인문학 차원에서도 불교학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동국대 외 일반대학에서의 연구활동도 활발히 진행된다. 이런 와중에 1999년 불교학연구회가 창립된다. 이는 대학 간의 벽을 허물고 소장학자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였다. 불교학연구회는 정기·월례 학술발표, 세미나, 워크숍 등으로 특히 해외 및 국내 여타 대학의 소장학자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 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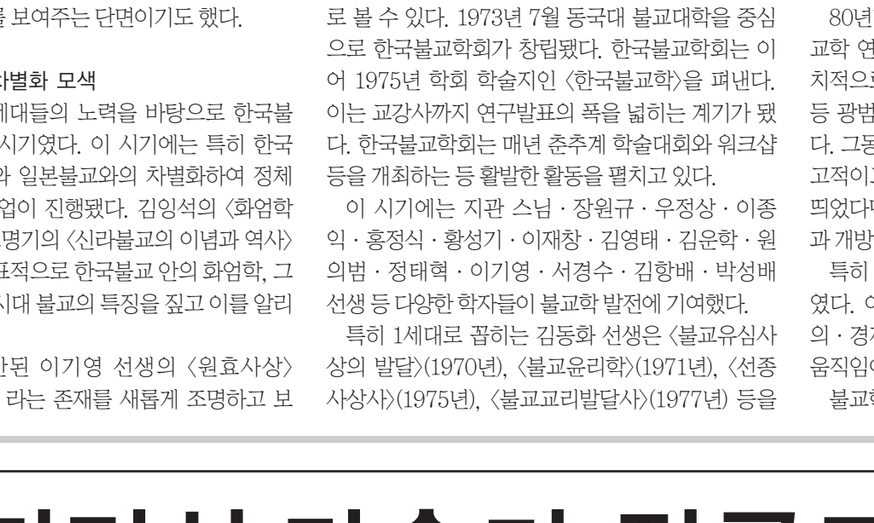
이와 함께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도 활발히 진행됐다.

근대불교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역사학, 불교학, 종교학 등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해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최병헌은 일제하의 불교에 대한 성격, 김상현은 3·1운동과 한용운, 보광 스님은 백용성, 양은용은 불교개혁 사상, 전보삼은 한용운, 채상식은 범어사 등을 연구했다.

사찰, 문중 등 근현대불교 고승과 유관한 승단의 연구기관 설립이다. 성철문도회는 1996년에 성철선사상연구원을 발족했고, 백용성의 유훈을 구현하는 대각회는 1998년에 백용성과 근현대불교를 연구하겠다는 취지로 대각사상연구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경허, 만공의 연고 사찰인 수덕사는 1999년에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을 만들었다. 이처럼 고승과 연고가 있는 사찰, 문도들이 고승의 연구를 추동하겠다는 취지로 등장한 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진작시켰으나, 특정 사찰이나 문중을 중심으로 진행된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대한불교 천부조계종
(天符曹溪宗)



대한불교천부조계종
종정 무불

본 종단은 불기2559년 1월 28일 창종한 종단(宗團)으로 환검단군대성존(桓儉壇君大聖尊)을 고대불교(古代佛敎)의 교주(敎主)로 석가세존(釋迦世尊)을 근대불교(近代佛敎)의 교주(敎主)로 석가세존으로 부터 28대조사(祖師)이시고 중국 선종(禪宗)의 초조(初祖)되시는 달마대사(達磨大師)로 부터 육조선풍(默照禪風)을 이어받은 6조 혜능대사(慧能大師)를 종조(宗祖)로 하여 고대불교(古代佛敎)의 교주(敎主)이신 환검단군대성존(桓儉壇君大聖尊)께서 깨치신 진리의 핵심인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 용변부동본(用變不動本)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 천부인(天符印)세개의 진리와 근대불교(近代佛敎)의 교주(敎主)이신 석가세존(釋迦世尊)께서 깨치신 핵심진리인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적정열반(寂靜涅槃) 3법인(法印)을 근본교리(根本敎理)로 봉체(奉體)해서 이화세계 불국정토(理化世界 佛國淨土)를 장엄함을 종지(宗旨)로 하여 부모 형제 처자권속간에 우리 이웃간에 우리 모두간에 이 세상간에 아름답게 회향(廻向)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도의 열정으로 목 말라 발심 출가하고져 하는 모든 이 에게는 본 종단직할 무불선원에 입방하여 수계 한 다음 소정의 과정을 수학(修學) 수선(修禪)하게 하여 증서를 수여함과 동시에 훌륭한 스님으로서 자기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고 이 사회에 큰 등불이 되어 정말 보람있는 일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자격증서를 다 갖춰 드릴것입니다.

본 종단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유투브에서 「무불스님」 검색하세요.

대한불교 천부조계종
총무원 : 경남 양산시 삼호로 74 대운산 무불선원
전화 055)388-3878 / 팩스 055)388 3878 / H·P 010-3854-8107

무불스님의
불교핵심 강의
불교핵심을 관통하는 명쾌하고
담백한 강의에 동참하십시오!!



무불선원에서 무명의 한 격외선객이 여러분을 감히 초대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제가 포대화상이 되어 쓰고 또 써도 부족함이 없는 진귀하고도 푸짐한 선물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마음을 빼놓고선 설할 법이 없으니 마음이야 말로 모든 진리의 근본이고 만법의 근원이며 자초지종이니 부처와 보살과 신중 및 부모조상님도 마음을 떠나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본의 마음과 현상의 마음을 요달했을 때 내 전도 내가하고 가는 것이요 내 부모 조상님도 자연히 극락왕생 하시는 것입니다. 목탁치고 요령 흔들어가며 아무 뜻도 모른 촉성 좋으니 어쩌니 하는 염불기도 없이도 내가 깨닫고 노력하는 만큼 모든 업장과 가지가지 액살도 소멸됨은 물론이요 또한 업의 실체가 공함을 통달해 수미산 같은 업을 가진 그채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소원을 자기의 동량 복

그릇 만큼 자연히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먼저 전화주시고 한분이든 몇분이든 간에 아무부담 갖지 마시고 저의 선원으로 찾아주시어 화엄경법성게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 천부경 등등 저의 명쾌하고도 강렬 담백한 강의와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법문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번뇌의 풀을 큰돌멩이(좌선 명상 위빠사나 염불 기도 절 등등 수행)로 암만 눌러놔도 틈을 비집고 다시 올라올 뿐이니 이참에 도를 확철히 깨쳐 아예 뿌리를 확 뽑아 버리십시오! 서너가지 불교핵심경을 강의받고 통찰하여 소화하시는데 몇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편리한대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요!
먼저 전화주시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대운산 무불선원

유투브에서 「무불스님」 검색하세요.

경남 양산시 삼호로 74 웅상신도시 푸르지오아파트 103동 703호
■ 전화 : 055)388-3878 / 010-3854-8107

문화재
한국불교
문화재 70년

학문 통해 불교 대중화 견인하다



2011년 12월 조선왕조 의궤를 환수 직후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열린 국민환영행사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부처님 전에 환수를 고하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의 경판 조사 장면. 2007년 개소한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불교문화재 만의 특성에 맞는 연구와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수영



진홍섭

국보급 문화재 중 40%가 성보
문화재 수탈 역사는 불교 수난사
황수영 등 원로, 보존 토대 닦아
일본 등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과제
민족문화유산 보존에 불자 힘모아야

연구가 지속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승과 유관한 연구원의 활동은 개별 사찰들이 주관하는 근현대불교의 학술세미나 활성화로 이어졌다. 고승 연구를 위주로 추진되었는데 전등사는 서운, 범어사는 동산, 통도사는 구하 · 경봉 · 벽안 · 월하, 송광사(보조사상연구원)에서는 효봉 · 구산, 봉선사는 월초 · 운허 · 명허 · 운경 등을, 진관사는 백초월, 백양사는 만암, 화엄사는 도광, 건봉사는 정체성, 선운사(백파사상연구소)는 박한영, 수덕사는 경허 등의 학술 행사를 개최하였다. 현재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연구회를 비롯해 한국선학회, 인도철학회, 정토학회, 보조사상연구원, 대각사상연구원, 성철사상연구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사회문화연구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한일불교문화학회, 전자불전연구소, 고려대장경연구소,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 한국불교상담학회 등 20여개의 학회들이 활동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불교연구는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다. 그 테마는 '융합'이다. 사회의 여러 발전상과 연계한 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자연 · 환경 · 생태문제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또 인터넷과 연계해 다양한 자료의 아카이브 사업이 진행돼 연구의 질과 양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는 〈한국불교학 100년사〉에서 "불교학은 선각자들의 구도적 열정과 개척의 피땀이 어린 인고의 궤적이며, 근대 한국불교가 시대적 혼돈 속에서 이룩해온 자각과 전환의 장중한 역사의 발자취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자랑스럽고 소중한 역사인 것이다"고 의견을 전했다.

성보문화재 – 민족문화유산이자 신앙대상으로

한국불교는 17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마침내 민족문화의 뿌리와 줄기가 되었다. 불교 문화재는 민족 문화유산이면서 한편으로 불교 성보라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문화재 수탈 심각… 환수운동 전개

과거 숱한 외세의 침략과 전쟁이 있었던 우리나라는 수많은 문화유산의 수난을 경험했다. 불교문화적 배경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문화유산의 수난은 불교문화유산의 수난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제시대에는 전국 각지에서의 문화재 수탈이 극심하게 이뤄졌다.

남북 분단의 해방 공간 남쪽을 차지한 미군정(美軍政)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곧바로 일어난 한국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문화재 파괴와 유출은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불교문화재의 피해 상황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간행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당시 남한지역에 존재한 969개 사찰 중 20%에 이르는 200여 곳이 소실되고 파괴됐다. 북한 지역은 205곳 중 약 70%인 141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손보기



문명대

문화재 반환 운동 미완으로 남아

1960년대 이후는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 그룹이 약소국가이기를 거부한 저항의 시대였다. 그래서 약탈 문화재 반환 운동이 서서히 머리를 들었다.

이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앞선 한일회담에서는 일본의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이 요구한 문화재는 조선총독부가 내보낸 고분 출토품과 통감과 총독이 빼돌린 유물 2,060점 등 모두 4,479점이었으나, 일본이 내놓은 목록대로 1,432점이 돌아왔을 뿐이다. 그리고 사유 문화재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합의한 의사록에 따라 자발적 반환으로 느슨하게 풀어놓게 된다. 현재는 문화재제자리찾기 등 시민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미술사학 발전 문화재 보존에 일조

1960년대에는 고고미술사가 자리를 잡으며 불교미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문화재 복원과 보수,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이어진 흐름이었다. 그 1세대에는 김원룡(서울대), 손보기(연세대), 진홍섭(이화여대), 황수영(동국대) 박사가 꼽힌다. 특히 불교문화재에서는 황수영 박사를 빼놓을 수 없다. 개성박물관장으로 있던 고유섭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황수영 박사는 한국미술사학을 개척한 선구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진홍섭 선생과 최순우 선생까지 개성 3걸이라 불렸다.

황수영 박사는 석굴암 등 경주 지역 신라문화재의 조사와 발굴 복원을 비롯해 서산마애삼존불상과 팔공산 제2석굴암, 문무대왕 해중릉 등을 복원했다.

이후 정영호 · 맹인재 · 정양모 선생에 이어 문명대, 안휘준, 강우방, 이성미, 김리나, 강경숙 등의 2세대에서 본격적인 미술사학이 꽃을 핀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2010년 4월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전체 국보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224점으로, 국가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제외하고 종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보는 총 123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국보 314점의 39.17%에 달하는 수치다.

의례 · 의식 · 문화까지 가치 조명

2009년 6월 영산재가 중요무형문화재 50호로, 이은 9월에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12년 4월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 122호로 2013년 12월 수륙재가 중요무형문화재 127호로 지정됐다. 이는 불교의 무형문화 또한 보존해야할 가치가 충분함을 알린 것이었다.

최근 유네스코는 1995년에 고려대장경을 보존하는 해인사 장경판전과 불국사 석굴암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미륵사지 정림사지 등을 포함한 백제문화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통문화의 정수를 계승해 온 한국불교는 우수한 문화민족으로서 민족문화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 한국불교의 이러한 문화적 과제를 새삼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정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광복 이후 대표적인 논쟁, 무엇이 있나?

◇석굴암 원형 논쟁

석굴암에 대한 논쟁은 지난 1969년 5월 공학박사인 남천우 교수가 〈신동아〉에 '석굴암 원형 보존의 위기'를 기고하면서 시작됐다. 남 교수는 황수영 박사의 주도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된 석굴암에 대해 '당시 석굴암 보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신영훈씨가 반박문을 발표하고 뒤이어 문명대 교수가 가세하면서 석굴암 원형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돈점 논쟁

1981년 당시 조계종 종정이던 성철스님이 〈선문정로(禪門正路)〉를 세상에 냄으로써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논쟁은 사실상 시작됐다. 성철스님은 보조의 돈오점수가 선문에서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기능을 했다고 지적했다.

〈선문정로〉가 나온지 10년이 되는 1990년에 가서야 비로소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문제가 학술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이 주제에 대해 불교계 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어졌다.

◇조계종 종조 논쟁

조계종 종조논쟁은 이미 30, 4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로 불거졌지만 1954년 이승만대통령의 '불교정화(태고종에서는 법난으로 부른다)' 유시 이후 본격화됐다. 비구 대처 분규 후 조계종은 보조 지눌스님을, 태고종은 태고 보우스님을 새로 종조로 인정했다. 이후 종조논쟁은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팽팽한 긴장 속에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다.

◇'여래장은 불교인가'

비판불교가 학계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86년 6월1일. 일본에서 열린 인도학불교학회 학술대회에서다. 고마자와 대학의 마츠모토 교수가 '여래장은 불교가 아니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학계의 비상을 관심을 모은 것이다. 1994년 동국대 혜원스님이 마츠모토 교수의 〈연기와 공-여래장사상 비판〉을 번역한 〈연기와 공〉을 펴내며 소개됐다.

◇무아설 & 비아설

원시불교에서 무아(無我)와 비아(非我)가 달리 서술되면서 무아설과 비아설을 각각 구분해 보는 학자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불교의 '무아(無我)관'을 무아사상 혹은 비아(非我)사상, 혹은 인도의 자아(自我)사상의 일종으로 보려고 하는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신비의 돌탑에 쌓은 소원 동전

진성 스님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 1985년 정읍 다천사에서 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태고종 총무원 재무국장. 태고종 전북교구 종회의원. (사)나누우리 재정이사를 역임했으며 마이산 탑사 주지로 재직하고 있다. (사)나누우리 봉사단장, 전북경찰청 및 덕진경찰서 경승, 갑룡장학재단 이사장, 전주교도소 교정위원, 귀휴심사위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간지역에 자리한 전북 진안은 무주, 장수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오지로 꼽혀왔다. 지금은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익산-포항간 고속도로도 지척이라 교통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무주 진안 장수의 앞 자를 딴 '무진장' 은 산골 오지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전라북도 진안의 명소를 꼽으라면 누구나 두말없이 마이산과 탑사를 말한다.

탑사에 들어서면 150여년전 이갑룡 처사가 30여년간에 걸쳐 쌓았다고 알려진 신비의 돌탑이 신비감을 더해준다. 주지 진성 스님은 탑사의 돌탑을 축조한 이갑룡 처사의 4대손이다. 바로 진성 스님의 증조할아버지가 이갑룡 처사이다.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을 이곳에서 만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 현장을 찾는 것이 쉬울 정도로 진안지역의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워낙 바쁘게 봉사활동에 전념하다 보니 주변에서는 스님이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다. 스님은 진안지역을 넘어 전주교도소, 부산, 대구는 물론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단을 통한 해외 봉사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20년째 이어온 갑룡장학회를 창립

"지역에서 불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을 보살피는 일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스님의 나눔 활동 중에서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갑룡장학회는 가장 주목된다. 1994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갑룡장학재단' 을 설립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벌써 20여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지급한 장학금 액수만해도 3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진안 지역에서 탑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탑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한다고 생각해 선대 주지이신 혜명 스님과 고민 끝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애환도 많았다. 장학금 전달식장에 수혜 학생이 나오지 않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진안교육청과 학교의 추천으로 선발된 학생들이었는데 학교에서 이들을 전달식장으로 보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장학금을 갖고 학교로 갔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장학금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교무실에 장학금을 놓고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한번은 장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감사편지를 쓰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이 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감사편지를 쓴다는 내용이었죠. 황당하더군요."

그 당시 일들을 떠올리는 진성 스님의 눈가가 금새 촉촉하게 젖는다. 아마도 타종교에 비해 열세인 교세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3년 전부터는 탑사에서 자비나눔 배양실천 운동을 하면서 장학생 선발도 진안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됐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실천하는 일이 더 보람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 올해에는 진안군의 '진안사랑장학재단' 에 1천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너무 아름답고 고운 마음씨를 가진 학생들입니다. 이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봉사자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장학생수는 줄이고 수혜 금액은 늘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원바위 '동전' 이웃 위한 나눔으로

관광지로 유명한 탑사는 누구의 것이 아닌 진안 군민들의 자랑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탑사를 찾는 많은 등산객들과 관광객들 또한 탑사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자비의 연탄 나눔과 쌀 나눔행사다.

탑사의 80여기 돌탑 중 명소로 꼽히는 소원바위에 관광객들이 붙여놓은 동전들을 수거해 몇해 전부터 매년 연탄으로 겨울 난방을 해결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올해는 이미 9월초에 13가구에 4천30장의 연탄을 전달한 바 있다.

20년 이어온 갑룡장학회
장학금 액수만 총 3억원
소원바위 동전 모아서
소외이웃 위한 연탄 나눔
매년 어르신 생일잔치 개최

교도소 교정교화 활동 적극
현재 30명 후원하며 최선
나누우리 봉사단과 함께
캄보디아 학교 지원도

"일교차가 매우 큰 산간 오지마을 기후의 특성상 추위가 빨리 찾아오죠. 난방비를 아끼려다 감기에 걸려 고생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일찍 연탄을 전달했어요."

소원바위의 동전들은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비로 쓰이고 있는데 매년 3명 정도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치료비로 전달되고 있다.

스님은 소원을 담아 동전을 붙여놓은 기부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 소원동전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상호 선업을 쌓아나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원바위에 붙어 있는 소망을 담은 작은 동전들이 모여 진안지역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희망의 불씨로 타오르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한 푼 한 푼 모아진 동전들은 관내 소아환우 어린이에게 치료비로 전달돼 새 새명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난방비가 부족한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나눔의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다.

진성 스님은 "소원을 담은 동전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져 또 다른 소원성취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탄 나눔행사에는 '이쁜 손 이쁜 마음' 봉사단 어린이들도 직접 연탄 배달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탑사 대웅전에 올려진 공양미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매년 봄가을로 나뉘어 진안군으로부터 관내 각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추천받아 40kg씩 전달해 오고 있다. 이렇게 전달된 공양미가 연간 2,000kg이 넘는다.

3년 전부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홀로 생일을 지내는 진안관내 독거 어르신 100 명을 시내 식당으로 초대해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있다. 봉사자들과 함께 100개의 생일 케이크와 음식을 직접 만들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공연단도 초청해 위문공연도 열고 있다.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푸짐한 생일선물도 한아름 안겨드린다.

전국 곳곳에서 자비행 실천

진성 스님은 지역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사정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장애인 부부를 위해 컨테이너 임시 숙소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전국의 탑사 분원인 대구 혜인정사, 부산 구평사, 인천분원 월천사, 전주 분원 실상사를 통해서도 자비행을 이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진성 스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 노보살을 만나게 되면서부터라고 말한다.

"대구 한 사찰의 봉사활동에 참가했다가 우연히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의사는 할머니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쓰러졌다고 했어요. 충격적이었죠. 그 할머니를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기 시작한 것이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런 나눔활동이 학생들의 삶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이 봉사단을 후원하고 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의를 보면 앞장서 해결하고, 불우한 친구를 보면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고, 노약자를 보거나 어르신을 보면 보살펴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바로 자비심이죠. 이는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 봉사의 정신이 뿌리내렸을 때 가능한 것이죠."

스님은 불교의 미래는 어린이들로부터 시작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진성 스님은 '이쁜 손 이쁜 마음' 어린이 봉사단을 만나게 된 것은 커다란 행복이라고 말한다. 탑사서 후원하는 '이쁜 손 이쁜 마음' 어린이 봉사단을 비롯해 대구 분원 혜인정사의 '연꽃 어린이 봉사단' 을 후원하고 있다. 나눔의 생활화를 통해 봉사의 배양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님은 이밖에도 지역의 타 종교인들과의 교류에도 적극 나서 해마다 타 종교인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에도 적극 동참하고



선으로 가는 길 (대,소)
달마도 (대,소)
밝고 향기롭게 (대,소)
선화의 향기 (대,소)
반야심경 (대,소)
산사의 꽃 야생화 (대,소)
암자에 길을 묻다 (대,소)
부처님의 성지 (대,소)
그리운금수강산 (대,소)
붓다의 향기 (대, 소)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 · 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 · 암자 · 포교당 등 대 · 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수첩



트윈스프링 차걸이

세상의 빛이 되어 이웃에게 회향


진성 스님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을 지원하고 직접 배달해주고 있다.



진성 스님은 20년 전 '갑룡장학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장학금 3억원을 지원했다.


캄보디아 동추로람 초등학교 교무실 준공식. 둘째줄 맨 왼쪽이 진성 스님이다.



탑사 대웅전에 올려진 공양미 2,000kg 이상을 매년 소외이웃과 나누고 있는 진성 스님.

있다. 또한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전주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교정교화 활동도 빼 놓을 수 없는 스님의 주요 활동이다.

"평소 재소자 교정교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두 차례 불자 재소자들을 위한 법회는 물론 장기 모범수들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영치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후원하는 재소자는 30명을 넘은 상태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도에는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캄보디아 학교에 생명의 물을 주다

진성 스님의 자비 실천행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누우리 봉사단장의 소임을 맡고 있으면서 나누우리 봉사단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탑사의 5개 분원마다 나누우리 봉사단을 조직해 지역의 봉사활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전국의 사찰마다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700여 명의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단을 통해 매년 두 차례씩 캄보디아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이미 2014년도에는 캄보디아의 2개 학교에 급수시설을 설치했고, 올해 4월에는 대구 보은사 혜담 스님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돈추로암 초등학교 교무실 건물과 쌈부어 초등학교, 꽁무잇 초등학교에 식수시설을 설치해 주기도 했다.

오염된 식수로 인해 수인성 전염병에 노출된 어린 아이들에게 3중 필터 연수기가 설치된 정수시설의 급수대는 감로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나누우리 후원 사찰의 스님들과 매년 2차례씩 방문해 교실의 페인트칠을 대신해주고 수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는 것은 물론 급수시설의 필터 교환과 같은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방문할 때마다 학생들의 옷가지, 학용품, 교과서를 구입해 어린아이들이 큰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500명의 학생들에게 교과서 7,500권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밖에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기구와 운동장 잔디공사, 놀이기구 등을 설치해 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30여년전 캄보디아 내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위령재도 열었다.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녘 수륙재보존회(기능보유자 석봉스님)의 회원스님들과 함께 시엠립 왓트마이를 방문 전통불교 의식으로 펼친 '캄보디아 내전희생자 추모위령재'는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영혼을 달래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관광사찰서 문화포교 도량으로 탑사 탈바꿈

진성 스님은 관광사찰로 알려진 마이산 탑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전법도량으로서의 역할에도 주력한다. 따라서 스님은 기존 법회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전주분원 실상사의 '실상밴드'가 대표적이다. 신도들과 함께 난타밴드를 구성해 음악회를 여는가 하면 교도소 등을 찾아 연주하는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진성 스님은 무엇보다 탑사 경내에 탑 박물관도 설립할 계획에 있다. 신비의 돌탑으로 유명한 탑사의 특징을 살린 탑 기념박물관 건립 계획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차분히 준비해 오고 있다.

"경내의 상가들을 정비하고 우리나라 탑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탑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구성될 탑 기념박물관은 전국 각 지방의 탑 모형과 전시관, 세계의 탑 전시관, 탑블럭 쌓기 체험, 음이온 명상실 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탑기념 박물관을 건립한 후에는 탑사를 세계적인 힐링 명상도량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특히, 음이온 명상치유센터를 건립해 세계적 명상센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은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로 명상이 부각되고 있는 요즈음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남을 위한 봉사활동이 수행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가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고 있죠. 하지만 불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죠. 이를 통해 봉사가 더 의미있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상치유센터 건립은 불자들의 마음을 밝히고 봉사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이산 탑사=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법일기

스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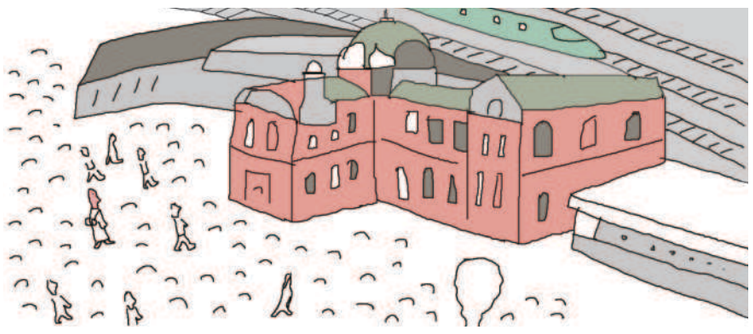
한 달에 한 번씩 봇다론서트를 진행하려면 아침에 대구에서 KTX를 타고 서울에 간다. 저녁 7시에 시작해서 행사를 마치면 밤 9시. 풍경소리 식구들과 간단한 늦은 저녁을 먹고 다시 서둘러 서울역을 향한다. 부산행 밤 11시 마지막 기차를 타기 위해서다. 늦은 시각이지만 서울역은 늘 노숙자들과 비틀거리는 취객들로 붐빈다. 기차를 타기 전 물이라도 한 병 사려고 편의점에 들르면 승복을 입고 있는 나에게 가끔 취객이 시비를 걸어올 때가 있다. 스님이 밤에 어딜 돌아다니느냐 밥을 못먹었으니 돈을 달라는 등 종류도 다양하다.

간신히 시비꾼들의 방해를 정중히 뿌리치고 객차에 오르면 그 다음은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이 문제가 된다. 거의 대부분은 스님이 옆자리에 앉는 것을 어색해한다. 별 말은 안 해도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곁눈으로 흘끔거리며 이 늦은 시간에 기차 안에 있는 스님의 정체에 대해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를 보내는 듯 하다. 그들에게 일일이 나는 대구에 사는 스님인데, 오늘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서울에 왔고 지금 행사를 끝내고 절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저 어색함을 안고 동행하는 수밖에.

하지만 많은 도심의 스님들이 그러하듯 별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동안 승려로 살면서 사소한 시비나 불필요한 시선을 받는 일이 종종 있다 보니 나도 이골이 나서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 그러나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달리는 기차의 차창 밖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자주 가끔은, 왜 세상 사람들은 유독 승려에게만 이런 낯선 시선을 보낼까 하는 의문이 종종 든다. 아마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 스님들의 승복이나 삭발한 머리는 차림새부터 쉽게 눈에 띄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불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산중불교'로 이해하는 고정관념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니 스님이 무슨 일을 한다고 이 늦은 밤 돌아다니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스님에게도 사정이 있겠다고 이해하기란 세속인으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스님에게는 고민이 많다. 발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의 큰 물결 속에 함께 하지 않으면 갈수록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한숨과 고뇌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중의 절을 떠나, 때로는 거리로 직접 나와야 하는 일도 생긴다. 목탁치고 경전 읽고, 법문하는 일 이외에도 스님들의 활동영역도 넓어졌다. 자연히 알아야 할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많아졌다. 내가까운 도반은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맡아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주민자녀, 다문화모자가족을 돕고 베트남에 열약한 지역을 찾아 108개의 화장실 짓는 일을 하는데, 그들을 도울 후원금을 마련할 방법으로 나이도 잊은 채 승복을 벗고 마라톤을 한다. 스님은 불단에서는 대신 낯선 카메라 앞에 기꺼이 서서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당당히 이야기한다. 더러 학승(學僧) 중에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선방 대신 외국 유학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전형적인 스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만의 수행과 포교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 박구원

거리의 스님들을 바라보는 숱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는 절제와 근신의 상징인 승복을 입고 도심 한 가운데서 매순간 자신과 싸우며 열심히 사시는 스님들이 정말 많다. 때로는 그리스 고전영화 〈쿼바디스〉의 유명한 대사인 "신이시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란 말처럼 "스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산다. 수처작주라 했던가. 어느 곳에 있건 부끄럽지 않는 수행자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 스님들은 바쁘게 달리고 있다.



덕신 스님(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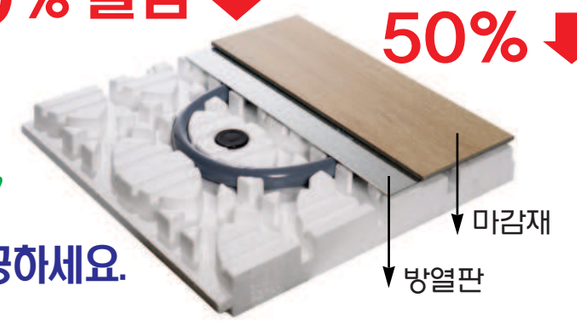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안산 : 010-2487-3393 대구 : 010-3821-4849 서산 : 010-7301-5854
화성 : 010-3168-9250



대행 스님

일체와 더불어 둘 아닌 도리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무의 공법이 어떤 단계인지요

질문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스님 법문 중에 무의 공법이라는 말씀이 있던데 그것이 어떤 단계인지요.

답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돼서 인간까지 왔으니만큼, 이 인간 중에서도 진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모든 것을 벗어나야 한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주장자의 자리를 완벽하게 해 놔야 된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보림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수억겁을 통해서 겪어온 관습이나 욕심이나 아상, 아만 이런 모든 거, '딴 사람은 죽어도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잡아먹는 거, '딴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 하고 정신을 뺏어 먹는 것, 이런 행위를 함이 없이, 둘 아니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둘 아닌 도리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이제 어지간히 좀 알았다고 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껏 질문 한 번도 해 본 예가 없죠, 네? 그게 여러분이 완숙되도록 노력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싹이 나서 너풀거려야 바람이 부는 소리도 듣고, 흙냄새도 맡고, 거름 주는 것도 알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람이 분다 하면 뿌리를 좀 널따랗게 잡는다거나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알고 이런 식물이라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만큼 일체 만물 만생과 더불어 둘 아닌 도리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나부터 알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의식과 그 모두가 내 주인공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어라. 진짜 믿는다면 한군데서 그 선장이 중생들을 이끌고 다 조복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둘 아니게 조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두가 항상 그렇게 한군데서 들고 나는 거지 여러 군데서 들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아니고 내 이 한마음에서 들고 나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반가워서 악수를 할 때 마음이 먼저 갑니까, 손이 먼저 갑니까? 마음이 먼저 가고 안 가고 간에 마음이 일어나니까 손이 가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운 사람이라면 반갑게 마음이 내어지고, 또 '그냥 인사를 해야겠다.' 하더라도 인사하기 위해서 손이 갑니다. 그거 뭐 정확합니다. 또 마음이 안 가는 사람한테는 손이 안 내밀어지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모습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많이 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또는 차원이 주어집니다. 차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습과 삶도 주어지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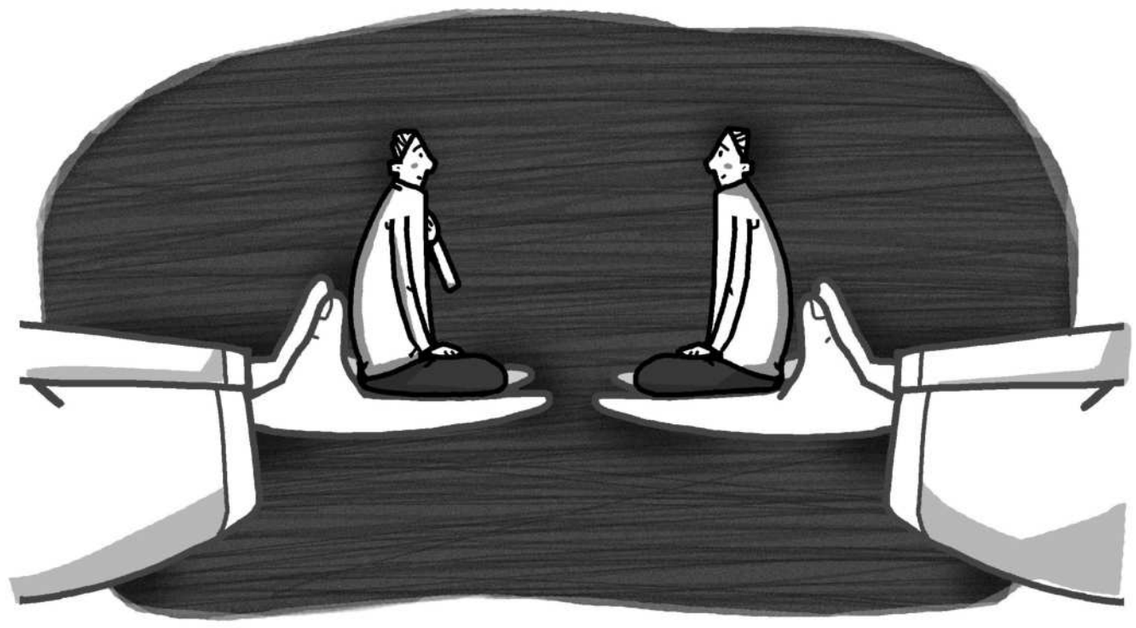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을 많이들 보시죠. 거기에서 연기하는 것을 보면 아주 진짜처럼 하죠. 진짜로 잘하죠. 역을 맡아 가지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짜처럼 잘하는데, 우리도 진짜처럼 살고 있단 얘깁니다. 탤런트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차원에 따라서 삶도 주어졌고 모습도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살아야지 거기서 빼고 끼우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팔자 운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자유자재권을 갖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왕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계단 없는 계단을 밟아서 차원의 급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오는 갑자기 어린애를 낳아서 "으앙" 하고 우는 거를 말하는 것이고, 자라기 위해서 바깥에 나와서 세상을 살면서 배우는 것을 바로 점수라고 이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탤런트처럼 사는데, 가만히 생각들 해 보십시오. 우리가 탤런트라면 그냥 아무 역이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로 맡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진짜로 죽는 역, 또는 아주 하(下)의 사람의 역, 강도 역, 사기 역, 그런 역을 맡아서 나가라면 아마 안 나갈 겁니다, 죽는 역은 더군다나. 그렇죠? 진짜로 죽는다면요. 그런데 그 탤런트들이 진짜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역을 맡아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 놔라. 선장이 있는데 선장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 선장한테 맡기고 놔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는 것을 다 거기 놨을 때 그것이 일차적인 보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보림이 돼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륙도 같은 데 뭐, 깊은 산속 같은 데, 걸어가다가 큰 돌이 서 있으면 '아 참, 저 돌 잘생겼다.' 하고 쳐다볼 수도 있겠죠? 또 그런 곳이 아니라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든지, 작든지 크든지 말입니다. 비실비실하고 비틀어지고 뿌리를 박지 못한 나무 한 그루도 그렇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나무들이나 돌이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잡아 달라고 한 예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공부의 단계니까. 나무들이나 돌이나 어떠한 거든지 손을 잡아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엄연히 손 없는 손이 내민 겁니다. 손 없는 손이 나에게 손 없는 손으로 '잡아 다오.' 한 겁니다. 그러면 잡아 주는 순간 둘이 아니게 그냥 하나가 돼 버리고, 하나가 되었다가 또 둘이 되고, 이렇게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없는 손을 건져 줄 때는 없는 손에다 넣으면 손이 둘이 아니게 되고 형체가 없으니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둘 아닌 공부의 실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를,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시키고 형성시킨 자기 자신과 통했단 얘깁니다. 통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나무로 통해 가지고, 돌로 통하든지 해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손 좀 잡아 다오.' 하는 겁니다. 둘 아닌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도저히 무(無)의 세계의 법도를 모르고, 무의 세계의 공법을 모르고, 무의 세계의 가고 옴이 없는 도리를 모른단 얘깁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벌써 싹이 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싹이 터서 그 싹은, 예를 들어서 그 나무까지, 목신하고 둘 아니게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은 다 합일이 됐다는 얘기죠. 조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의 도리로, 이것을 손 없는 도리로, 손이 있든 없든 그대로 둘 아니게 건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배우는 도리입니다. 그게 두 번째 보림할 수 있는 도리를 배우고 가는, 즉 말하자면 무의 공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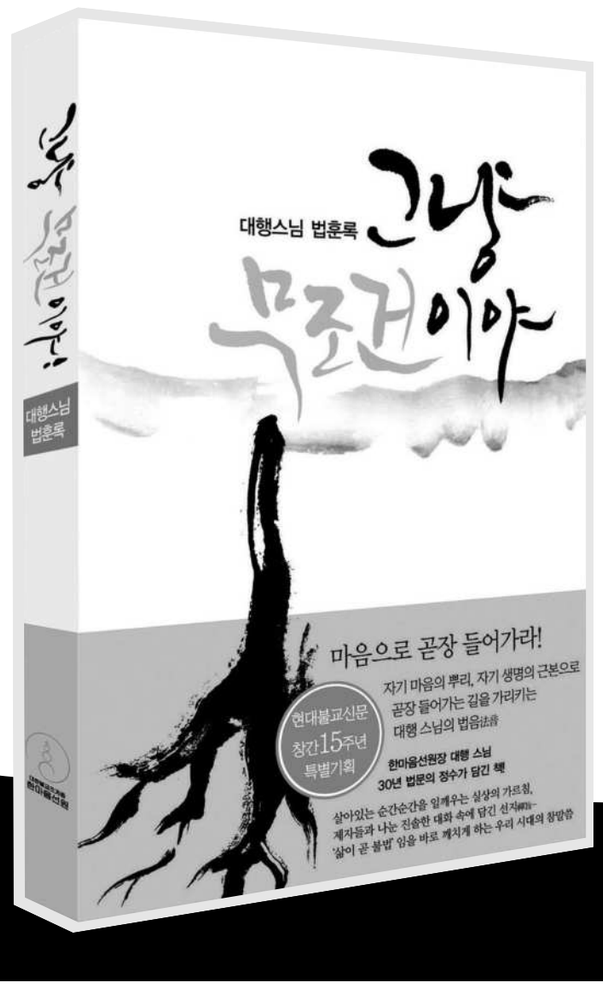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부처님을 숭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질문 스님께서는 부처님을 찬양하는 찬불가보다는 생활 속에서 선(禪)을 실천수행 하라는 뜻으로 선법가를 부르도록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래를 할 때면 부처님을 숭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마치 다른 종교에서 신을 생각하듯이 부처님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밖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과연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답변 아니, 손을 폈다가 오그리고 오그렸다 펼 줄 알아야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본래 부처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부처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저 형상을 부처로 보지 마시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내가 진짜로 사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 놔라!

☞ 29면에서 계속

고, 그때 그 시절에 난 분도 바로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란 얘기죠. 그런데 바뀌져서 돌아갈 때에 그걸 보지 못해서 그렇지, 바로 여러분이 부처요, 여러분이 중생이요, 여러분이 지금 그 굴리고 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때에 따라서 부처도 생각나고 조상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아내도 생각나고, 자식도 생각나고 친구도 생각나고 그냥 시시때때로 바뀌 가면서 생각이 나지 어찌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 한 군데서 그것도 생각이 나는 거지 여러 군데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음 속에서,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또는 하치 않은 생각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보고 듣는 대로 생각이 바뀌지는 겁니다. 바뀌지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한군데서 나오니까, 그것도 부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개의치 마십시오.

병원에 가야 하는지

질문 일체를 주인공에 들이고 내는 것이 제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병고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몸에 어떤 이상이 있더라도 병원에도 가지 않고 수행의 재료로 생각하여 진실하게 믿고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 보이는 의사도 또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생각을 말이에요, 병원엘 가든지 약국엘 가든지 자기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자기가 있으니까 아픈 것도 있는 거지 자기가 없으면 아픈 것도 없죠. 그러니까 병원엘 가도 자기 주인공 그 자체, 자기 영혼의 근본이 거길 가게 하는 거죠.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가요. 허허허…. 그래서 남의 손을 빌려요. 내 손으로 할 거라면 내 손으로 하고 저 손을 빌려야 될 거라면 저 손을 빌리고, 이게 마음대로 자유자재권을 거기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계 받을 때 '술 먹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죠? 그런 걸 나는 중간에다 놓고 '술을 먹되 남을 괴롭히지 말고 망주로 먹지 마라.' 이랬죠. 하여튼 뭐든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고 그러니까 뭐든지 나한테 맞게 먹으면 탈이 하나도 안 나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요, 그냥 형제지간이나 또는 친구지간이나 말을 좋게 해 줘야 서로 의리가 나빠지지 않는데 거짓말하지 말란다고 그냥 곧이곧대로, 이쪽에서 욕했다고 그대로 얘기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되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융통성이거든요, 융통성.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을 했어도 거짓말이 아니 되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해라.' 이럴 수도 없고, 이게 엉거주춤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짓말해도 아니 되고 아니 해도 아니 되는 그 가운데서 네가 알아서 융통성 있고 지혜롭게 해 나가라. 이게 그대로 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융통성 있게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아, 내 한마음이 저기까지 미치는구나. 보이지 않는 한마음이 찰나에 들고 나면서 남의 손을 빌리게 해 주는구나. 그리고 겉으로는 내 주인공의 손을, 주인공이 이렇게 남의 손을 빌리게 해 줬으니 그 수고한 걸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건 여기서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 감사하고….' 이런 거죠. 매사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빨치산으로 붙들렸는데 형사들이 말이에요, 한 다섯 사람쯤 됐어요. 그런데 나를 붙잡아다가 함바집 같은 산골집의 각각 따로 있는 방 중의 하나에다 넣어 놨어요. 그런데 방에 갇혀서 얼마 있더니 "이제 나가자."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 주인이, 내 자부처가 "나가야지. 나가지 않겠니?" 그러면서 "저것 좀 들어 봐. 문 좀 들어 봐." 해서 딱 드니까 문은 걸려 있는데 이쪽에 왜, 설주 있잖아요? 그게 쑥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문 잠가 놓은 대로 이렇게 젖혀 놓고 나왔죠. 나와 보니까 그 다섯 사람이 다 책상에다 꼬라박고 자는 거예요. 하하하…. 그런데 건빵도 먹다가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그 건빵을 또…, 하하하….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디 뭐, 담을 데나 있어요? 거기 또 손수건이 하나 있길래 손수건에다 싸서 들고 나왔죠.

나올 때 웃으면서 나왔어요. 왜냐? 고문을 한 것도 주인공이 저 사람을 시켜서 채찍질을 한 거고 그러니까 밉지가 않아요, 모두가. 아프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가게 하는 것도, 나오게 하는 것도,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 것도 모두 거기구나.' 그리고 '아하, 이렇게 죄 없이 맞은 그 아픔은 금방 낫는구나.' 했어요. 상처가 생겼는데도 금방 나아요. 그러니까 그 모두를 남한테다 떠넘기지 말라 이겁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남한테다 떠넘기지 말라 이겁니다. 남한테 물씬 맞았다 하더라도 '어허, 저 몸을 시켜 가지고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게 했으니 내 얼마나 저 사람을 수고를 하게 했나.' 하고, 하하하…. 아이, 정말이에요. '수고를 하게 했나.' 하고 외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몸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게 돼 버리죠. 죽은 세상으로 다 연결이 돼서 다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육식 생활이 계를 파하는 것 같아

질문 부처님이 설하신 계 가운데 불살생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 것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에 음식을 먹으면서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그럽니다. 육식 생활을 함에 있어서 늘 그 불살생계에 걸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연하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죠. "손님들이 와서 닭 30마리를 잡아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한테 물으러 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30마리를 잡아서 서른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하고, 만약에 하지 말자고 우긴다면 집안에 큰 싸움이 날 테니 스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했습니다. 그거를 살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백지장 하나를 넘지 못해서 모르니 살생이 될 것이고, 백지장을 뚫은 사람은 그것이 살생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생각을 이렇게 해라. 닭의 살은 네 살이고, 닭의 생명도 네 생명이고, 닭의 마음을 네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 닭의 살은 약으로 될 것이고 닭 30마리가 그냥 홀랑 네가 돼 버리고 만다. 그러니 30개를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30개를 꺼내도 줄지 않는 도리니 거기다가 모든 거를 맡기고 그냥 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와서 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꿈을 꾸니까 닭발이 전부 한데 묶여서 천상으로 올라가요." 자기와 그 닭들이 둘이 아니게 끔 그냥 자기 몸뚱이로 들어오더니만 자기가 천상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건 왜? 그 도리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에게 소고기 한 점이 걸리는 것이 오백 년, 천 년 만에 한 번 인연이 될까 말까 한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백 년도 일초요 일 초도 오백 년이지, 오백 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 초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가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봐도 그 소 모두를 내 마음 안에 넣으면 내가 되고 내가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소가 되고, 소가 돼서 소 무명을 벗기면 그대로 인도환생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사람들은 연쇄적으로 하(下)의 동물을 먹고 그 하의 무명을 벗기고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생한다고 그것을 넘기지 못해서야 어찌 부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며 그 뜻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살생을 한 바도 없고 안 한 바도 없는 그 가운데 도리를 알 것 같으면 아주 무주상 보시죠.

윤회가 교리가 아닌 사실인지요

질문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세상에 태어났다 죽으면 그것으로 그만인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처럼 기계문명이 발달하여 편리한 세상을 향락적인 삶으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와 업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윤회의 가르침이 부처님 말씀으로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인지요?

답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느낌이 문제지요. 누구나 진화하고 윤회하는 건데 그건 하루 24시간 동안만 잘 살펴보아도 알 수 있잖습니까. 찰나찰나에 자동적으로 변해 돌아가는 현생의 삶 또한 윤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죽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모두들 죽는 걸 덮어놓고 깜깜한 무(無)로만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죽는다기보다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또 살면서 닥치는 모든 어려운 일도 자기가 업보를 지어서만이 아니라 자기를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을 좀 돌려 보세요. 그러면 윤회에 말리는 게 아니라 윤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회가 곧 진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냥 물질 본위로만 나가니까 거듭거듭 다시 태어나야 되고, 거듭거듭 무리를 지어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는 축생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아주 하치의 중생도 되고들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남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남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여 막 죽이고 그러는 것은 전자의 습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나오는 것을 자기가 지금 가다듬어서 자재할 줄 모른다면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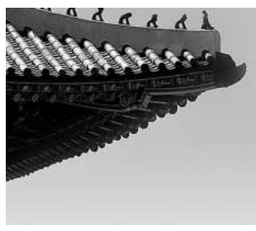
그래서 윤회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악하게 했으면 악하게 받고, 선하게 지었으면 선하게 받고…. 이렇게 그냥 금방금방 돌아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시간 내에 받느냐 열 시간 내에 받느냐 일 년 후에 받느냐 천 년 후에 받느냐 이게 다를 뿐이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를 떠나라.' 하는 걸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냥 자유자재하게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태어나고 싶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고 그러지, 그 속에서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깁니다.

부처는 자유인이고 중생은 노예예요. 지금도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긴 했어도 부처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부처로는 났는데 인연 따라서 온 업은 어떡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전에 살던 습의 인연에 의해서 자꾸 생각이 나게 되죠. 이 마음이 생기게도 되고 저 마음이 생기게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순한 양처럼 됐다가도 금방 약하게 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모든 걸 지금 놓으라는 얘깁니다.

순한 양처럼 되는 마음도 놓고 악하게 나오는 마음도 놓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마음으로 순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질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물질 본위로만 자꾸 나가 보니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윤회도. 뭐 딴 무엇이 윤회나 업보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가 되려면 부처가 되는 거고, 중생이 되는 것도 자기가 되는 거고 그래요. 중생이 되어 거듭거듭 새로 태어나는 것도 다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반면에 우리가 윤회의 원리를 깨달아 자재권을 갖는다면, 영체로서 수십만 명을 내보낼 수도 있고 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예전에는 육신으로 다니면서 불국토를 지킨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불국토를 지키려면 영체 아니고는 못합니다. 사람의 눈에만 띄었다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깨닫기만 하면 윤회에도 끄달리지 않고 마음대로 일체를 포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순한 양처럼 되는 마음도 놓고 악하게 나오는 마음도 놓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마음으로 순응한다. 항복을 받는다.**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출발일: 2월 16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출발일: 11월 28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출발일: 12월 5일, 12월 12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10월 20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10월 31일,11월 21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출발일: 12월 2일,12월 30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Myanmar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